

신약
4

BELIEVER'S BIBLE COMMENTARY
JOHN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요한복음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요한복음

조성훈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JOHN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4
저자 서문	5
편집자 서문	7
신약성경 서론	11
복음서 서론	18
요한복음	29
요한복음 서론	30
1. 서언: 하나님 아들의 첫 출현(1:1-18)	39
2. 하나님 아들의 첫번째 해 사역(1:19-4:54)	49
3. 하나님 아들의 두 번째 해의 사역(5장)	108
4. 하나님 아들의 세 번째 해의 사역 : 갈릴리(6장)	133
5. 하나님 아들의 세 번째 해의 사역 : 예루살렘(7:1-10:39)	161
6. 하나님 아들의 세 번째 해의 사역 : 베레아(10:40-11:57)	224
7. 하나님 아들의 제자들에 대한 사역(12-17장)	243
8.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죽음(18-19장)	312
9. 하나님 아들의 승리(20장)	335
10. 결론 : 그 스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21장)	346
참고 문헌	354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친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텐에서 동이 뜨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디아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낮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r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 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복음서 서론

“복음서는 모든 저작의 첫 열매이다.”-오리겐

1. 우리의 영광스런 복음서

문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이야기, 소설, 연극, 시, 전기 등 여러 형태의 문학에 친숙해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범주의 문학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복음서이다. 복음서는 비록 전기적(傳記的)인 요소가 강하지만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도 흥미가 뒤지지 않는 탕자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비유들을 담고 있지만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비유들은 소설이나 단편 이야기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다. 복음서는 분명 우리 주님의 많은 대화와 강화들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복음서”는 독특한 문학적인 범주일 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는 정경의 형태가 깨져버렸다. 네 복음서, 아니 그 네 가지만이 약 2천 년 간 정통 기독교인들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여러 이단들이 자칭 복음서라 하는 책들을 기록했으나 그것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교리를 펴뜨리는 해롭기 짝이 없는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왜 4복음서인가? 왜 모세오경의 수에 맞춰 기독교 오경을 이루도록 5복음서가 되지 않았는가? 혹은 왜 반복되는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보다 많은 기적과 비유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한 권의 긴 복음서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미 2세기경부터 이 4복음서를 “조화” 내지 한데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디아테싸론”(4권 전체란 뜻의 헬라어)이란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이레니우스는 사(4)가 동서남북으로 이뤄진 우주의 수이므로 그 수에 맞춰 4복음서가 존재한다고 이론을 폈다.

2. 네 상징

많은 사람, 특히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4복음서와,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상징물(사자, 소, 사람, 독수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상징물들은 보는 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복음서와 비교되어 왔다.

만일 위에서 주장되는 대로 그러한 상징물들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면,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왕적인 복음인 마태복음에 가장 적합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인 소는 종의 복음인 마가복음에 잘 어울릴 것이고, 사람은 인자의 복음인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동의를, 반의어 및 전치사 표준 사전”에도 표현되기를, “독수리는 드높은 영적인 환상을 상징하는 성 요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이다”라고 했다.¹⁾

1) James C. fernald, ed., “Emblem,” *Funk & Wagnalls Standard Handbook of Synonymy, Antonyms, and Prepositions*, P. 175

3. 네 지도력

아마 4복음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성령께서 상이한 네 부류의 사람들(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분류되는 고대인의 네 부류)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셨다는 설명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는데 동의한다. 구약 인용문들, 상세한 강화, 우리 주님의 계보, 일반적인 썬족의 논조 등은 마태복음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의 눈에도 쉽게 띈다.

아마 제국의 수도에서 집필한 듯한 마가는 로마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처럼 사고보다는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겨냥했다. 그의 복음서는 따라서 기적들은 많으나 비유는 적다. 이 복음서는 아무런 계보도 없는데 그것은 로마인들이 능동적인 종의 유대적인 계보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헬라인들과, 헬라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많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美)와 인간과 문화와 문학의 가치를 사랑한다.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 헬라인과 가장 비견되는 현대인은 프랑스인인데, 누가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한 사람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누가복음 서론 참조).

요한은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가?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우주적인 복음서이다. 그것은 복음적이면서도(20:30-31), 생각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마 요한은 “제3의 인종”(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교도들이 부른 이름)을 염두에 둔 듯하다.

4. 기타 4중적인 상징들

구약에는 4복음서의 강조점들과 아름답게 일치되는 다른 4중적인 상징들이 있다.

(1) “가지”

우리 주님에 대한 칭호로 다음 문맥에서 나온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렘 23:5-6).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슥 3:8).

“…순이라 하는 사람이…”(슥 6:12).

“…여호와와 의 짝이…”(사 4:2).

(2) “보라”

구약에는 복음서의 주요 주제와 꼭 일치되는 네 차례의 “보라”가 나온다.

“보라 네 왕이…”(슥 9:9).

“나의 종…을 보라”(사 42:1).

“보라…사람이…”(슥 6:12).

“너희 하나님을 보라”(사 40:9).

(3) 성막

마지막 상징물은 다소 덜 분명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끼쳐 온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성막 재료의 네 색깔도 우리 주님의 속성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4중적인 묘사와 부합하는 듯 보

인다.

“자색”은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 부합된다. 사사기 8:26은 이 색깔의 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홍색” 염료는 고대에 연지벌레를 짜서 만든 것으로 이 색깔은 “벌레요 사람이 아닌” 종(시 22:6)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말해준다.

“흰색”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해주는데(계 19:8)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한다.

“청색”은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청옥색 궁창(출 24:10)을 말해 주며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훌륭하게 묘사해 준다.

5. 기록된 순서와 강조점

복음서에서 우리는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종 사건들을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 한데 묶으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누가복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순서로 엮어져 있으며, 누가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실과 주님의 대화와 질문, 답변 및 강화들을 단순히 발생한 사건 순이 아닌 그 내적인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은 사실 가장 영성하고 가장 초보적인 기록 형태이다. 반면에 사건들을 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그 도덕적인 순서대로 한데 묶는 것은 단순한 연대기와 구분되는 역사가에게 주어지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여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²⁾

이러한 상이한 강조점과 접근은 복음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관복음”(Synoptics; “같은 관점을 취하다”는 뜻)으로 불리우는 앞의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유사하나 요한복음은 다르다. 요한은 후에 기록했으며 이미 잘 다뤄진 내용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한결 회고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해 준다.

6. 공관복음 문제

앞의 세 복음서 간에는 왜 많은 “유사점”(심지어 비교적 긴 단락의 내용 뿐 아니라 어순까지도 거의 같을 정도로)이 있으면서 많은 “상이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리켜 흔히 “공관복음 문제”라 부른다. 이것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더욱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복잡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개중에는 사본상에 아무 흔적도 없는 자료가 분실된 이론들도 있다. 어떤 것들은 누가복음 1장 1절의 기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통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가능한” 이론들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1세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화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들 소위 “양식비평” 이론이 드러내는 모든 기독교 성경과 교회 역사에 대한 불신앙적인 면은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이론 중 어느 하나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무 문헌상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공관복음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의

2) William Kelly, *An Exposition of the Gospel of Luke*, P. 16

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관복음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적절한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 절의 주님의 말씀에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는 마태와 요한이 직접 목격한 기억들과,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아마 마가(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가 기록했다는 가정에서)의 기록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성령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도움에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언급된 기록된 자료들과 셈족의 놀랄 만한 정확한 “구전”(口傳)을 추가해 보라. 그러면 공관복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한 자료들을 뛰어넘는 일체의 요긴한 진리들과 세부 사항 혹은 해석들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직접적으로 밝혀졌을 수 있다(고전 2:13).

따라서 어떤 “명백한” 불일치나 세부적인 차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왜 ‘이’ 복음서가 ‘이’ 사건 혹은 말을 생략하거나 포함하거나 강조하는가?”라고 묻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마태는 두 사람이 치료 받은(소경과 귀신들림으로부터) 사실을 두 번 기록하는데 비해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모순으로 본다. 그러나 유대적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율법이 “두세 사람의 증거”를 요구하는 까닭에 두 사람 모두를 언급한 반면에 다른 복음서들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을(소경 바디메오)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실례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외관상의 중복기사들이 사실은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누가복음 6장 20-23절은 산상수훈의 중복으로 보이나 사실이 교훈은 들에서 한 설교이다(눅 6:17).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강화는 왕국의 이상적인 시민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반해 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2) 누가복음 6장 40절은 마태복음 10장 24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데 비해, 누가복음에서는 훈련시키는 자가 주인이고 그가 가르치는 자가 제자이다.

(3) 마태복음 7장 22절은 왕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데 반해 누가복음 13장 25-27절은 주인과의 사귀음을 묘사한다.

(4) 누가복음 15장 4-7절은 바리새인의 가시 돋친 비난인데 비해 마태복음 18장 12-13절은 자녀들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

(5) 세례 요한은 신자들만 있을 때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한 반면에(막 1:8; 요 1:33), 특히 바리새인을 포함한 혼합된 무리가 있을 때는 “그는 성령과 불(심판)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했다(마 3:11; 눅 3:16).

(6)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반면에,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주의력”을, 그

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우리의 “관대함”을 가리킨다.

요컨대 이러한 차이들은 모순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사려 깊은 신자에게 신령한 묵상의 소재를 제공해 준다.

7. 저자 문제

복음서(사실 모든 성경)를 누가 기록했느냐는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증거들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눠 생각해 보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방법은 신약성경 27권 모두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다. “외적인” 증거 아래서는 성경시대 가까이에 살았던 작가들(보통 2-3세기의 “교부들”과 몇몇 이단 혹은 거짓 교사들)이 검토된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경과 기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혹은 특별한 언급을 해준다. 예를 들어 로마의 클레멘트는 1세기 말경에 고린도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2세기에 바울의 이름으로 조작된 가짜 서신일리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내적인” 증거 아래서는 문체, 어휘, 역사 및 내용을 통해서 어떤 책이 외부의 문헌과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혹은 상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는 저자가 식견있는 이방인 의사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많은 책에는 2세기의 이단자 마르시온의 인정된 책들의 “정경” 혹은 목록이 인용되어 있다. 그는 누가복음의 기본판(strippeddown edition)과 바울 서신서 중 열 편만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어떤 책들이 표준이었는데에 대한 유익한 증거를 남겨 준다. 무라토리 정경(그 문서를 발견한 이탈리아인 카디널 무라토리의 이름을 따

라 명명됨)은 때때로 단편적이긴 하지만 기독교 정경에 대한 정통 목록으로 인정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서론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A. T. 로버슨.

1. 정경에서의 유일한 위치

요한은 특별히 이 책이 복음적인 책(冊)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너희로…민게 하려 함이요”(20:31).

교회도 사도의 전례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는 지난 세기에 수백만의 요한복음 쪽복음이 배포된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또한 장성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좋아하는) 책이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주님의 일생만을 말하지 않고 갈릴리에서의 젊은 20대(20대 정도로 추측됨)에서 아시아에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도의 주님과 대화나 성숙한 반응을 말하고 있다. 그의 복음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틴 루터가 “견과(堅果) 속의 복음”이라고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다.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의 전부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공부하기에 충분한 고기와 젖을 제공해줄 것이다.

2. 저자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해서는 지난 150여 년 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분명 요한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난자들은 이 복음서가 눈으로 목격한 자의 증거가 아니라 사도 시대 이후 약 50-100년 후에 살았던 한 알려지지 않은 “영적 거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생각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이 사실이 아니며 또, 그리스도 자신도 사실과 다른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복음서 자체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열두 제자들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요한의 노년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베소에서 온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공관복음서에 포함시킬 복음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아래 요한은 “영적”인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영적”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표적의 깊은 의미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영적”이라 부르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외적 증거 : 안디옥의 디오필루스가(Theophilus. A.D 170년경) 가장 먼저 요한을 이 복음서의 기자로 기록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앞서 이 그나티우스(Ignatius)나 저스틴(Justin), 타티안(Tatian), 모라비안 정전

그리고 이교도 바실리데스와 바렌티누스 등이 이 복음서를 인용하거나 요한을 기자로 암시하였다. 이레네우스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요한, 요한부터 폴리갑 그리고 폴리갑에서 그 자신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제자 관계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관계는 거의 2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이레네우스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으며 교회 또한 그것을 확고히 받아들인 것을 전제로 이 복음서를 폭넓게 인용하였다. 이레네우스를 선두로 이 복음서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터툴리안의 증거를 포함해 폭넓은 시험을 받았다.

19세기 초까지는 오직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알로지(Alogi)라고 부르는 이단만이 요한을 부인했다. 요한복음 21장 끝 부분은 요한복음을 받아들일도록 격려하기 위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1세기 말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4절은 20절과 13장에 있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을 제 2세기 말에 기록된 것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1920년에 보석같이 귀한 요한복음 18장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해볼 때 2세기 중반 그러니까 AD 12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파피루스 52)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 소도시(알렉산드리아가 아닌)에서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신빙성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이집트(남쪽)까지 이 복음서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2세기 초에 쓰여진 이와 유사한 요한복음 5장, 에그버트(Egbert) 파피루스 2도 또한 요한의 생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

내적 증거 : 19세기 말 유명한 앵글리칸 학자이며 감독이었던 웨

스트코트(Westcott)가 요한의 저자권에 대하여 잘 요약하여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한복음 기자는 유대인이었다-기록방식이나 어휘, 유대 풍습이나 특성에 대한 밝은 이해 그 리고 구약의 배경이 그것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2) 그는 팔레스틴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다(1:28; 2:1,11; 4:46; 11:18,54; 21:1-2)-그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5:2; 9:7; 18:1; 19:13,17,20,41; 그리고 2:14~16; 8:20; 10:22도 보라).

(3) 그는 그가 기록한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었다-요한복음에는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 시간, 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4:46; 5:14; 6:59; 12:21; 13:1; 14:5,8; 18:6; 19:31).

(4) 그는 사도 중 한 사람이었다. 주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친밀하고도 상세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다(6:19,60-61; 12:16; 13:22,28; 16:19).

(5) 기자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하면서도 그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20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도 요한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가 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세 가지 말씀은 1장 14절, 19장 35절, 그리고 21장 24절이다.

3. 기록연대

이레네우스는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다고 확신 있게 말하였다. 만일 그의 말이 맞다면 빨리 잡아 가능한 날짜는 AD 69년이나 70년, 즉 사도가 그곳에 도착한 때가 될 것이다.

요한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아(확실한 년대를 알 수 있는) 그 일이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금 진보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은 사해 사본과의 가능한 연관성을 들어 그 날짜를 빠르게는 45년에서 66년까지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그 시기를 더 빨리 보고 자유주의자들은 늦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참 이상한 일이다. 이 경우 초대교회의 전통은 후자의 편이다.

1세기 말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날짜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강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관 복음서를 보충하고 세우는 것만을 보더라도 요한이 네 번째 복음서의 기자라고 보는 이레네우스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제롬의 견해에 동의한다.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 충격이 다가신 20-30년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레네우스는 요한이 트라이언 황제(A.D 98년도에 왕위에 오른) 때까지 살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그의 재임 날짜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이란 말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화된 나중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

어떤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D 85년에서 A.D 95년을 기록 년대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다.

4. 배경과 주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일곱 가지 공적 기적 또는 이적들에 그 기

초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1)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듦(2:9).

(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4:46-54).

(3) 베데스다 못가에서 불구자를 고치심(5:2-9).

(4) 5000명을 먹이심(6:1-14).

(5) 폭풍 가운데 있는 그의 제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 으심(6:16-21).

(6)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9:1-7).

(7)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11:1-44).

이 일곱 가지 공적인 이적 외에도 부활 이후에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 베푼 여덟 번째 이적이 있다-기적으로 고기를 잡음(21:1-14).

찰리 에드만은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고 주님을 섬기도록 감동했으며 학자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이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을 연대적으로 잘 기록하였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마치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명절에 대한 말씀들은 주님의 공적 사역이 약 3년 정도 된 것을 볼 수 있다.

첫 유월절(2:12-13),

“명절”(5:1),

유월절이거나 부림절, 두 번째(또는 세 번째) 유월절(6:4),

장막절(7:2),

수전절(10:22),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 있다(12:1).

요한은 또한 그의 기록에서 시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른 세 복음서 기자들은 그 때를 대충 말하고 있지만 요한은 제칠시(4:52), 사흘 되던 날에(11:6), 옛새 전에(12:1) 등 그 때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복음서의 형식이나 어휘는 그의 서신서와는 달리 아주 뛰어나며 문장은 짧고 간략하다. 유대 사상이 헬라 용어로 표현되었으며 때로 짧은 문장에 더욱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 용어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중요한 단어들과 그 것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가에 주의하라.

아버지(118번), 믿음(100번), 세상(78번), 사랑(45번), 증거, 증인... 등(47번) 생명(37번), 빛(24번).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숫자 7에 대한 사용과 그 것의 배수이다. 온전 또는 완전이라는 의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숫자에 담겨져 있다(창 2:1-3을 보라). 성령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며 또한 온전케 하고 있는데 그 양식이 숫자 ‘7’의 빈번한 사용에 기초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번의 “나는...이다”라는 표현은 아주 잘 알려진 말이다.

“생명의 떡이다”(6:35,41,48,51).

“세상의 빛이다”(8:12, 9:5).

“문이다”(10:7,9).

“선한 목자다”(10:11,14).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포도나무라”(15:1,5).

술부(述部) 없이 “나는”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말도 일곱 번 언급되었다(4:26; 6:20; 8:24,28,58; 13:19; 18:5,8). 마지막 말씀은 반복된 말씀이다.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은 21번 사용되었는데 이는 7의 3배수이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은 정확하게 일곱 번 언급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하늘로부터 내려온”이란 표현도 일곱 번 사용되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독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20:31).

5. 개요

1. 서언: 하나님 아들의 첫 출현(1:1-18)
2. 하나님 아들의 그 첫 해 사역(1:19-4:54)
3. 하나님 아들의 그 두 번째 해의 사역(5장)
4. 하나님 아들의 그 세 번째 해의 사역 : 갈릴리(6장)
5. 하나님 아들의 그 세 번째 해의 사역 : 예루살렘(7:1-10:39)
6. 하나님 아들의 그 세 번째 해의 사역 : 베레아(10:40-11:57)
7. 하나님 아들의 그의 제자들에 대한 사역(12-17장)
8.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죽음(18-19장)
9. 하나님 아들의 승리(20장)

10. 결론 : 그 스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21장)

1.

서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첫 출현(1:1-18)

요한은 말씀에 대한 것으로 그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말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단의 언어이다. 그러나 요한은 이곳에서 이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한 인격을 말한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충만히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며 그 사랑의 표현이다.

1. 영원과 시공간 안에서의 말씀(1:1-5)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시작이 없고 영원부터 존재하셨다. 인간의 사고가 미칠 수 있는 아주 먼 옛날에도 주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시다(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서인 이 책에는 족보가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개별적이고도 구별

된 인격체이다. 그분은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이념 또는 모호한 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신 참 인격체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세 분)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세 분의 인격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에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다. 그분이 하나의 신이라거나 신성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다.

1:2 2절은 앞에서 말한 것을 반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은 그 시작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그분이 하나의 인격이 된 게 아니며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부활 후에 어떻게 해서 신이 된 게 아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셨다. 이는 사람이나 짐승, 우주나 천사들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말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사물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는 그분이 만든 것이다. 물론 창조주로서 그분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시다. 창조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아버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의 신(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2). “만물이 그(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그로 말미암고”(골 1:16).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단순히 그분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다. 태어날 때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받으며 거듭날 때 영적인 생명을 받는다. 둘 다 그분에게로부터 온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또한 사람들의 빛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냥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또한 우리가 여행하는 길에 필요한 빛을 주셨다.

이 복음서의 첫 장에 우리 주님에 대한 일곱 가지의 놀라운 타이틀이 언급되고 있다. 그분은 (1) 말씀(1,14절), (2) 빛(5,7절), (3) 하나님의 어린양(29,36절), (4) 하나님의 아들(34,49절), (5) 그리스도-메시아(41절), (6) 이스라엘의 왕(49절), (7) 인자(51절)로 불리고 있다.

적어도 두 번 이상씩 언급되고 있는 첫 네 개의 타이틀은 그 적용이 우주적이다. 단 한 번씩 언급되고 있는 나머지 세 개의 타이틀은 그 적용의 첫 대상이 하나님의 옛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1: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세상에 죄의 유입은 인간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왔다. 어두움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거나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소멸하는 견지에서 온 세상을 어둠에 잠기게 했다. 이 어둠 가운데 주 예수께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정말 누구인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새 흠정역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 이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거부와 적대감이 참 빛이 비추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침례 요한의 사역(1:6-8)

1:6 6절에 나오는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한다. 침례 요한은 주 예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의 사역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며 사람들로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1:7 이 사람은 주님이 세상의 참 빛인 것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로 그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1:8 만일 요한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했다면 그는 그 임명된 임무에 충실한 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 그 자신을 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했다.

3. 하나님의 아들의 첫 출현(1:9-18)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지난 세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며
 인도자라고 말했지만 오직 요한이 증거하는 이 분이 참 그리고 최
 상의 신뢰할 수 있는 빛이었다.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번역 성경은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하
 고 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은 각 사람에게 비췌다는
 것보다는 참 빛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빛이 세상에 오
 심으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비취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 마음에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든 아니면 늦게든 주 예수
 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도 아니다. 이는 빛이 국가나 인종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비췌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빛이 각 사람들에게 비취므로 주 예
 수님께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완전
 한가를 보여주셨다. 방이 어두울 때 우리는 가구 위에 있는 먼지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방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참 빛은 사람들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
 내 준다.

1:10 그의 베들레헴 출생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셨다. 그는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주인이셨다. 사람들은 그를 창조주로 알
 아보는 대신 자기들과 동일한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
 를 나그네와 행인처럼 취급했다.

1:11 “자기 땅(그의 영토 또는 사물-NKJV역)에 오매”. 그는 다른 어떤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창조한 땅에 사셨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적인 면에서 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배척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이 땅에서 택한 그의 백성이었다.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그 자신을 제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2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제시하시고 누구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는 권리를 주셨다.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는 선행이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또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된다.

1:13 육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려면 그 가정에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새로 태어남) 또는 구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중생에 관여되지 않는 세 가지와 관여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가 이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혈통으로나.”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부모에서 자녀로

혈통을 통하여 전해지지 않는다.

“육정으로는.” 다시 말해 이는 사람은 그 육 안에 그 스스로 중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원해야 하지만 그의 의지는 그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목자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할지 모르나 그 사람을 구원할만한 힘이 그에게는 없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로서.”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은 중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나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4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는 언제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으나 이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는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떤 실수나 오해를 할 정도로 잠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실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 “거하시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또는 그의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몸은 그가 33년간 사람들 가운데서 산 그의 장막이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성경에서 “영광”은 흔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볼 수 있는 밝게 비추는 빛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뛰어나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의 육체 안에 그 영광을 가리우셨지만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다. 첫째로 그의 놀라운 영광

이 있었다. 이 말은 그의 온전하신 삶과 특성의 광채를 말한다. 그에게는 어떤 흠이나 책망 받을만한 게 없었다. 그는 그의 모든 길에 완벽했으며 절묘하게 균형 잡힌 삶에 모든 덕이 잘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 산상에서 있었던, 눈에 보이는 그의 영광이 있었다(17:1-2). 그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그 옷이 빛난 빛처럼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이 세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동안 다스리실 때 갖게 될 영광을 미리 본 것이다.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할 때 이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도덕적인 영광을 말한다. 그와 다른 제자들은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사신 그 분의 삶의 경이를 보았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변화 산에서 보았던 그 사건도 마음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본 영광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같은 다른 아들이 없으시다. 다른 한 면에서 볼 때 모든 참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구세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과분한 친절(은혜)을 가지셨으면서 또한 온전히 정직하시고 의로우셨으며 죄가 없으셨다. 온전히 은혜로우시면서 또한 완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1:15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주님이 그의 공적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대해 말했다. 예수님이 그의 공적 사역 현장에 등장하셨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하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주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신 만큼 늦게 사역에 임하셨다. 주님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으며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침례를 베푸는 지 얼마 후에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 그는 요한보다 크셨으며 요한보다 앞선 것만 가지고도 더 영광을 받으셔야 했다. 그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1:16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충만”한데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의 “충만”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충만하게 할 만큼 거대하다. “은혜 위에 은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호의를 의미한다.

1:17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대조하였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를 지키는 것을 명하며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선포한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말해주며 이를 지키는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죄인이며 또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는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치 없고 그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원수되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하늘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이 이 땅에 가장 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만 온 것이 아니라 진리도 또한 그

를 통하여 왔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모든 말이나 행동에 절대적으로 정직하셨고 신실하셨다. 그는 진리를 손상하시면서 까지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셨다. 그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베풀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늘나라에 거처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사망)을 지불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는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구약에서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한 나타남이 하나님의 참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³⁾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그와 같은 다른 아들은 없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 가까이 계신다.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동등하셨다. 이 복된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온전히 나타내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를 체험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자세가 온전히 선포되었다.

3) (1:18) NU원문에는(Nestle-Aland/United Bible Societies Greek N.T. 앞으로는 NU약자로 사용하겠음-역주) “Only begotten God”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본들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Only begotten Son”으로 되어있다.

2.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해의 사역(1:19-4:54)

1. 침례 요한의 증거(1:19-34)

1:19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위원회 위원들을 보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고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일반적인 일을 하는 종들이었다. 그들은 “네가 누구냐?”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냐?”라고 물었다.

1:20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유명해 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으나 요한은 신실한 증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다.

1:21-22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엘리야가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말 4:5).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만일 메시아가 아니라면 엘리야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한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언을 기억하고 요한이 어찌면 모세가 언급한 그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한은 다시 아니라고 말했다. 그 대표들은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좀 곤란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러면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 달라고 하였다.

1:23 그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고 말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 요한은 사자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할 것(알렐 갓)이라고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다. 다시 말해 그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할 사자였다. 그는 “소리”였고 이스라엘은 “광야”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과 죄로 인하여 광야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사람들이 되었다. 요한은 그 자신을 그냥 “소리”라 했다. 그는 어떤 위대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들리기만 하고 보이지 않는 “소리”의 위치를 취했다. 요한은 “소리”였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소리가 필요하며 소리는 또한 말씀 없이는 무가치하다. 말씀은 소리에 비해 극히 위대하시지만 주님의 음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요한의 메시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메시야가 오신다. 당신의 삶에서 메시야를 모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우라. 메시야가 이스라엘의 땅으로 오셔서 당신을 다스리도록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1:24-25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구약에 있는 여러 세부적인 교훈들을 지켜가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 구성된 엄격한 종교단체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 같았지만 실지로는 최악된 삶을 살아가는 외식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이 그들이 말한 그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권세로 침례를 주는 지 알기를 원했다.

1:26-27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상징으로 물세례를 베풀었다. “너의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적했다.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실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지 말라 너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주 예수님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가 정말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귀한 분이다. 그는 침례 요한 보다 늦게 오셨지만 더 위대한 분이로서 모든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다. 그 주인의 신발의 끈을 푸는 것은 노예나 종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로 생각했다.

1:28 베다니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른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곳이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다. 그곳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는 아니었다.

1:29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방문한 다음날(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오시는 것을 보았다. 감격적이고도 흥분된 그 순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했다.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제사에 쓰이는 짐승이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가르쳤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람 대신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렸다. 그러나 구약 때 죽임 당한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는 못하였다.

이 양들은 장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죄를 없이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나 모형이었다. 수많은 해를 내려오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양”의 오심을 기다려 왔다. 이제 그 때가 되어 침례 요한이 힘차게 그 진실한 어린양의 도착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에 충분한 죽음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죄인들의 죄만 용서해 주셨다.

J. C. 존스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속죄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 제물의 성격에 있어서도 뛰어나다. 유대인들의 제사의 제물은 이성 없는 짐승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2) 일의 효과에 있어서도 뛰어나다. 유대주의의 제물은 오직 매년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제물은 죄를 아주 없앴다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3) 작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뛰어나시다. 유대인들의 제물은 오직 유대 민족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제물은 세상 모든 민족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⁴⁾

1:30-31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은 오직 뒤에 오시는, 자기보다 크신 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것처럼 요한보다 크신 자였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났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한 것은 꼭 그가 전에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사촌인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침례를 받을 때까지 그의 사촌이 메시야인 것을 알지 못했다.

요한의 선교는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자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

1:32 이곳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4) (1:29) J. Cynddylan Jones, *Studies 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103.

때의 말씀이다.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마 3:16). 기자는 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1:33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 것임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인 것을 알았다. 성령은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시다. 그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었다.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 날에 일어났다(행 1:5 2:4,38). 그때 성령은 각 신자들 안에 거하며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셨다(고전 12:13).

1:34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일어난 일을 본 것에 의하여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세상에 오시기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그가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저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말하고 있음-역주).

2. 안드레,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심(1:35-42)

1:35-36 여기에 “이튿날”은 셋째 날을 말한다. 요한은 그의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들은 요한이 전하는 것을 듣고 믿었다. 그

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제 요한은 주님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증거했다. 그 전날 그는 주님의 인격(하나님의 어린양)과 그의 사역(세상 죄를 지고 가는)에 대해 말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인격에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게 했다. 그의 설교는 짧고 간단했으며 사심이 없었고 전체가 다 구세주에 대한 것이었다.

1:37 요한은 그의 신실한 증거(설교)로 인하여 두 제자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높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1:38 구세주는 언제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여기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도 아시고 계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관심도를 보고 싶으셨다. 그들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답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랍비”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란 말이다(문자적의 의미는 “나의 큰 자”).

1:39 주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구세주를 더 알기 원하는 자라면 그냥 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당시에 자신이 거하고 있던 곳으로 청하셨는데 오늘날의 집들과 비교

해 보면 아주 허술한 곳이었을 것이다.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십 시쯤 되었더라.” 그들은 그 날 밤 그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이들은 유대민족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이 되었다.

“십 시”는 오전 10시이거나 오후 4시를 의미할 것이다. 보통은 오전 10시(로마 시간)를 의미한다.

1:40 둘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오늘날 그의 형제 베드로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두 제자들 중에 주님을 먼저 만난 자라는 사실은 흥미 있는 일이다.

다른 제자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요한은 겸손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1:41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구원은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빨리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적어도 4천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 시몬은 지금 그 친 형제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정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살고 있었다. 안드레의 메시지는 얼마나 단순한가! 오직 세 마디 밖에 되지 않은 메시지였음에도(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얻는데 이를 사용하셨다. 이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사람들을

언기 위해 꼭 위대한 설교자나 명석한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말로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1:42 안드레는 그 형제를 옳은 곳, 옳은 사람에게로 인도했다. 그는 그 형제를 교회나 어떤 신조 또는 성직자에게 데리고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안드레의 관심으로 인하여 시몬은 나중에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며 주의 제자들 중에 앞장서는 제자가 되었다. 시몬은 그의 형제보다 더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를 주께 인도한 자가 안드레였기 때문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하기 전에 시몬의 이름을 아셨다. 그는 또한 베드로의 성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아셨다. 그는 시몬의 성격이 변하여 반석처럼 굳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다.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시몬의 이름은 게바(아람어로 돌맹이)로 바뀌었고 특별히 주의 승천과 성령이 임한 이후에 강한 개성의 사람이 되었다.

3. 빌립과 나다나엘의 부름(1:43-51)

1:43 지금은 이제 넷째 날이다. 보스취(Bosch)는 “첫 날에 우리는 요한만 보고(15-28절), 둘째 날에는 요한과 예수님을 보며(29-34절), 셋째 날에는 예수님과 요한을 보고(35-42절), 넷째 날에는 예수님만 본다(43-51절)”고 말했다. 주님은 갈릴리로 알려진 북쪽을 향해 걸으셨다. 그곳에서 그는 빌립을 만나 “나를 좇으라”고 그를

청했다. 이는 그 말씀하시는 자나 그 제시한 특권으로 볼 때 엄청난 말씀이다. 구세주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초청을 하고 계신다.

1:44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해변에 있는 도시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몇 안 되는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의 이적을 행하셨다(눅 10:13). 그곳은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어디에 그 도시가 있었는지 그 위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였다.

1:45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누구에게나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나dana엘을 만났다. 초신자가 가장 좋은 구령자이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그는 나dana엘을 만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했다. 사실 그의 메시지는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으며 육신적인 아버지는 없었다. 요셉은 예수님이 그의 참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로 받아들여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었다.

제임스 스트워트(James S. Stewart)는 “처음부터 완전한 성숙을 요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었으며 신조가 완전치 못하다고 사람들을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 형제들 가까이 계시며 언제든지 그들이 원할 때에는 주님과 접하게 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그는 처음 시작하는 자들의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그 친구들을 인도하시며 그 첫 무리를 인도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큰 비밀인 그 자신과 제자도의 충만한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했다.⁵⁾

1:46 나다나엘은 문제가 있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천한 곳이었는데 메시아가 그같이 이런 가난한 이웃들과 산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빌립은 그와 변론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를 바로 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배워야 할 아주 귀한 교훈이다. 변론하지 말고 끝없는 논쟁 같은 것에 개입하지 말라. 그저 사람들로 주님께 와서 보게 하라.

1:47 47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다나엘을 만나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전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은 사업하는데 있어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나다나엘은 그 속에 “야곱”이 없는 “이스라엘”이었다.

1:48 나다나엘은 물론 전에 전혀 자기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에 놀랐다.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는 아무도 그곳에 없었던 것 같다. 늘어진 나무 가지와 주위의 초목들이 가렸을 것이지만 그렇게 숨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

5) (1:45) James S. Stewart,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pp.66,67

1:49 그가 나dana엘을 본 것은 어쩌면 그가 인간의 시계의 한계를 초월해 보았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나dana엘에 대해 아셨을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나dana엘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게 되었다.

1:50 주님은 나dana엘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두 가지 증거를 주셨다. 하나는 그의 특성에 대한 묘사였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이다. 나dana엘에게는 그 두 증거만 해도 충분했으며 그로 인하여 주님을 믿었다. 이제 주님은 그에게 그보다는 더 큰 증거들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1:51 언젠든 주님께서 “진실로”(문자적으로는 ‘아멘, 아멘’)⁶⁾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이다. 여기에서 주님은 나dana엘에게 장래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때에 세상은 천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나dana엘이 하늘로 향한 야곱의 사다리에 대한 것을 묵상했던 것 같다(창 28:12).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사다리는 하늘에 올라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인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림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할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불꽃처럼 움직인다. 예수님이 왕

6) (1:51) 오직 요한만 “이중적 아멘”을 사용하고 있다(NKJV에는 진실로). 다른 복음서는 주님의 표현을 “아멘”으로 축약한 것 같다(NKJV에서는 ‘진실로’).

으로 다스리게 될 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메시아직에 대해 아주 적은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장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즉 기름부음을 받은 아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모든 사람들은 천한 나사렛으로부터 뛰어나신 분이 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첫 표적 : 물로 포도주를 만듭(2:1-11)

2:1 여기에서 셋째 날은 주님이 갈릴리에 거하신지 삼 일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장 43절에서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다. 정확하게 가나가 어디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2장 12절에 의하면 그곳이 가버나움에서 가깝고 더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다.

그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 참 흥미 있는 일이다. 구세주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유명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유명했다. 성경은 언제나 마리아보다 그리스도를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다.

2:2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청한 것은 결혼을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잘한 일이었다. 오늘 날에도 그들의 결혼에 주님을 청한 사람은 참 잘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신랑과 신부가 다 주님 안에서 참 신자라야만 한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주께 드리고 그들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

는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2:3 술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을 때 그녀는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져갔다. 그녀는 주님이 술을 준비하기 위해 이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을 것이다. 때로 술은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한다. 마리아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를 묘사했다. 불신자들에게는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없다.

2:4 그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꾸짖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자여”라는 말은 하나의 경칭으로써 오늘날의 “귀부인, 숙녀”라는 말과 같다. 주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이는 그의 선교에 대한 이행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승리한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나기에 앞서 제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다. 윌리엄(Williams)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관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 이는 ‘서로의 공통점이 무엇이나?’라는 뜻이다. 답은 ‘아무것도 없다’이다. 다윗은 그 사촌들인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존

경하는 가운데 두 번이나 사용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 그들이 다윗과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3장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그 자신 사이에 깊이 파인 골을 묘사하기 위하여 같은 말을 사용했다. 마귀들은 세 번이나 같은 말을 사용해서 사단과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죄악된 인성과 그분의 죄 없는 신성 사이의 골은 메울 수 없으며 그분의 귀에는 오직 한 목소리(하나님 아버지)만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셨다.”⁷⁾

2:5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라고 명했다. 그녀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다. 그녀가 사람들을 자기나 다른 인간을 순종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에 주의하라. 그녀는 그들에게 주님을 가리켰으며 오직 주님만이 순종해야 할 자라고 말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 우리는 고귀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마리아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2:6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던 곳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었다. 이 물은 유대인들이 부정할 때 그 자신들을 씻기 위해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유대인이 죽은 자를 만지면 그는 정결케하는 의식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부정한 자로 여겼다.

7) (2:4)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194.

2:7 예수님은 물로 그 돌 항아리들을 채우라고 명하셨다. 하인들은 즉시 이를 이행했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기 위하여 구하기 쉬운 것들을 사용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돌 항아리를 준비한 것이나 물로 채우는 것은 하게 하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신이 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인들이었다. 그와 같이 하여 주님은 어떤 있을 수 있는 책략을 피하셨다. 또한 물을 돌 항아리 입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아무도 나중에 술을 갖다 부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2:8 이제 이적은 일어났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셨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 술이 된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의식이 없는 물이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붉혔다”라고 말했다.

2:9 연회장은 잔칫상 차리는 것을 주관하는 자였다. 그는 그것을 맛보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술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맛있는 술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신랑을 불렀다.

오늘날 술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술은 때로 의료용으로 쓰였는데 이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딤후 5:23). 그러나 절제 없이 사용된 술의 남용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피할 것이다. 누구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피하는 길은 모든 알코올에서 멀리하는 것이

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은 불신자들 가운데 나쁜 간증이 되며 그들 또한 그로 인해 주님을 믿는 것을 피하게 된다.

2:10 연회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것과 주님이 하신 것의 큰 차이를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잔치에서 사람들이 맛을 알고 즐길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술을 낸다. 나중에 취한 후에는 그들은 술의 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혼인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술이 나중에 나왔다. 이것에는 우리들을 위한 영적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베풀다.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매혹적인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헛된 쾌락에 그들의 젊음을 다 낭비한 후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쓰레기와 같이 낡고 늙은 몸뚱이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반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더 새로워진다.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좋은 술을 베푸신다. 금식 후에는 잔치가 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유대 민족에게 아주 직접 적용된다. 그 때에 유대주의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 사람들은 메마른 형식과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부터 외인이었다. 주 예수님은 그를 의지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주님은 그들의 메마른 삶을 충만한 기쁨의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의 예식과 의식에 사용한 물이 그리스도 안의 실제인 기쁨의 술로 바뀔 수 있었다.

2:11 “이 처음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릴 때 이적을 행했다는 온갖 주장들을 잠재운다. 그러한 것들은 가짜 복음서 즉 “베드로 복음서” 같은 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주님이 어린아이였을 때 이적을 행했는데 그 성격이 조금은 성스럽지 못했다고 한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시는고로 주님의 어릴 때의 삶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어릴 때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을 술로 만든 것은 표적은 의미 있는 이적이었다. 그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초인간적인 일이었다. 이 이적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주님은 이 이적을 행함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참 하나님, 육체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한편으로 볼 때 물론 그들은 전부터 그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고 그를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신디란 존스(Cynddylan Jones)는 이렇게 말했다.

“모세의 첫 이적은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파멸의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첫 이적은 물을 술로 만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안위와 위로의 요소가 있었다.”⁸⁾

5.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청결케 함(2:12-17)

2:12 이제 구세주는 가나를 떠나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며칠 밖에 계시지 않았다. 그 후 주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

8) (2:11) Jones, *Studies*, p.148.

다.

2:13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사역은 3장 21절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님의 그의 공적 사역은 유월절 기간 동안 성전을 청소하는 일로 시작해서 청소하는 일로 마친다(마 21:12-13; 막 11:15-18; 눅 19:45-46).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는데서 건짐을 받아 홍해와 광야를 거쳐 약속된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연례 명절이었다. 맨 처음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14 그는 성전에 오셔서 성전이 장사꾼 소굴이 된 것을 보셨다. 그곳은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장사하고 있었다. 짐승과 새들은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제물로 팔렸다. 돈 바꾸는 자들은 외국에서 오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주어서 그들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 때로 이 돈 바꾸는 자들은 멀리서 온 자들에게 돈 바꾸는 과정에서 불의한 이득을 취했다.

2:15 주님이 사용하신 채찍은 가는 밧줄로 만든 조그마한 채찍이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하셨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손에 들므로 인한 하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었을 것이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장사꾼들의 상을 엮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2:16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주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셨다. 그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았다. 전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이 돈 버는데 이용되는 것을 경고해오셨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이 잔인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의 의와 거룩에 대한 암시였다.

2:17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리라고 예언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순수해야 한다는 불같은 판결을 보았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분이란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애쓰신 것(갈망)처럼 우리도 조심해서 우리 몸의 지속적인 청결을 위하여 주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함(2:18-22)

2:18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이나 기적을 구한 것 같다. 그들은 사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어떤 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주님은 이적에 또 이적을 계속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 대해 닫혀있었다. 18절에서 그들은 주님이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낸 권위 즉 무슨 권세로 장사꾼들을

쫓아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만일 주님이 메시아라면 이적을 행하여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였다.

2:19 그에 대한 답에서 주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성전을 헐겠지만 삼 일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흘 동안에 이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2:20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영적 진리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의 성전뿐이었다. 그들은 그 성전이 46년이나 걸쳐 세워진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삼 일만에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2:21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성전인 그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들은 그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얼마 후에는 주님도 죽음에 넘기울 것이었다.

2:22 나중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 부활하신 후에야 그의 제자들은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와 같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말씀을 우리 마음에 귀한 보화로 간직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래에 주께서 이를 명확히 밝히실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을 믿었더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말한다.

7.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고백함(2:23-25)

2:23 예수님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베푼 이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이는 꼭 그들이 주를 의지하고 그들의 삶을 주께 맡겼다는 것보다는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행함에는 진실성이 없었고 그저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진실로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세상 상태와 비슷하다.

2:24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헬라어로는 같은 말임) 않았다. 즉 주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온 것을 아셨다. 그들은 무언가 굉장하고 극적인 것을 추구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를 잘 아셨다. 주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하는지,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지를 잘 아신다.

2:25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 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침이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 그렇게 행했는지를 다 잘

아신다.

8.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 가르치심(3:1-21)

3:1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룬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란 것을 아셨다. 니고데모는 예외였다. 주님은 그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다. 1절은 “그러나⁹⁾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사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무언가 더 배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3:2 성경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가장 납득할 만한 설명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왔다는 것이다. 어떻든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다. 니고데모는 누구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는 그러한 이적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았다.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배우면서도 주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늘날 “예수

9) (3:1) 헬라어 δε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현대영역 성경에서는 흔히 이를 삭제하는 경향이 있다. KJV 몇 곳에서 이를 빠뜨리고 있는데 그중에 한곳이 이곳이다.

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놀라운 선생이다. 특별히 본받을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다. 이 모든 말들은 다 온전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이시다.

3:3 언뜻 보기에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주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연결이 안된 것 같다. 우리 주님은 “네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게 왔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문자적으로는 ‘아멘, 아멘’)라는 말과 함께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 말이 참 중요한 진리라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유대인으로서 니고데모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과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메시아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며 그들의 모든 적들이 멸망당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육신적으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하는 것처럼 하늘의 생명도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 (중생이란 말의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오직 삶이 변화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도 또한 의로워야 한다. 그는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스리실 수 없다.

3:4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다. 그는 다 자란 사람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한번 태어난 사람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고 한 말씀에 대한 좋은 예이다.

3:5 주님은 더 계속된 설명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은 물로서 구원을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대치된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5장 25-26절에서는 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8절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중생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물은 성경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생이 이

루어지기 전에 죄인은 먼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말씀으로 점유(占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의 물은 또한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요한복음 7장 38-39절에서 주님은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물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 줄 잘 알고 있다. 만일 7장에서 말하는 물이 성경을 의미한다면 3장에서 말하는 물이 성령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러나 이곳에서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이곳에서 말하는 물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이 구절에서 성령을 두 번이나 이야기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and’(‘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로 번역되어 있음-역주)로 번역된 단어는 “even”(일반적으로 강조를 나타내는 단어임 “한층(더)”, “까지도” 등-역주)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고 믿는다. 육적인 출생으로는 충분치 않다.¹⁰⁾ 이 영적 출생은 사람이 예수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두 번이나 “성령으로 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6,8절).

10) (3:5) 영과 육의 대조적 출생을 말하고 있는 이 문맥에 적합한 또 다른 해석은 물은 육의 출생을 나타내고 영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랍비들은 “물”을 숫컷종자에 사용했으며 물은 또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나오는 양수를 의미할 수도 있다.

3:6 비록 니고데모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은 바로 되지 않을 것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는 표현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는 죄 가운데 태어나며 그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는 표현은 그 반대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영적 출생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하나님나라에 맞는 새로운 성품을 받는다.

3:7 니고데모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지 말아야” 했다. 그는 사람이 거듭나야하며 또한 인간의 본성은 그 타락된 상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거룩하며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했다.

3:8 주 예수님은 흔히 하시던 것처럼 그 예를 들기 위하여 자연을 사용하셨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중생은 바람과 비슷하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둘째로 중생은 보이지 않는다. 중생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중생의 결과로 사람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볼 수 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에게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에는 사랑했던 죄악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며 전에는 멸시하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된다. 바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없듯이 중생 또한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이적 같은 역사이다. 더 나아가 중생은 바람처럼 예고할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3:9 여기에 다시 니고데모는 육의 본성은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그는 아직도 중생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님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물었다.

3:10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일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먼저 그의 적들과 그를 대적하는 것을 멸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직 그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들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3:11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지만 사람이 이를 믿지 않음을 강조하셨다. 그는 영원 전부터 이것의 진실성을 알고 또 그 알고 본 것을 가르쳤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니고데모는 그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

3:12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신 “땅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그의 이 땅의 왕국이었다. 니고데모는 구약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어느 날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 땅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다.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은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다음 구절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중생하는 놀라운 일이다.

3:13 하늘에서 난 자는 주님뿐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는 주님밖에 없었다. 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보낸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였다. 주님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하늘에 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림을 받았지만 자신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설명은 그 어떤 인간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처에 나갈 수 있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하늘에 있었다. 이 땅에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사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어느 곳이든 계셨다. 그는 편재하시다는 말이 곧 그 말이다. 현대 번역에는 “하늘에 있는 자”(Who is in heaven)라는 말이 빠져있으나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본문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3:14 이제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진리를 밝히려 하셨다. 어떻게 중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람의 죄 값이 해결되어야 한다. 죄를 가지고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온 이스라엘

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뿔뱀을 달아 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했다(민 21:4-9을 보라). 약속된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낙심해 주를 향하여 불평했다. 주님은 그들을 벌하기 위하여 불같은 뱀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뿔뱀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 뿔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

3:15 예수님은 어떻게 중생이 이루어지는지 그 예로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을 인용하셨다. 사람들은 죄의 뱀에게 물려서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았다. 뿔뱀은 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성경에서 뿔뱀은 심판을 의미한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실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다. 장대는 주님이 달리신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다.

3:16 이 구절은 복음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다. 이 구절은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여기에 “세상”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나 악한 제도를 사랑하시지 않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지 않는다.

그의 사랑의 넓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잘 나타나있다. 하나님에게는 주 예수님과 같은 다른 아들이 없으시다. 이는 그를 거역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독생자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멸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비되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보레함(Boreham)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모든 나라와 섬들이 정복될 때까지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¹¹⁾

3:17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진노를 쏟지 못하여 안달하는 그런 차가운 지배자가 아니다. 그는 인간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그 아들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하여 그 아들로 고난당하고 피흘리도록 보내셨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죄인들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값을 지닌 사역이었다.

3:18 모든 인류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 구세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정죄 받지 않지만 그를 신뢰하지

11) (3:16) F. W. Boreham,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주 예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제 모든 것은 각자가 그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선물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만일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시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한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3:19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다. 그는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었다. 그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에게 분개하며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들의 죄를 더 사랑하였다. 마치 벌레들이 불빛을 피해 달아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피했다.

3:20 죄악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이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은 주님의 거룩으로 인하여 그들의 비참한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비뿔어진 막대기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똑 바른 막대기를 그 옆에 갖다 놓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온전한 자로 오셔서 비교하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뿔어짐을 나타내셨다.

3:21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솔직하다면 그는 빛이

신 주 예수님에게 나와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9. 유대에서의 침례 요한의 사역(3:22-36)

3:22 이 장의 첫 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주 예수님의 증거를 담고 있고 이 구절부터 이 장 끝까지는 유대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담고 있다.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빛으로 나온 자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베푸 것처럼 보이나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3:23 이 구절에 나온 요한은 침례 요한이다. 그는 아직도 유대에서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준비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도…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이 말씀 자체가 요한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확고한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만일 침례가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이었다면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3:24 이 구절은 요한의 계속된 사역과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반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머지않은 장래에 요한은 그의 신실한 증거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열심히 그의 임무를 수행했다.

3:25 이 구절에 보면 어떤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결례에 대하여 변론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 “결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결례는 아마도 침례를 의미할 것이다. 그들의 변론은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의 침례보다 나은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침례가 더 능력이 있는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선생의 침례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던 것 같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침례와 근래에 그의 유명도를 들어 요한의 제자들을 시기 나게 만든 것 같다.

3:26 그래서 그들은 그 결정을 위하여 요한에게 왔다. 그들은 요한에게 “만일 당신의 침례가 더 낫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예수께로 갑니까?”라고 말한 것 같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요한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하여 그의 많은 제자들도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3:27 만일 요한의 말이 주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라면 주님의 성공은 곧 그에 대한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자신은 절대로 중요하거나 큰 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전혀 자신의 침례가 예수님의 침례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자신은 그저 하늘이 주신대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만하거나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없다.

3:28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그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들이 요한과 논쟁할 필요가 무엇인가? 더 이상 그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3:29 주 예수님은 신랑이었고 침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였다. 신부는 신랑의 친구에게 속하지 않고 신랑에게 속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에서 신부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의 모든 제자들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내라고 했고 나중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을 신부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메시아가 도래하였을 때에 침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포함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이나 교회 그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았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잃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만족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의해 칭송과 영예를 받을 때 그의 기쁨은 충만했다.

3:30 요한의 모든 사역이 이 구절 안에 요약되어 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를 주목케 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했다. 그것을 하면서 요한은 그 자신을 후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신실치 못한 종이다. 이

장에 나와 있는 세 번의 “해야만 한다”(must)는 표현에 주목하라-죄인에게(3:7), 구세주에게(3:14), 그리고 성도에게(3:30).

3:31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 구절은 그 분의 근원이 하늘이며 높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낮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 말은 그의 출생을 말하는데 그 자신이 인간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없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보다 열등한 자였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우주 위에 최고의 주권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사자를 따르는 것 보다는 그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3:32 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가 보고들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기엔 어떤 속임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무도”(no one, 한글역에는 그냥 “받는 이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음-역주)라는 표현은 “전혀”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구세주의 가르침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였음에도 그를 듣고자 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3:33 33절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참 되시다고 인쳤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과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인 것을 안다. 33절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주목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자는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을 받는 자는 다른 하나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34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였다. 요한은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았던 방법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부음을 받았다. 다른 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이루는데 있어 성령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역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분적인 계시를 받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 곧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셨다”

3: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일곱 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이다. 여기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신 것에 그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 만물 중에는 36절에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

3:36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장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다. 그저 아들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며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볼 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그를 거절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 위에 있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것이다.

이 구절에 율법 준수나 황금률 순종, 교회 참석,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 등이 언급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라

10.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4:1-30)

4:1-2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며 그로 인해 요한의 인기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자나 제자로써 침례를 받았다.

4:3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으로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 분쟁을 만들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막으셨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유대는 유대종교 설립의 중심지였고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다. 주 예수님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그와 그의 증거를 저버린 줄 알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다.

4:4 사마리아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직통로(直通路)였다. 그러나 이 길을 택해 갈릴리로 가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해서 갈릴리에 가려면 베레아를 통해 먼 길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할 때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보다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4:5 사마리아를 여행하는 동안 주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에서 먼 곳이 아니었다(창 48:22). 예수님은 그 지역을 여행하시는 동안 그곳에 대한 모든 과거 역사의 현장들을 상기하셨다.

4:6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우물이 그곳에 있었다. 그 우물은 아직까지도 여행자들이 찾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의 유적지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물에 이른 것은 정오(유대 시간) 또는 오

후 6시(로마 시간)였다. 그는 오래 걸어서 피곤해 우물가에 앉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사람이셨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절대 피곤해질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 피곤을 느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다.

4:7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동리에서 한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 어느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때가 정오였다면 그 때는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운 때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부도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때를 택했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오래 전부터 그 때에 그녀가 그 우물가에 나올 줄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그녀를 그녀의 최악된 삶에서 건져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위대한 선생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 여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또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할 것이다.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곱 번 뿐이다. 그 여인도 주님께 여섯 번 그리고 그 동리 사람들에게 한 번 모두 일곱 번 이야기했다. 우리도 그녀가 주님께 말한 것만큼 말하면 그녀가 동리 사람들에게 한 것과 같은 간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호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여행으로 피곤하셨던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4:8 8절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왜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수가라는 동리로 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다녔지만 동리에 갈 때에 이를 같이 가지고 갔다. 그래서 주님은 물을 기를 그릇이 없었던 것 같다.

4:9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사마리아인들 자기들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들은 유대인과 이교도인들의 혼합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심 산은 그들의 제사와 예배의 중심지였다. 그 산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대화를 나누는 주님과 여인이 밝히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말한 것이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자신의 창조주와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4:10-11 주님은 호의를 구함으로 그 여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주님은 그 자신이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더 부채질하였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또한 여행의 피곤으로 인하여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만일 그녀가 자신과 말하고 있는 분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그녀는 “그에게 축복을 구하였을 것이지요” 그는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냥 일반적인 물과 길을 그릇이 없는 주님은 물을 기를 수 없다는 것 밖에는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전혀 그의 말을 이해하거나 그가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

4:12 그녀의 혼돈은 그들에게 이 우물을 준 그들의 조상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 절정에 이른다. 야곱은 이 우물을 그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의 짐승들을 먹이는데 사용했다. 이제 수세기 후에 이 우물가에 여행에 지친 한 나그네가 물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야곱이 그들에게 준 이 물보다 더 나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였다. 그렇다면 그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구하는가?

4:13 예수님은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 물과 자신이 주고자 하는 물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와서 물을 길어갔지만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우물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세상 것에서 그들의 쾌락과 만족을 구하지만 세상 것들은 그들의 마음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에서 “주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에게겐 안식이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4:14 주님께서 주는 물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물이다. 그리스

도의 축복과 자비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물처럼 흘러넘친다. 이는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해서 흘러넘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의 유익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그 대조가 아주 생생하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사람의 마음이 담기에는 너무나 큰 축복이어서 영원히 흘러넘친다.

“이 넓은 세상이 다 들어간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없는 인간의 마음을
만족케 하신다.” (조지 허버트).

이 세상의 쾌락은 일순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기쁨은 영원하다.

4:15 이 놀라운 물에 대해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은 즉시 그 물을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직 그 여인은 문자 그대로의 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우물에 나와 그 무거운 물동이로 물을 길어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주님이 말씀하신 물이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는 영적 축복인 것을 알지 못했다.

4:16 여기에서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여인이 물을 구

했을 때 예수님은 가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이 여인은 먼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먼저 진정한 회개로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했다. 주님은 그녀가 살아온 죄악된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했다. 오직 자신이 잃어버린바 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바 된 자들이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요 구제가 필요하며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만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4:17 처음에 여인은 거짓말은 아니면서도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법적으로 엄격히 말한다면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가증한 말이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약간의 풍자를 사용해서 신학을 논함으로 종교에 대해 잡담을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도망치려는 영혼들에게서 볼 수 있는…”(성서 유니온의 매일의 묵상에서).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는 “네가 남편이 없다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같이 사는 남자는 속일 수 있었어도 주님만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4:18 주님은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람을 드러내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의 온전한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셨다. 주님이 여인의 과거를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녀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다. 그녀의 전남편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녀에게 잘못은 없었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의 하반부를 볼 때 그녀는 간음한 여인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점이다. 여인은 죄인이었고 그녀가 그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녀에게 생수로 축복할 수 없었다.

4:19 자신의 삶이 다 드러나자 그녀는 이제 자신과 말씀하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안 것은 아니다. 그녀가 가장 높게 잡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4:20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합당한 예배 장소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대화의 주제를 돌리려 했다. 그녀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라고 말할 때 가까이 있는 그리심 산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주님에게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했다.

4:21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보다 진전된 영적 이야기로 나아가는데 사용하셨다. 주님은 그녀에게 그리심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예배드려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써 신실한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물론 교회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야 할 곳이 따로 없다. 주님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다.

4:22 주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사마리아 식의 예배를 정죄하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으로 결국은 다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종교지도자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주님은 그녀에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증명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가 없이 사람들의 고안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어온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신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따로 구분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게 예배드리는 데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주셨다.

주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로 택하셨으며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셨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다.

4:23 다음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의 오심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 어떤 장소에 그의 예배처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거기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의 몸은 굴이나 감옥 또는 들판에 있다할지라도 그의 영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선포하셨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외적 형식이나 의식으로 한정시켰다.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문자 그대로의 율법 준수나 의식 수행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도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 예배는 성경적인 권위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종교를 시작했고 그들의 구상에 의하여 의식들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주님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할 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모두 꾸짖으신 것이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그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숭배에 관심을 두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그러한 경배를 받고 계시는가?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는 존재에 대한 정의이다. 그는 사람들이 받는 그 모든 제한과 오류의 한계 속에 계시는 인간이 아니

며 또한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는 동시에 어디든 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는 그의 모든 길에 온전하시다.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한다. 여기에 속임이나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경건한 체 해서도 안 되며 어떤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이 그러한 의식들은 제정하셨을 지라도 사람이 그 앞에 나올 때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해야만 한다”는(must) 말이 이 장에 두 번 더 나온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통행하여야만 하겠는지라”-4:4), 그리고 예배자들을 위하여(“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한다”-4:24)

4:25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성령께서 그녀 안에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소원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에서 그녀는 자신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큰 목적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라는 표현은 두 단어의 의미가 같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같은 뜻이다.

4:26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한 것은 문자 그대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였다(I who speak to you am). “그”(He)라는 말은 어떤 사본 들에는 없다. 물론 그곳에 “그”라는 말이 들어가야 문장이 더 확실

해 지지만 주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아이 엠”(I am. 구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쓰임-역주)이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주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인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그는 “네게 말하고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다(I AM)” 또는 “네게 말하고 있는 자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와 말하고 있는 자는 그녀가 기다리는 메시아이며 그가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다. 구약의 여호와 는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4:27 제자들이 수가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그녀가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는지, 왜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주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 어떤 이는 “제자들은 주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에 더 놀랐어야 할 것이다”라고 잘 표현하였다.

4:28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는 그녀의 깊은 내적 갈등을 채우기 위해 그녀가 사용한 삶의 여러가지 것들을 상징한다. 그의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전에 그녀의 삶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주여 저는 터진 웅덩이를 찾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이 거의 메마른 웅덩이였나이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마시려는 내게 물은 나를 피했으며
손짓하는 나를 조롱하였나이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만족케 하며
다른 이름이 내게 없나이다.
주 예수여. 당신 안에서 사랑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찾았나이다.” (B. E)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네로 들어갔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는 즉시 생수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차라리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있는 동안 구령의 열정에 자신의 물동이를 잊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의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4:29-30 그녀의 증거는 간단했으나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말한 사람을 보도록 초청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그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게 했다. 그녀는 주님이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혔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그들의 마음에 의문점을 갖게 해서 그들로 직접 예수님에게 나가 찾게 했다. 물론 온 동네가 그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적 장소에 나가 외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여인의 증거는 효과가 있었다. 동네사람들은 집이나 일하

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다.

11.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아들(4:31-38)

4:31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잡수시라고 권했다. 그들은 아마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이다. 사마리아의 한 동네가 주님의 영광에 소개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제자들의 생각은 그들의 몸에 필요한 음식 밖의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

4:32 주 예수님은 예배자들을 얻어 그 아버지에게 드리는 음식을 발견했다. 이 기쁨을 비교해 보라 육체의 양식은 그에게 있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제자들은 음식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음식을 구하려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구해 가지고 돌아왔다.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주님은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4:33 제자들은 그 세속적인 안목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영적 기쁨과 행복이 먹고 마시며 육신의 모든 소욕을 채우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34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관심을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시도하셨다. 그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일반적인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큰 목적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4:35 어쩌면 제자들이 함께 다가오는 추수에 대해 말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속담에 “파종 후 추수까지는 넉 달이다”라는 속담이 있었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주님은 다시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추수에 대한 것을 사용하셨다. 제자들은 추수 때가 아직도 멀리 남아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삶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여기에서 밭은 물론 세상을 의미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사마리아의 남녀의 영혼들이 들어있는 추수 밭에 계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큰 곡식밭이 있으므로 즉시 그리고 열심히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그 자신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큰 필요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주께서는 우리마음에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짐을 느끼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밭으로 나가 곡식의 단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4:36 주님은 이제 그들을 부르신 일에 대해 그 제자들을 교훈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열매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이 땅에서의 보상도 많다. 그러나 추수꾼들에게는 그들의 신실한 복음전파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보는 부수적인 기쁨이 있을 것이다. 36절은 사람이 신실한 추수를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추수한 그 곡식(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보통 농사일에서는 씨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준비하고 그 위에 씨를 뿌려야 한다. 그 후 나중에 추수하게 된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다. 먼저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위에 기도로 물을 줘야 한다. 그러나 추수 때가 오면 그 각 분야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하게 된다.

4:37 이 구절에서 주님은 당시에 흔히 사용되었던 한 속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들이 많은 열매는 보지 못할지라도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본다.

4:38 예수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준비된 지역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전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복음과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해 왔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그 마음들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사자로 왔다. 주

님 자신이 사마리아에 씨를 뿌리셨고 추수꾼들을 위하여 곡식밭을 준비하셨다. 이제 제자들은 곡식밭에 들어서기 직전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이 비록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또한 사람의 수고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 번 복음을 듣는다. 그러므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만 사용하신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2.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4:39-42)

4:39 사마리아 여인의 단순하면서도 솔직한 증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녀가 말한 것은 그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는 것뿐이었는데도 그것이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우리의 증거도 간단 명료하면서 직접적이고 또한 담대해야 한다는 하나의 좋은 격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4:40 사마리아인들의 주님에 대한 영접은 유대인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에 대해 정말 기뻐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과 유하기를” 청하였다. 그들의 초청으로 인하여 주님은 그곳에서 이들을 유하셨다. 영광과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초청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이 수가동네로 볼 때 얼마나 큰 특권이었던가를 생각해보라!

4:41-42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의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은 참 아름답다. 그들의 마음엔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그들은 여인이 한 말씀에 의해 완전한 확신을 가졌지만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에 대해 듣고 그의 말을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가 진정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이심을¹²⁾ 알아야 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의 사역의 범위가 온 세상인 것을 알았다.

13.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4:43-54)

4:43-44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이들을 계시고 그 후에 북쪽 갈릴리를 향하여 그의 발길을 돌리셨다. 44절은 좀 난해한 구절처럼 보인다. 구세주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갈릴리는 그의 고향으로서 나사렛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다. 아마도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사람이 그 고향에서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더 환영받는 것은 사실이다. 친구나 친척들은 그를 어

12) (4:41,42) NU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나와 있지 않다.

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들과 같은 또래로 생각한다. 예수께서도 그의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만큼 환영을 받지 못했다.

4:45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명절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기쁘게 그를 영접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갔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주님과 그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기를 원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서라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주님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46 다시 한 번 가나는 주님의 방문으로 영광을 얻었다. 첫 방문에서 사람들은 주님이 물로 술을 만드신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에까지 미칠 또 다른 능력의 이적을 보게 되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병들었더니.” 이 사람은 헤롯 왕이 고용한 유대인이었다.

4:47 그는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 죽어 가는 그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다. 그 면에서 그는 그의 동료들보다 주님을 더 신뢰했던 것 같다.

4:48 주님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면에서¹³⁾ 유대인들의 특성이 믿기 전에 이적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의 이적에 기초한 믿음을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큼 좋아하시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다. 그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를 믿는 것이 그가 베푸,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인하여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그를 영화롭게 한다. 믿기 전에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믿으면 볼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표적과 기사는 모두 기적을 말한다. 표적은 어떤 깊은 의미나 중요성을 내포한 기적이며 기사는 그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다.

4:49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했다. 어떤 면에서 그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다. 그는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꾸짖지는 않으시고 그의 나타난 믿음을 인하여 그에게 보상하셨다.

4:50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본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했고 주님께서는 그에 더욱 믿음을 더하셨다. 주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는 약속과 함께 그를 보내셨다. 그 아들은 나왔다! 아무런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 없이 그 사람은

13) (4:48) 헬라어에는 한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와(고어 thou, thee) 한 사람 이상에게 이야기할 때 그 어법형태가 서로 다르다(ye, you).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복수이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집으로 갔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4:51-52 그가 집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종이 나와 그 아들이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사람은 그 소식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이제 그 믿음의 결과(증거)를 본 것이다. 아버지는 종에게 언제부터 나아졌느냐고 물었다. 그들의 답은 그 아이의 병이 차차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일순간에 좋아진 것임을 보여준다.

4:53 이제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있을 수 없었다. 제 칠 시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때였다. 그 동시에 가버나움에서는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나왔다. 이것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는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생활에도 큰 격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왕의 신하는 그와 그 온 가족이 주를 믿었다. 이 구절이나 신약의 다른 유사한 구절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분리되어 하늘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온 집이” 다 믿기를 원하신다.

4:54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이 지금까지의 주님의 사역에

있어 두 번째 이적은 아니었다. 그 이적은 주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었다.

3. 하나님의 아들 그 두 번째 해의 사역(5장)

1. 세 번째 표적: 허약한 병자를 고치심(5:1-9)

5:1 5장은 유대인의 한 명절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법을 지키기 위하여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주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로서 그 자신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었다. 주님은 이제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이 만든 법을 준행하셨다.

5:2 예루살렘에 베테스다¹⁴⁾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자비의 집” 또는 “공홀의 집”이라는 의미이다. 그 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 오늘날 못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었으며 또한 발굴되었다. (성 [聖] 안네[Anne]의 십자군 교회 옆) 못 주위에는 다섯 곳의 베란다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이 다섯 곳의 베란다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건질 수 없는 무력한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14) (5:2) NU원문에는 Bethzatha로 되어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본들과 KJV에 사용된 전통적인 이름이 맞는 것으로 증언하였다.

5:3 베데스다 못은 병이 낫는 이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다. 그 이적이 일 년 내내 일어나는지 아니면 명절과 같은 특별한 때만 일어났는지 잘 알 수는 없다. 못 주위에는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소경이었고 어떤 이들은 절뚝발이 또 어떤 이들은 중풍병자들이었다. 이 다양한 병자들의 모습은 힘없고 소경된 그리고 불완전하고 무익한 죄인의 모습이다.

죄로 인하여 그 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물의 동(動)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진정으로 낫기를 원했다.

J. G. 벨렛트(Bellet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소망이 없는 불확실한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물은 무겁게 잠겨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인간의 종교란 이 얼마나 무익한가! 종교의 의식들과 그 모든 기구들은 사람들에게 찾는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되었다.”¹⁵⁾

5:4 여기의 설명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치 못하다. 여기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다. 물이 동한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한번 상상해 보라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물에 내려가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낫게 된다니 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이냐!

15) (5:3) James Gifford Bellett, *The Evangelists*, p.50.

많은 성경들이 3절 하반부(“물의 동함을 기다리니”)와 4절을 빠뜨리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나와 있다. 또한 이 하반부 설명이 없다고 하면 왜 그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5:5-6 못가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하나가 있었다. 이 말은 그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병을 앓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다. 주님은 전에 그 병자를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그가 오랫동안 병 가운데 있음을 아셨다.

그는 사랑의 동정으로 “네가 낫고자하느냐?”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의 마음속으로부터의 오랜 소원인 것을 아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로부터 그의 무능과 치료의 절박한 필요성을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가 필요하며 또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5:7 병자의 대답은 애처로운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못가에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으나 그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그가 못에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먼저 내려갔다. 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사람을 의지할 때 얼마나 우리를 실망케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5:8 병자의 자리는 패드나 가벼운 매트리스였을 것이다. 예수님

은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서의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일어서는 것뿐 아니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이제 그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5:9 구세주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과 능력이 병자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는 즉시 나음을 입었다. 그것은 점차적인 회복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쓰지 못해 마비되거나 약해진 사지가 이제는 힘이 넘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만주의 주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38년이나 앓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신나는 순간이었겠는가!

이 이적은 주일의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에 일어났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 모든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병자는 유대인이었음에도 유대 전통의 그 모든 규약들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

2. 유대인들의 반발(5:10-18)

5:10 안식일에 병자가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를 책망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과 종교적인 의식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엄격했으며 심지어 냉혹했고 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데 인색했다.

5:11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그는 “나를 낮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고 대답했다. 누구든 38년 된 병자를 낮게 할 능력이 있는 자라면 비록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때까지 그 병 나운 자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일반적인 대답을 했지만 정말 감사하는 자세로 했다.

5:12 유대인들은 누가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깨뜨렸는지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누가 그 범죄자인지를 물었다.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5:13 나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미 그 무리들로부터 피하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사역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주님이 안식일 날 그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주님을 쫓으며 죽일 기회를 찾았다.

5:14 얼마 후에 주님은 그 고침 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다. 아마도 그는 그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을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그의 큰 은혜로 인한 엄중한 의무를 상기시켰다. 특권은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

라.” 이로 보아 이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였던 것이 확실하다. 모든 질병이 다 위와 같은 것은 아니다. 많은 질병들이 그 사람들의 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죄를 알기도 전에 병을 앓을 수 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표현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만일 그가 “가능한 한 죄를 적게 지으라”고 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죄를 묵과할 수 없으시다. 그리고는 경고가 더해졌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님은 더 심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육체의 질병보다는 죄가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진노로 정죄함을 받았다.

율법에 대해 죄를 짓는 것보다 은혜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무겁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이제 그가 다시 밤에 나가 그에게 병을 가져왔던 그 옛날의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응답일 것이다.

5:15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의 구세주에 대해 공격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했다. 비록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찬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들의 주요한 심사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벌하는 것이었다.

5:16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본다. 구세주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격분해

했다. 그들은 이적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격분했다. 그들은 동료들의 안녕과 축복보다는 종교적인 의식 수행에 더 관심이 있는 냉혈적인 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우선 그 날에 자비의 이적을 베푸는 분이 그 날을 거룩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다. 율법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필요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금하고 있지 않다.

5:17 하나님은 옛세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안식은 방해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그와의 교제로 회복시키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는 구속의 길을 준비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그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셨다. 그의 사랑과 은혜는 오직 6일 동안으로 제한할 수 없었다.

5:18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러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좁은 소견에 주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만일 사람이 안식일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안식일을 지

키기 위해 다음날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곧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인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셨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구절에 보면 분명히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을 본다.

시드로우 백터(J. Sidlow Baxte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는 일곱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였다.

(1) 일에 있어 동등—“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19절).

(2) 지식에 있어서의 동등—“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20절).

(3) 부활에 있어서의 동등—“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21,28-29절).

(4) 심판에 있어서의 동등—“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22,27절).

(5) 영광에 있어서의 동등—“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23절).

(6) 중생에 있어서의 동등—“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24-25절).

(7) 자존에 있어서의 동등—“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26절).¹⁶⁾

3.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5:19-29)

5:19 구세주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은 그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것만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주장하시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자신을 동등히 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 주장하셨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계속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한다고 주장하셨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주장이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

5:20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표이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구세주께서는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38년이나 병중에 있던 중풍병자를 고

16) (5:18) J. Sidlow Baxter, *Expore the Book*, V:309.

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맨 먼저 그들이 볼 더 놀라운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며(21절)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은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22절).

5:21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하심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주님은 그 비난을 반박하지 않고 그와 그 아버지가 하나라는 놀라운 증거를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 질문이 곧 답이 된다.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5:22 신약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물론 주님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 그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을 심판해야 할 분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의 권위에 대해 심문을 받으며 그들 또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나!

5:23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며 또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 이유를 본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다. 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십계명은 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금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같은 경배를 예수께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아들을 공경치 않으면 또한 아버지도 공경치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이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라. 이 말씀이 하나님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5:24 우리는 이 앞의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세상의 심판이 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으며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구절은 복음 구절로써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구절

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이 구절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그가 말씀하실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진실로”라는 말로 그의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리고는 아주 개인적인 선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을 더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분의 말씀하신 말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고 믿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전하는 것을 듣지만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말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는 주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믿어야 하는데 이는 오직 그만이 구세주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만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보다 고귀한 생명이다. 이는 사람이 거듭날 때 받는 생명으로써 세상에 육적으로 태어

날 때 받는 생명과 대조를 이룬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주를 믿는 자는 지금도 정죄를 받지 않고 장래에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그의 죄값을 지불하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일을 마치셨고 그 일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절대로 그들의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¹⁷⁾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한 사람은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그의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은 자였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주님과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볼 때 죽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

5:25 이 구절에서 사용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5장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1장부터는 일곱 번째이다. 주님께서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고 하신 말씀은 한 시, 두 시의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때는 그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17) (5:24)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또 다른 성구들이 있다.(롬 14:10, 고후 5:10). 그러나 그의 죄는 그곳에까지 가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는 갈보리에서 다 해결되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들의 삶과 주를 위한 섬김이 평가되어 보상이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영혼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삶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물론 주님의 공적 사역기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세주를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25절이 말하는 바가 영적이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으로 28절과 29절에서 몇 가지 대조되는 목록을 만들어 보았다.

25절	28-29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로 나오리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로 나오리라”

5:26 이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수여자인 것처럼 아들도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하셨다. 여기에 다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버지와 의 동등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바 되었지만 아버지나 주님에게 나누어준 적은 없다. 영원 전부터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새 영은 시작이 없는 생명이다. 그들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

5:27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상을 심판할 권세도 주셨다.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인자로도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는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자이시다.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가 이제 다시 오시면 그 적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한 때는 심히 적대 받았던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다.

5:28 그리스도께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을 주장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 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다. 장래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도 아닌 어떤 사람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5:29 어느 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거나 또 살게 될 자들이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니 얼마나 엄숙한 진리이냐!¹⁸⁾ 29절은 선행을 행한 자는 그 선행으

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행은 구원의 근원(뿌리)이 아니고 열매이다. 선행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악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4.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증거(5:30-47)

5:30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표현은 얼른 듣기에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가깝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세주께는 완고한 모습이 없다. 그는 온전히 순종하셨고 언제나 가까운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셨다.

이 구절은 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들은 그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람

18) (5:29) 만일 이 구절이 성경전체에서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경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두 부활사이에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부활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 두 번째 부활은 모든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맞든 안 맞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신의 신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육적 불가능이 아니라 도덕적 불가능인 것이다. 그는 물질적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나쁜 것은 하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잘못된 것일 게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한다.

주 예수님은 매일 그 아버지로부터 듣고 교훈을 받은 대로 생각하고 가르치며 또 행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심판”은 어떤 법적인 것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세주는 이기적인 동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하실 수 있었다. 그의 포부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한 그의 판단은 그 자신의 이기심에 영향 받지 않았다. 우리들의 의견이나 가르침은 보통 우리들의 믿음이나 행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편견이 없으셨다.

5:3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의 남은 구절에서 자신의 신성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말씀하셨다. 침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32-35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증거였으며(36절), 아버지의 증거(37-38절), 그리고 구약 말씀의 증거가 있었다(39-47절).

먼저 예수님은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

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그 자신에 대한 변호는 법정에서 공신력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법에도 유효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자신의 신성에 대하여 두 세 명의 증인이 아니라 넷을 세우고 있다.

5:32 이 구절에 대해서는 그 의미하는 바가 침례 요한인지 하나님인지 또는 성령님인지 의문이 있다. 어떤 이들은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 구절은 다음에 나오는 셋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은 여기에서 그 자신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믿는다(여기에 나오는 대문자 He가 신성을 의미한다).

5:33 주님은 가장 큰 증거인 그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불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말한 것을 듣고자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요한의 증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 요한은 사람들로 자기를 주목케 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주목케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 되신 이를 소개했다.

5:34 주님은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과의 동등됨에 대한 주장은 단순히 인간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만일 인간의 증거가 전부라면 그의 주장은 미약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참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증거를 소개하셨다.

그리고 그는 “다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셨을까? 그저 자신은 옳고 그들은 그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오히려 그 반대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들을 말하여 그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며 또 약속된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자한 마음을 분명히 보게 해준다. 주님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찾아 헤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 그는 오직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5:35 주님은 여기에서 침례 요한을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은 요한이 정열적인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그 삶을 불태운 자라는 의미이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모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삶에 신기하고도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서 들었다. 나중에 그들은 그를 유명한 종교적 선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요한은 잘 받아들이면서 그가 가르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들은 잠시 즐거워했지만 회개가 없었다. 그들은 지속적이지 못했다. 그들은 그 사자는 영접했지만 뒤에 오는 왕은 거부했다. 하나님 아들로부터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있어 큰 칭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비취는 타는 횃불이 되도록 하자!

5:36 요한의 증거는 주님에게 있어 그의 신성을 증명하는 큰 증거가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이적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였다. 이적 그 자체가 신성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받은 자들을 보고 또 심지어 사단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주님의 이적은 다른 모든 이적들과 달랐다. 먼저 다른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더 나아가 구세주에 의해 이루어진 일들은 메시아에 관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이적은 그 성격이나 범위 그리고 그 횃수에 있어 뛰어났다.

5:37-38 주님은 다시 그에 대해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증거를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마 주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를 말할 것이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다. 주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 모든 이적들에 더하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지 못했다. 이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둔하여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이 볼 수 있는 어떤 형체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불신자들은 그를 볼 때 그저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5:39 이 구절의 첫 부분은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먼저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신 것일 수도 있다. 둘 중에 어떤 해석이든 가능하다. 어찌면 주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에 성경을 상고한다는 사실을 그저 인용하셨을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경을 손에 들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19) (5:39) “상고하다”(Search, 찾다)에 대한 헬라어 동사 형태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명령형”일 수도 있고(찾으라. KJV) “지적하는”형태일 수도 있다. “너희가 찾으나” 본문은 NKJV를 선호한다.

준 후에도 그를 거부하는 것은 더욱 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구절의 하반절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이는 간단히 말해서 구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것이다. 누구든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를 놓친다면 그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다.

5:40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사람들이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어려워서나 예수님을 믿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가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의지이다. 그는 구세주보다는 자신의 죄를 더 사랑하며 악한 길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5:41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책망하셨지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상했다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다 해도 그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5:42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자신들을 더 사랑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거부함으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결핍을 보여 주었다.

5:43 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에 있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만일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이나 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예수님도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주님이 후에 와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게 될 많은 거짓 선생들을 말씀하셨거나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의 지도자들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 장래에 유대인 가운데서 스스로 지도자 된 자가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살후 2:8-10).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요일 2:18).

5:44 여기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유대교를 떠나게 될 때에 그 친구들이 할 말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따라올 비난과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두려워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람보

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한다.

5:45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아버지에게 고소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유대인들을 아버지께 고소할 것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을 고소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모세의 오경에 대해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문제는 4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말을 순종치 않았다.

5:46 주님은 모세의 오경을 자신의 말과 같이 권위 있는 것으로 올려놓으셨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을 기억한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믿는다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예를 신명기 18장 15,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구절들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또 유대인들

에게 그가 오시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모세는 믿으면서도 모세가 명한 이를 믿지 않음을 인하여 모세가 아버지께 그들을 고소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 그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간결하게 말하였다.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드러나 있다.”

5:47 만일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일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도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 의심한다면 그는 얼마가지 않아 전 성경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킹(King)은 말했다.

“주님이 언급하신 모세의 오경은 성경에서 그 어느 책들보다도 무자비한 공격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이 그 어느 책보다도 모세의 오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그 책들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전 그의 승인을 확고히 하시려는 것 같아 보인다.”²⁰⁾

20) (5:47) Guy King, *To My Son*, p.104

4.

하나님의 아들의 세 번째 해의 사역: 갈릴리(6장)

1. 네 번째 표적: 오천 명을 먹이심(6:1-15)

6:1 “그 후에”라는 표현은 5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의미이다. 얼마정도의 시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여행하셨다는 것이다. 그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서북쪽 바닷가에 서 동북쪽으로 가셨다는 의미일 것이다. 갈릴리 바다는 서쪽 바닷가에 디베랴 성이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다. 디베랴 성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Tiberius)에 의해 그 이름이 붙여진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다.

6:2-3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라기보다는 그의 병자들에게 행한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적에 기초한 믿음은 그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으로 그에게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다 진리이다. 그 어느 것도 거짓일 수 없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야 한다. 3절의 문자적 해석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마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산 같은 언덕(높은 지대)에 오르신 것을 말할 것이다.

6:4 요한이 왜 유월절이 가깝다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이 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마도 유월절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요한은 유월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정하신 명절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은 또한 유대인들이 이를 별 의미 없이(진지한 마음의) 하나의 의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유월절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었다.

6:5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을 때에 그의 휴식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첫 생각은 우선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빌립을 보시며 어디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 절대로 무엇을 더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은 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빌립은 알지 못했다.

6:6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 이적을 베풀어 그 큰 무리

를 먹여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는가? 빌립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적은 믿음이었는가?

6:7 빌립의 믿음이 크게 자란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그들을 모두 먹이려면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산해 냈다. 그 날에 이백 데나리온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떡을 구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양이었을 것은 틀림없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다.

6:8-9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벳새다 근처에 살았었다. 안드레는 그 큰 군중을 먹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굶주린 그 큰 군중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작은 소년은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에게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친절로 인하여 이 이야기는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 그가 한 것은 아주 적은 것이었으나 이 “적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큰 것이 된다. 그로 인해 그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6:10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한 후(문자적으로는 ‘기대게 하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준비하셨다. 주님이 풀이 많은 곳을 택하신 것에 주목하라. 그 지역에서 그와 같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군중이 깨끗하고 상쾌한 곳에서 먹도록 배려하셨다. 그곳에 수

천 명의 남자(헬, 남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곳에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오천 명”이라는 표현은 그 이적이 얼마나 큰 이적이었나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6:11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만일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축사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더 우리의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다. 여기에는 우리를 위한 참 교훈이 있다. 주님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하지 않으시고 그 섬김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셨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좋은 말이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실 때에 그 떡은 놀랍게도 증가되었다. 정확히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다섯 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주님의 손에서 그 큰 군중을 먹이기에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었다. 그곳에는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는 표현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피드 토마스(Griffith Thomas)는 이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 멸망해 가는 세상; (2) 무능한 제자들; (3) 온전한 구세주. 이 이적은 진정한 창조였다. 그 어떤 사람도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증가시키지 못한다. ‘주님이 떡을 축사할 때는 봄이었다. 그러나 떡을 떼 때는 추수 때였다’는 좋은 말이 있다. ‘축사하지 않은 떡은 늘어나지도 않는

떡이다'라는 말도 사실이다.”²¹⁾

6:12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만일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었다면 먹고 남은 조각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오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남은 조각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사품에는 낭비가 있어서 안 된다. 그는 그가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 남은 조각들을 거둬 남은 것이 없게 하라고 명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어린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군중이 보았으며 그로 인해 자신들이 이기적이었던 것을 깨닫고 각자가 자기의 점심 싸운 것을 서로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그 다음 구절을 보더라도 이에 맞지 않는다.

6:13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나 거두었다. 만일 각 사람이 자기의 점심 싸운 것을 나누어 먹었다면 그와 같이 많은 떡 조각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다.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결론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이적이 일어났었다는 것이다.

6:14 사람들 그 자신들도 그것이 이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일 그들이 싸운 점심을 먹은 것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21) (6:11) W.H. Griffith Thomas, *The Apostle John: His Life and Writings*, pp.173, 174.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 이적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순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거나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들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6:15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만일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본다. 사람은 오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허영과 교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함인 것을 아셨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그는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제단에 먼저 올라가기 전에 보좌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다. 높임을 받기 전에 먼저 그는 피 흘리고 고통당하며 죽어야 했다. F. B. 메이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 버나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면서도 왕으로 삼으려 하거나 무엇을 제시했을 때 언제나 이를 피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가드 사람 잇대의 놀라운 고백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여호와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삼하 15:21).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다윗과 같은 답을 하실 것이다.

‘두려워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²²⁾

2. 다섯 번째 표적: 물 위를 걸으시며 그 제자들을 구원하심(6:16-21)

6:16-17 때는 저녁이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셨다. 사람들은 물론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닷가에 내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돌아가려 했다. 그들이 바다에서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었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좋은 그림이 된다. 그들은 삶의 폭풍가운데 있다. 날은 어둡고 주님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고 계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지금 하늘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6:18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불어 닥친 폭풍에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요단강 계곡에서 불어 닥친 바람은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바람이 바다에 이를 때 그곳에 높은 파도를 일으켰다. 그러한 때에는 작은 배가 바다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

6:19 제자들은 십여 리쯤 노를 저어갔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22) (6:15) Frederick Brotherton Meyer, *Tried By Fire*, p.152.

그들은 아주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눈을 들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야기가 얼마나 간단한가에 주목하라. 요한은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일어난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 화려한 미사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을 말하는데 있어 큰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6:20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만일 주님이 단순히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또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 이러한 분이 가까이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갈릴리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또 잔잔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바닷가로 인도하실 수 있었다. “내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는…이다”(I am,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역주)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표현 즉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사용하신 것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이다.

6:21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기쁘게 배로 영접하였다. 그들은 즉시 자기들이 가려는 곳에 도착해 있었다. 여기 또 다른 이적이 이루어졌지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노를 저어 가지 않아도 되었다. 순간적으로 주님은 그들을 마른땅으로 인도하

셨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3. 사람들이 표적을 구함(6:22-34)

6:22 이때는 주님이 오천 명을 먹이신 그 다음날이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그 전날 밤에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 때 그곳엔 제자들이 타고 간 배 한 척밖에 없었다.

6:23 다음날 주님이 오천 명을 먹이셨던 곳에서 가까운 디베라에서 배들이 왔다. 주님은 그들이 바로 도착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실 수 없었다. 다음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적은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을 것이다.

6:24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음날 주님을 그곳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서 찾아보기로 했다.

6:25-26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들은 신기해서 어떻게 그곳에 오셨느냐고 주님에게 물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답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찾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것을 아셨다. 그들은 그 전날 그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으로 그들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도는 그저 음식에 있었다. 그들은 이적으로 만들어진 떡을 먹고 배고픔을 면했다.

6:27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권고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매일의 삶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육뿐만 아니라 영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사람은 그의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며 잠시 후면 벌레에 의해 먹힐 육체를 먹이는데 그의 모든 힘과 재능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매일매일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데 힘써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님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으며 이를 증명하셨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인을 칠 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 분으로 주님에 대해 서명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치신 것이다.

6:28 사람들은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

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다면 자랑할 근거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갖게 된다.

6:29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보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아들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행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선행은 구원에 앞선 것이 아니다. 따라 오는 것이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선행은 그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6:30 이 구절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더 입증해 준다. 그 전날 그들은 주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보았다. 그 이튿날 그들은 주님에게 나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표적을 보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 처럼 그들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믿기를 원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네가 믿으면 이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 와야 한다.

6:31 유대인들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²³⁾에 대한 이적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시편 78편 24-2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그들의 의미는 모세는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구하였으나 주님은 그저 있는 떡을 부풀린 것 뿐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6:32 주님의 대답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둘째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나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었으며 내세에는 조금도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상적이고도 순수한 참 양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이는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이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는 말이다.

6:33 주님은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광야에서의 만나보다 하나님의 떡이 우월함을 보여주셨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지탱해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참 떡은 하늘에서 내려 한 민족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23) (6:31)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하신 양식이므로 작고, 희고 둥근모양의 양식이었다. 그들은 일주일(6일) 동안 매일 아침 들에 나가 그것을 거두어야 했다.

생명을 주신다.

6:34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을 참 양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직까지 문자 그대로의 떡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믿음이 없었다.

4. 생명의 떡이(6:35-65)

6:35 주님은 이제 간단명료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는 그 안에서 그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만족케 할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서 영원히 그 갈증을 충족시킨다. 이 구절에서 또 사용된 “나는…이다”(I am)라는 표현 즉 주님께서 그 자신을 여호와와 동일시한 말씀에 주목하라. 사악한 인간이 35절과 같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그 스스로 자신의 갈증이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으며 온 세상의 영적 갈증은 더더욱 채울 수 없다.

6:36 30절에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모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인)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안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면 다른 이적을 베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가망이 없었다.

6:37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으셨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다. 비록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자기에게 올 것을 아셨다. 핑크(Pink)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그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하고 침착하게 하며 인내밖에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는데 그가 주신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책임이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시지만 지옥에 보내기 위해 택하셨다고는 가르치지 않는다. 만일 누구든 구원받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 영원히 멸망한다면 이는 그의 잘못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에 따라 지옥에 간다. 그 많은 지옥 행렬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 개개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물론 그렇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하실 수 있고 아무도 그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다. 잘못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들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온 세상에 공포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슬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으신다.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무도 내쫓김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서 여기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6:38 37절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데 힘썼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시작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다. 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 그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종의 자세를 취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자신의 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했다는 의미이다.

6:39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의인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이를 때까지 보호함을 입는 것이었다. “하나도”와 “이들”(영어성경, nothing

and it)은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주님의 책임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를 맞아 영원히 살게 될 날을 말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날은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을 의미한다.

6:40 이제 주님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었다. 여기 “아들을 보고”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보고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한다. 이 말은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그 순간부터 받아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확신을 받게 된다.

6:41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그들의 주님에 대한 불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러”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것이 곧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주장임을 알았다. 하늘에서 왔다면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

니며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불평을 했다.

6:42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다. 이는 물론 그들이 틀린 것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으며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주님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셨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이 그들을 어두움과 더 큰 불신으로 인도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대한 더 큰 진리들도 거부하며 부인한다.

6:43 그들이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의 구절들이 왜 그들의 수군거림이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주님의 증거를 거부하면 할수록 그의 가르침이 더 어려워졌다. “빛을 거부하는 것은 빛은 부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할수록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다. 만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쉬운 것을 이야기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완전히 무지하였다.

6:44 사람은 그 스스로는 완전히 무능하며 소망이 없다. 심지어 그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힘도 없다. 아버지께서 먼저 그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절대로 그 자신의 죄

와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이 구절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할지라도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구절은 아주 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맨 처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마음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 주님은 다시 모든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을 주님의 오심을 말한다. 이는 오직 믿는 자들만의 부활이다.

6:45 주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시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먼저 주님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셨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일하신다.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 후에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관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반응하고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된다. 이는 우리들에게 구원은 하나님 편과 사람 편 두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에…기록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물론 선지서를 의미한다. 특별히 그가 말씀하신 곳은 이사야서였지만 그의 말씀하신 요지는 모든 선지서들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성령님에 의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

6:46 하나님에게 듣고 배웠다는 말은 그를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뿐인데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르침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6:47 47절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구원에 대해 가장 간단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아닌데 그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주님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에 주목하라. 이는 신약에서 구원은 행함이나 율법준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고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이다.

6:48-49 이제 주님은 그가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곧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물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을 말한다. 앞에서 유대인들은 주님에게 광야의 만나를 상기시키며 그것처럼 놀라운 양식을 만들라고 도전하였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시 말해 만나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만나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능력이 없었다. 주님은 “너희 조상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은연중 범죄한 인간들에게서 그 자신을 분리하시고 그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6:50 주님은 만나와 대조적으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으로 말씀하셨다. 누구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게 된다. 이 말은 육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비록 육이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구절과 그 다음 구절에서 “그를 먹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 문자 그대로 그의 살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한 생각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역겨운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성찬예배에서 우리가 그를 먹어야함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빵과 술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문맥이 그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를 먹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전유(專有)하게 한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취하게 된다. 어거스틴은 “믿으라. 그러면 먹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6:51 예수님은 “산 떡”이다. 그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신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죄인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이 구절 후반절에 나와 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로다.” 주님은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드릴 것이었다. 죄를 위한 대속물로서 그의 몸은 찢기고 피는 쏟아져 내릴 것이었으며 대속물로 죽어야만 했다. 그는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는 단순히 유대인이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능히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죽음이었다. 이는 물론 온 세상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역은 온 세상이 다 주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죽음이었다는 의미이다.

6:52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문자 그대로의 떡과 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초월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주님이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육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후에야 퍼진다. 믿음은 보는 것에 앞서서 우리 영혼으로 이해하고 믿게 하며 또 그에 순종하게 한다. “왜?”라는 우리들의 모든 질문은 바울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외친 것같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해결된다.

6:53 주님은 다시 정확히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말하는지를 다 아셨다. 그래서 그는 엄중히 그들에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경고하셨다. 이는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잔을 의미할 수 없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그의 살이 아직 찢기지 아니하고 피도 흘리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은 떡을 떼고 잔을 마셨지만 문자 그대로 그의 살을 먹고 마신 것은 아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갈보리에서의 죽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6:54 이 구절과 47절을 대조해보면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를 믿는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4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하고 있고 54절에서는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곧 그를 믿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다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는 물론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말한다.

6:55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²⁴⁾ 이

24) (6:55) NU원문은 “참 양식…참 음료”로 말하고 있는데 의미는 거의 같다(문자 그대로).

는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의 양식과 음료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주님의 죽음의 가치는 끝이 없다. 믿음으로 그를 취하는 자는 영원히 끝이 없는 생명을 받게 된다.

6:56 주님과 그를 믿는 자는 아주 가까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그 피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보다 더 가깝거나 친밀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지속적으로).

6:57 주님께서 그와 그를 믿는 자의 가까운 연합에 대하여 또 다른 예를 말씀하셨다. 그 예는 그와 아버지의 연결 관계이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살아 계신 아버지란 말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아버지 때문에 즉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다. 그의 삶은 아버지와 가까운 연합과 조화를 이룬 삶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있어 환경이요 중심이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오해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는 하나였다. 그들은 아주 가까운 친교가운데 사셨다. 주님 안에 믿는 자들도 그와 같다. 우리들은 이 땅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을 받으며 때로 고난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인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생명과 밀접히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6:58 이 구절은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 같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다. 그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보다 우월하시다. 그 떡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그에게서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6:59 무리들은 주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회당²⁵⁾에서 찾았던 것 같으며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셨다.

6:60 이때에 주님께는 제자들 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고백한 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알려진 자들이 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 여기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주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것이었다. 그들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는 “이 공격적인 교리를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이다.

6:61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증거를 보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

25) (6:59) 회당은 유대인들이 지역적으로 모이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곳은 짐승제사가 허용된 예루살렘성전과는 달랐다.

히 아셨다. 그는 제자들이 그가 하늘로써 내려온 떡으로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고 가르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셨다.

6:62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만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부활 후에 올라가실 것을 아셨지만)고 물으셨다. 그들은 또한 사람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걸림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육의 몸이 그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인가?

6:63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살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영생은 그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육은 생명을 줄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었으며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가 말씀하신 것은 영이요 생명이었다고 설명하셨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를 믿는 것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영생을 받는 것으로 영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6:64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어

려움은 그들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음에 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는 그를 믿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다. 물론 주님은 영원 전부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이 땅의 사역의 초기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6:65 주님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전에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했노라고 그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말씀이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5.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상반된 반응(6:66-71)

6:66 주님의 이 말씀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어 그를 떠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참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따랐으나 그를 순수하게 사랑해서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따른 것이 아니었다.

6:67 그 때 주님은 열 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떠나가겠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6:68 베드로의 대답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그는 “주

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가르쳐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해도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는 것은 곧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6:69 베드로는 열 두 사람을 대표해서 또 주는 메시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안다고 말했다.²⁶⁾

여기에 이 말의 순서에 주목하라. “믿고 알았삽나이다.” 먼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

6:70 68-69절에서 베드로는 열 두 제자 모두를 의미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주님은 70절에서 그것을 바로잡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 있게 그 열두 명의 제자들이 다 진실한 신자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다. 그 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6:71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다. 그는 유다가 자기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전지하심을 보게 된다. 또한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말할 때 그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라는 하나의 증거를 보게 된다.

주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대화에서 아주 단순한 가르침으로 시작

26) (6:69) NU원문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되어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깊어지자 유대인들은 그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닫을수록 그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끝으로 주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벅찬 것이었다.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그를 떠나갔다. 진리에 대한 거부는 그들에게 법적 소경의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 않고 또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5.

하나님의 아들의 세 번째 해의 사역 : 예루살렘 (7:1-10:39)

1. 예수께서 그의 형제들을 꾸짖음(7:1-9)

7:1 6장과 7장 사이에는 몇 개월의 공백이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본부가 있는 유다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²⁷⁾ 관원이나 지도자들이라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찾아 죽일 기회를 찾는 자들이었다.

7:2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다. 이 절기는 추수철에 있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장막에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 날은 또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다스림 아래서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땅에 살게 될 그 날을 바라보는 즐겁고 기쁜 축제의 날이었다.

27) (7:1) “유대인(JEW=Ioudaios)이란 헬라어 단어는 (1) a Judean과(갈릴리인들과 같은) (2) 모든 유대인(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포함해) 그리고 (3)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종교지도자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된다. 요한은 두 번째 의미에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세 번째 의미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7:3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인 것 같다(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촌이거나 먼 친척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께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적을 행하여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열두 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유다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공적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했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이 유명하게 되면 자신들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아니면 주님을 시기해서 주님께서 유대에 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7:4 아마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었을 것이다.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갈릴리에서 그 많은 이적들을 왜 행했겠는가?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닌가! 사실 그들은 “당신은 그동안 유명해지기를 원했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요. 갈릴리는 한가한 곳인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곳에서 이적을 베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요?”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은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지는 “만일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적을 베푼다면 그것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곳, 즉 유대에 가서 베풀지 그러십니까?”인 것 같다.

7:5 그의 형제들은 정말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말한 것은 그저 비꼬는 말로 한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옳지 않았다. 주님께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형제들이 자신의 말과 행사를 믿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흔히 가깝고 친근한 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반대의 어려움을 당한다.

7:6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순간을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세상에 온전히 그 자신을 드러내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는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에 따라 살았다. 그들은 무엇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는 계획도 세우고 여행도 할 수 있었다.

7:7 주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들의 전 삶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었다. 여기에 “세상”은 인간이 세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없는 조직체계 즉 세상의 문화, 예술, 교육 또

는 종교를 말한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한 것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는 종교의 소굴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다.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시매 세상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 대한 슬픈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보여주었다. 똑바른 선과 구부러진 선을 나란히 놓을 때 구부러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의 세상에 오심은 인간의 모든 죄악성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인간은 그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대신 그의 죄를 드러낸 자를 죽이려 했다. F. B. 메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도 주님이 옛날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참으로 무서운 책망이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받는다 고 하는 것, 세상의 칭찬과 포용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처할 수 있는 위치 중에 가장 무서운 위치이다. 고대의 한 현인은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가 내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미움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세상의 따뜻한 사랑은 우리가 곧 그들의 것이라는 증거이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알라(요 7:7; 15:19; 약 4:4).”²⁸⁾

28) (7:7) Meyer, *Tried*, p.129.

7:8 주님은 그 형제들에게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슬픈 사실이 있었다. 그들은 종교인인체 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갈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사랑이 없었다.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게 되면 불안해한다. 예수님은 그의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절에 아직²⁹⁾ 올라가지 않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가 명절에 전혀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명절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의 말씀은 그가 그의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서 공적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드러낼 때가 아직은 아니었다. 그가 가시면 그는 조용히 갔다가 적당히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었다.

7:9 그래서 주님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들은 그들에게 장막절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놔두고 잔치에 올라갔다.

2.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7:10-31)

7:10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얼마 후에 주님도 조용히 올라가셨다. 주님은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명절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그것을 공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은밀히 했다.

29) (7:8) NU원문이 “Yet(아직)”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는 마치 주님이 그들을 속인 것처럼 보인다.

7:11 명절에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그를 죽일 기회를 찾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멸하기 위해서였다.

7:12 주님께서 계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점점 더해지는 주님의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정말 누구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간에는 그가 거짓 선지자니 아니면 참 선지자니 하는 수군거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했다.

7:13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었다. 보통사람들 중에는 그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지도자들의 핍박이 두려워 감히 그것을 말하지 못하였다.

7:14 초막절은 며칠 지속되었다. 명절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 안뜰(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허락된 성전 배란다)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7:15 구세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다. 사람들은 아마도 구약에 대한 그의 지식에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지식의 폭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르침의 능력에 놀랐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당시 그 어느 종교 학교도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상은 지금도 어떤 종교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한다.

7:16 주님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은 그의 가르침이 그의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나 가르치시는 모든 것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도록 주신 것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일하시지 않았다.

7:17 만일 유대인들이 그의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 그 자의로 가르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여기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순종이 영적 지식의 근원이다.”

7:18 자신을 위해 말하는 자 즉 자신의 뜻에 따라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였다. 그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진리였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 밖에 없었다. 다른 모든 교사들은

그 안에 약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주님의 종들은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할 것이다.

7:19 그 후 주님은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준 것에 대해 상기시켰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한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일 계락을 꾸몄다. 율법은 살인을 엄히 금하고 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

7:20 그들은 날카로운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대신 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누가 죽이려했느냐고 대들었다.

7:21 이제 주님은 베테스다 못가에서 고쳐주셨던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셨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주님을 죽일 계락을 꾸미기 시작했다. 주님은 그가 행하신 한 가지 일로 인해 그들이 놀랐던 것을 상기시키셨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경외함을 가졌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7:22 모세의 율법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팔 일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있다(사실 할례는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인데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등이 행하던 것이었다). 그들은 안식일이 팔 일째 되어 할례를 행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은 그러한 일을 허용하셨다.

7:23 만일 그들이 할례에 대한 모세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면 주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한 것에 대해 왜 흠을 찾아야한단 말인가! 만일 율법이 꼭 필요한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자비를 베푸는 일도 허용되지 않겠는가? 할례는 남자 아이에게 베푸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다. 물론 할례는 아픔이 있으며 육체적 유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와 비교해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완전히 온전케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에게서 흠을 잡았다.

7:24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적 실체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었다. 그들의 판단은 옳지 않았다. 그들이 한 것은 전적으로 옳았지만 주님께서 하실 때에는 잘못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사실보다는 보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이치에 맞지 않게 주님을 미워함으로 율법을 범했다.

7:25 이때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구세주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일 잘 알려져 있었다. 여기 일반 시민들이 “이

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다.

7:26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도록 허용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만일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이라면 왜 계속 말하게 놔두는가? 그들은 그가 정말 그의 주장대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수 없단 말인가?

7:27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 줄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고 있었고 요셉을 그의 아버지라 생각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갑자기 그리고 은밀히 오신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태어나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헬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야했지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자세한 것을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말했다.

7:28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를 둘러서서 듣는 자들에게 크게 외치셨다. 그들은 그가 어디서 오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서의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그들이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다음 구절들에서 설명하셨다.

인간으로서 그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야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셨다. 그는 그 스스로 오지 않으셨다. 즉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는 참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7:29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였고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주님이 “내가 그에게서 났고”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7:30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가 메시아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고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인하여 잡을 수가 없었다. 주님이 그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러야 할 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자들의 계략으로부터 주님을 보호하였다.

7:31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우리는 그

들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보고 싶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다. 예수께서 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다.

3. 바리새인들의 적대감(7:32-36)

7:32 바리새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군중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군중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군거렸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속들을 보냈다.

7:33 3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관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외의 무리들에게 한 말이다. 주님은 그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잠시 그들과 함께 더 있다가 가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을 더 화나게 했을 것이다.

7:34 장래에 바리새인들이 주를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삶에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시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곳에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엄숙한 말씀이다. 이는 우리들에게 기회의 상실에 대해 생

각하게 해준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가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7:35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이 아마 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여행을 떠나려하지 않는가 생각했다.

7:36 그들은 다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따라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란 말인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한 소경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처럼 어두운 마음은 없다. 지금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어두운(장님)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들이 바로 그랬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할 수 없었다.

4. 성령의 약속(7:37-39)

7:37 구약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첫 7일 동안 매일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길러다 번제단 옆에서 은쟁반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자신을 생수로 제시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유대인들은 명절의 이 의식들을 행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이 없었다. 명절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다. 주님은 사람들을 영적 만족으로 초청하셨다. 이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라. 그의 초청은 모든 사람 즉 “누구든지”였다. 그의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에게 나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조건을 보라. 성경은 “목마른 자”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목마름”은 영적인 필요를 의미한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란 것을 알기 전에는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의 깊은 영적 필요를 깨닫기 전에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구세주는 목마른 영혼들을 교회나 목사, 침례 또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셨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안 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마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것으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한 컵의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7:38 38절은 그리스도에게 나와 마시는 것은 곧 그를 믿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영적 축복의 강을 받게 될 것이다. 전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사 55:1).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속 또는 내적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강이 흘러나리라는 의미

이다. 스토틀(Stott)는 “우리는 그저 한 모금 마시지만 그 안에서 큰 강물이 되어 흘러넘친다”라고 말했다. 템플(Temple)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을 그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물이 흘러넘친다. 넘침이 없다면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7:39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이 아주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39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또 한 성령님을 영접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에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사람이 구원받은 후 얼마 후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한 성령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성령이 내려오신 오순절 날 이전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5.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 의견의 분열(7:40-53)

7:40-41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18절에서 말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는데 구약에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고 했다.

7:42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헬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옳은 것이 없다. 그들이 문제만 자세히 살폈더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헬에서 태어났으며 또 마리아를 통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7:43 그들의 다양한 견해와 무지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쟁론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쟁론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그가 우리 같은 단순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롬 9:5).

7:44 계속 주님을 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한 그를 방해할 힘이란 없다. “우리의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불사신이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7:45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하속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다. 하속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들에게 돌아갔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화가 나서 하속들에게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7:46 여기 사악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구세주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의 놀라운 말은 이렇

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은 당시에 좋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처럼 자비와 은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7:47-48 하속들의 주저함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에게 속았다고 책망했다. 그들은 하속들에게 지도자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쟁론이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로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수치였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친구나 친척들이 구원받으려는 것을 방해한다.

7:49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많은 균중을 무지하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주장은 평민들은 성경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지만 자신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안다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잘못될 수가 없었다.

7:50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밤에 예수님에게 나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다. 여기 표현을 보면 니고데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나서서 그의 주님에 대해 말했다.

7:51 니고데모가 말한 요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대의 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유대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사실을 두려워해서일까? 그렇다. 그들은 사실을 두려워했다.

7:52 이제 지도자들은 그들 무리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를 공격했다. 그들은 그도 갈릴리로부터 따라 온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가 혹시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구약의 가르침도 모른단 말인가? 여기에서 지도자들은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었다. 그들이 요나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단 말인가? 요나는 갈릴리 사람이었다.

7:53 이제 초막절은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구세주를 직접 뵈고 그를 믿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더욱 그를 없애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종교와 삶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6. 간음 중에 잡힌 여인(8:1-11)

8:1 이 구절은 7장의 마지막 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

셨었다.

8:2 감람산은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주 예수님은 아침 일찍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다시 성소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8:3 서기관들(성경을 복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무리가운데 세웠다.

8:4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에 대한 고발은 사실이였다. 왜 그녀를 간음 중에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 있는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벌하는 일이 인생사에는 아주 흔하다.

8:5 여기에 계략은 아주 분명하다. 그들은 주님이 모세의 법을 범하기를 원했다. 만일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악한 생각에서 예수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녀로 공의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본을 삼으려 했다.

이에 대해 다비(Darb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에 사악한 인간의 마음은 위

로와 평온을 찾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더 큰 죄를 자신을 위한 변호로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신의 악을 잇는다. 그러면서 그는 죄악을 즐긴다.”³⁰⁾

8:6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들은 만일 주님이 그 여인을 가게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그를 불의하다고 고소할 수 있었고 죽이라고 말하면 그가 로마 정부의 적이며 또 자비가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땅에다 쓰셨다. 그가 무엇을 땅에다 쓰셨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8:7 그들은 안달하여 무엇인가 주님의 반응을 촉구했다. 그래서 주님은 간단하게 율법이 말하는 형벌은 내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준수하셨다. 그는 죄지은 여인이 형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이 구절은 때로 죄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비록 잡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다.

30) (8:5) J. N. Darby,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8:8 주님은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쓰셨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신 것에 대한 묘사이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땅에 쓴 것이 지워졌다.

8:9 여인을 고발했던 자들은 그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결국 주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

8:10 참으로 놀라운 자비 가운데서 주님은 그녀에게 그녀를 고소하던 자들이 모두 떠난 것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녀를 돌질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

8:11 여기에 “주여”라는 말은 아마 “선생님”이란 의미였을 것이다.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그러한 일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일(사람들의 죄에 대한 처벌-역주)에 대한 권리는 로마 정부에 있었고 주님은 그들이 하도록 놔두셨다.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거나 봐주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그 때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우리는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 이것이 그에 대한 예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보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

씀에서는 진리를 본다. 주님은 “가서 할 수 있으면 죄를 적게 짓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기준은 완전하다. 그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표준을 세우셨다.³¹⁾

7. 세상의 빛되신 예수(8:12-20)

8:12 이제 장면은 성전 연보궤 옆이다(²⁰절을 보라). 많은 무리들이 아직도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의 메시아직을 증명하는 말씀들 중에서 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실적으로 말해 세상은 그 죄로 인하여 어두움과 무지 그리고 정체가 없는 상태에 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다. 그를 떠나서는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를 떠나서는 삶의 안내나 참 삶의 의미 그리고 영원에 대한 참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에게 전 삶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한 자들은 삶에 대한 인도와 무덤 너머의 밝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31) (8:11) 고대 요한복음 사본들에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900개 이상의 사본들에는 나와 있다(거의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 부분의 가르침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도덕성에 대한 경각심이 헤이해질까 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한다.

8:13 이제 바리새인들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주님에게 그 자신에 대해 변호한 것을 상기시켰다. 사람의 그 자신에 대한 변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주저 없이 예수님 말씀을 의심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8:14 주님은 두 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의 경우도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옳았다. 그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그저 자기들과 같은 한 인간이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8:15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그저 외모와 인간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 그들은 그를 그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고 한 번도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주님은 그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아마도 그가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표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니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8:16 만일 주님이 판단하신다면 그의 판단은 참되고 의로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

지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더 큰 적개심을 품게 만들었다.

8:17-18 주님은 모세의 법에 두 세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부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들이 계속 두 증인을 요구한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두 증인을 대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첫째, 그 자신의 무죄한 삶과 말씀이 증거가 되었고 둘째,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또 주를 통하여 이루신 이적으로 증거하셨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셨지만 그 강한 증거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믿기를 원하지 않았다.

8:19 바리새인들의 다음 질문은 틀림없이 꾸짖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무리를 둘러보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아버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구세주에 대한 거부는 그들로 아버지를 알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8:20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앞의 구절들의 배경이 성전의 연보궤 옆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능

력으로 인하여 아무도 그를 잡거나 죽일 수 없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란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돌아가실 때를 말한다.

8.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함(8:21-59)

8:21 주님은 여기에서 다시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보여 주셨다. 그는 그의 적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의 죽음과 묻힘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후 승천하실 것까지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며 또 그들이 그를 거부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거부로 인하여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었다(여기에서 죄는 헬라이어와 NKJV역에 단수로 나와 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이 가신 하늘나라에 영원히 갈 수 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실이다. 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소망이 없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8:22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가리라”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살하여 그들의 계약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도 참 이상하다. 만일 주님이 스스로 죽으려 한다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 또한 그를 따라 죽음에까지 따를 수 없었다. 이는 그들의 불신과 무지에 대한 또 하나의 예이다. 구세주의 말씀에 것처럼 앞뒤가 막혔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8:23 아마도 주님은 자결하려한다는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생각 하며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말 은 그들의 보는 수준이 대단히 낮다는 의미이다. 그들의 생각은 물질과 시간의 공간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셨다. 그의 생각과 말, 행함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의 모든 삶이 그가 높은데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입은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길들여져 있었다.

8:24 예수님은 때로 강조하기 위하여 같은 말을 사용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믿기를 거절한다면 다른 길이 없었다. 주 예수를 떠나서는 죄 용서의 길이 없으며 자기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가 없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그”는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읽으면 “너희가 만일 나(I am, “나는…이다”-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와의 이름-역주)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주님이 그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나는…이다”라는 표현을 본다.

8:25 유대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완전히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다. 이는 아마 그들이 비꼬는 투로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묻은 것일 것이다. 아니면 주님이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주님의 대답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는 약속된 메시아였다. 유대인들은 그가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진리 앞에 고개 숙이기를 거부했다. 주님의 대답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 예수님은 정확히 그가 가르친 대로였다. 그는 말만하고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었다. 그는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의 살아있는 본이었다. 그의 삶은 그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다.

8:26 26절 말씀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수적으로 말씀하실 것들이 많고 또 불신 유대인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많다는 의미인 것 같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동기들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말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

8:27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그가 그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의 마음이 흥미했던 것 같다. 이 앞에서 주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됨을 주장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깨닫지 못했다.

8:28 주님은 다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셨다. 먼저 유대인들은 인자를 높이 들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들은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진이나 흑암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주목하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도 원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그 후에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은 그가 그 스스로 즉 자신의 권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셨다.

8:29-30 주님의 하나님아버지와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이 말씀의 표현 하나 하나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주장하는 말씀이다. 아버지는 주님의 전 지상사역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셨으며 주님 혼자 계신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은 오직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인간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때로는 우리 동료들을 기쁘게 할 일을 한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셨다. 그들 가운데는 진실로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저 주님을 섬기겠다고 감정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8:31 주님은 참 제자와 제자를 구분하셨다. 제자는 그냥 배우겠다고 따라나선 자들이요, 참 제자는 전적으로 그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한 자들이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한다는 말이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지속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에 거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

8:32 모든 참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고 심한 속박 가운데 메여 있었다. 그들은 무지와 오류, 죄, 법, 미신의 속박에 메여 있었다. 주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걸으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

8:33 주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즉시 반박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아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사단과 죄의 속박아래 있었다.

8:34 이 구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죄의 속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다. 그는 그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

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종교심이 많은 체했으나 사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고 불경건했으며 곧 살인자들이 될 자들이었으며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들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었다.

8:35 예수님은 가정에서의 종과 주인을 비교해 말씀하셨다. 아들은 집에서 살지만 종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이 하나님아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지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아들들이 아니며 언제든 내쫓길 수 있는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8:36 여기에서 우리는 그 “아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가 자유케 한 자들은 참으로 자유케 된다. 이 말은 사람이 구세주께 나와 그에게로부터 영생을 받게 되면 그는 죄와 율법, 미신 그리고 귀신숭배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의미이다.

8:37 주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다. 주님의 가르침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그들은 주 예수님은 죽이려 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교회)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자신들을 드리지 않았다.

8:38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의 아버지께 가르치도록 위임받은 것들이었다. 그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정도로 그와 그의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였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전히 그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행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아니라 마귀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8:39 유대인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자녀들은 보통 그 부모님처럼 보고 말하고 행한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는 반대였다. 그들은 비록 육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도덕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8:40 주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들이 다른 점에 대해 아주 분명한 예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진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마음이 상하고 걸림이 되어 그를 죽이려 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와 의를 택했다.

8:41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를 따라 행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음란한데서 난 자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음란(Fornication)을

우상숭배로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범한 적이 전혀 없고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했으며 오직 그 분만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8:42 주님은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보낸 그 아들도 사랑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거짓 주장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이다. 이는 그가 아들로 태어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물론 그는 성육신되시기 전에도 계셨다. 그는 이 땅에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오래 전부터 하늘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셔서 그에 대해 순종하는 자로 오셨다.

8:43 43절에서 앞에 나오는 말(Speech)과 뒤에 나오는 말(Word)은 서로 다르다(NKJV는 앞에서는 Speech[연설, 설교] 뒤에서는 Word[말, 낱말]를 사용하고 있음-역주). 그리스도의 말(Word)은 그가 가르치신 것들(Things)을 말하고 그의 말(Speech)은 그가 전한 진리들(Truths)을 말한다. 그들은 주님이 전한 말(Speech)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는 그들이 그의 가르침을 용납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44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마귀가 그들의 아버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과 같이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말은 그들이 마귀를 모방하는데 있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 삶의 방식에 있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 삶의 방식에 있어 마귀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표현은 그들의 마음의 의향 또는 경향을 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아담과 전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그는 살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대해서 지 못하였다. 그는 거짓을 말할 때 그 스스로 거짓을 말할 뿐이다. 거짓은 그의 존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마귀를 본받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살인자였고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 했으므로 거짓말쟁이였다. 그들은 경건하고 신령한 척했지만 그들의 삶은 악했다.

8:45 자신을 거짓에 드린 자들은 진리를 분별할 분별력을 잃는 것 같다. 주님은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언제나 진리만을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본 특성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렌스키(Lenski)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패한 마음은 진리를 만나면 피할 구실을 찾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만나면 그것을 받아들일 구실을 찾는다.”³²⁾

32) (8:45)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Colossians, Thessalonians, Timothy, Titus, Philemon*, pp.701, 02.

8:46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세상에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그의 인격에는 흠이 없었다. 그는 그의 길에 완전했으며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8:47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47절은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에 대한 오해는 있을 수 없었다.

8:48 유대인들은 다시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어떻게 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욕했다. 그들은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무지하게 인종차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님에게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들은 또한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다. 이는 분명 그가 미쳤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볼 때 오직 미친 자만이 예수님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49 주님께서 조금 분개한 표현으로 그의 적들에게 답한 것을 주목하라 그의 가르침은 귀신들린 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자의 가르침이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을 모독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8:50 그들은 주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가 한 모든 것은 그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그가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여서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물론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8:51 여기 다시 우리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된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의 강조와 함께 소개되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의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으며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8:52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이 화가 나셨을 때보다 훨씬 더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만일 누구든 그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8:53 그들은 주님이 사실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

보다 크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살려 본적이 없고 그 자신 또한 살리지 못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8:54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은 그들이 사랑하고 섬긴다고 고백한 아버지 곧 하나님이었다.

8:55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에 대해 부인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고 또 그의 말씀을 순종했다.

8:56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대화에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날에 대해 보기를 갈구하다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했던 자는 바로 자기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 보았다는 것은 아마 그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었을 것이다. 그때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다 묘사되었는데 그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본 것 같다. 주님은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셨다.

8:57 유대인들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의 무지를 나타내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마치 주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대답하였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주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신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소망의 대상이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십도 되지 않았는데(그때 예수님은 약 33세 정도 되셨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8:58 주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셨다.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단순히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이다”(I am)라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셨다. 주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다. 그가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I am)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8:59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는 숨어 성전

에서 나가셨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I am) 있는 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주님은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돌로 치려했던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았다.

9. 여섯 번째 표적: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9:1-12)

9:1 이 일은 주님이 성전을 떠나면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8장의 사건들 이후의 일일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기록한 것은 소망이 없는 그의 처지와 그의 눈을 뜨게 한 이적의 경이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9:2 제자들은 이상한 질문을 했다. 그들은 그의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알고 싶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어떻게 그의 죄 때문일 수가 있을까? 그들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믿었던 말인가? 아니면 그가 태어나서 지을 죄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소경되게 하셨단 말인가? 그들은 분명 그의 소경됨이 그의 가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죄 때문에 세상에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오긴 했지만 병든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병든 것은 아니다.

9:3 주님의 말씀은 그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소경된 것은 그들의 삶에 있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허용한 것은(만든 것과 허용은 다름-역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소경이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자신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아셨다.

9:4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의 공적사역이 약 3년 정도 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매순간 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했다.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 그 날이 안식일이긴 했지만 주님은 그를 고쳐주어야만 했다. 그의 공적사역은 곧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 주를 섬겨야 할 것이다.

9:5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셨을 때에 그는 아주 직접적이고도 특별한 면에서 세상의 빛이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들은 직접 세상의 빛을 보았다. 주님은 아직도 세상의 빛으로서 그에게 오는 자는 어둡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은 특별히 그의 공적사역에 말씀하신 것이다.

9:6 예수께서 왜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눈알이 없어서 흙으로 눈알을 만들

어 넣어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천히 여기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연약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영적 소경들에게 빛을 주실 때에 흠으로 만든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9:7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는 소경이었지만 그 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또 주님 말씀대로 혼자 가서 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뜻을 해석하고 있다. 어찌면 그 의미는 메시아(보냄을 받은 자)를 말한 것일 것이다. 바로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소경은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 그는 전에 전혀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시력이 회복된 게 아니었다. 이적은 순간적이었고 그 사람은 즉시 볼 수 있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는가!

9:8-9 그 사람의 이웃사람들이 놀랐다. 그들은 그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람의 구원도 그렇다.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변화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 소경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와 닮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의심을 제거해주었다.

9:10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질문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고 있다.

9:11 그의 증거는 단순했지만 능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게 된 것을 말하고 보게 한 이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 때에 그 사람은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9:12 우리도 주님에 대해 증거할 때 때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 유대인들의 증가하는 적대심(9:13-41)

9:13 아마도 이적에 대한 진정한 열광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그 소경되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나온 것에 대해 얼마나 분개할 것인가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9:14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셨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나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9:15 그 사람은 다시 주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저 간단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라기보다는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분이였다.

9:16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란이 일어났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메시야일 수 없다고 말했고 다른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없다고 했다. 주님은 때로 사람들 가운데 분리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9:17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자에게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이 자랐다.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9:18-19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그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듣기를 원했다. 만일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면 누가 그 부모보다 그를 더 잘 알 수 있겠는가? 그들의 증거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소경되었던 자가 그들의 아들인지 또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9:20-21 그의 부모의 증거는 아주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아들이었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준 소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로 보게 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옆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그가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9:22-23 22절은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의 주저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든 예수를 메시야로 고백한 자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는 이웃과 유대 종교인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에 대한 상실을 의미한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다.

9:2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이는 하나의 맹세 형식이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말하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줄 아노라”고 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적의 영광을 예수께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의미이다.

9:25 매번 바리새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를 더 영화롭게 하고 말았다. 여기 그 사람의 증거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그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를 의심하고 비웃으며 조롱하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바 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간증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9:26-27 그들은 그에게 다시 더 자세히 대답하라고 말했다. 그때 소경되었던 자는 그들에게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 이미 사실을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그들은 그에게서 다시 듣기를 원했을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는가? 물론 그것은 비꼬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으며 주님을 따르고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9:28 “피고에게 죄가 없거든 고소인을 욕하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서 증거를 얻지 못하자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인 것처럼 그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다.

9:29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멸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조금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모세보다 더 큰 이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9:30 그 사람의 비꼬는 것은 이제 신랄한 비난이 되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사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유대인들의 선생들로서 눈을 뜨게 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온 지도 모른다 말입니까? 부끄러운지 아시오”라고 말한 것이다

9:31 그 사람은 이제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의 믿음은 자라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시며 또 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인정하시거나 이적을 행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된다.

9:32-33 그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이적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서 힘을 잡으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이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9:34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를 비난했다. 그들은 그의 소경됨이 그의 직접적인 죄 때문이라는 언질을 은연중 내비쳤다. 그러한 그

가 무슨 권리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그는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라일(Ryle)이 “성령의 역사는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훨씬 더 잘 띈다”고 말한 것과 같다. “쫓아내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성 밖으로 쫓아내었다는 의미 그 이상일 것이다. 이는 아마 그를 유대 종교 단체에서 출교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무엇에 근거해서 출교한단 말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안식일에 나음을 입었다. 그는 자기를 고쳐준 분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서 출교되었다.

9:35 주님은 이제 그를 찾으셨다. 마치 예수님이 “저희가 너를 원하지 않으면 내가 갖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접과 교제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주 예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을(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인도하시는가를 보라! 주님은 그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다.³³⁾

9:36 그는 육신적으로는 눈을 떴지만 아직도 영적인 빛이 필요했다. 그는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묻고 그를 믿기를 원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그가 “주”라고 한 것은 그저 “선생님”과 같은 의미이다.

9:37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셨다. 그의 삶에 불가능했던 일을 이루어 빛을 주셨던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전에 보았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바

33) (9:35) NU원본은 여기에서 “Son of Man”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맥의 내용인 예배와 맞지 않는다.

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9:38 그는 단순히 그리고 기쁘게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 그는 영광과 육이 모두의 빛을 받았다.

그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라. 그는 지혜로운 유대인으로 사람을 경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도와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경배했다. 이는 그가 자기를 도와주어서가 아니고 바로 그분의 어떠한 심 때문이다.

9:39 이 구절은 얼른 보기에는 요한복음 3장 17절과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나 여기에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복음 전파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없이도 온전히 볼 수 있다고 고집부리는 자들은 그들의 무지(어두움) 가운데 더욱 갇히게 된다.

9:40 바리새인들 중에 더러는 주님께서 그 자신들의 어두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께 와서 우리에게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들의

질문은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었다.

9:41 주님의 답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무지와 사악함을 깨닫고 또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달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너희는 죄 없는 의인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려니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전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비교적으로 말해 죄가 없었을 것이란 의미이다. 만일 그들이 무지가운데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본다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 그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다.

II. 양의 문이신 예수(10:1-10)

10:1 이 구절은 9장 마지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합당한 목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가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목자는 밤에 양들이 자는 울타리의 입구를 막는 문이었다. 양의 우리는 주위를 담으로 막고 오직 한 곳만을 출입하는 문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양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민족에게 와서 자신이 유대 민족의 영적 지

도자이며 인도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스스로 된 메시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하여 넘어왔으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자신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었다.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었고 절도와 강도였다. 절도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자요 강도는 폭력을 사용해 빼앗아 가는 자이다.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다해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고 결국 예수님도 죽이게 될 자들이었다.

10:2 2절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는 양의 목자였다. 그는 문으로 들어가셨다. 즉 그는 정확히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셨다는 의미이다. 그는 그 스스로 된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에 대한 순종으로 오셨다. 그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시다.

10:3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문지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분한 견해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문지기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기 때문에 문지기였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닫는 성령님이라고 말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이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

에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는 자들이 있었다.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목자가 그의 양들을 각각 그 이름에 따라 부르시는 것을 보아왔다. 1장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 그는 또 9장에서 소경을 부르셨다. 주님은 지금도 그를 믿을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의 부르심은 개인적이며 또한 사적이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느니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의 음성을 들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우리로부터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 갇혀있었다. 율법아래서는 자유가 없었다. 주님께서는 그의 양들을 은혜의 자유 아래로 인도하신다. 유대인들이 앞장에서 그 소경되었던 자를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본의 아니게 주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었다.

10:4 참 목자는 그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는 뒤에서 몰지 않고 앞에서 인도한다. 그는 그 자신이 먼저 가보지 않은 곳에 그 양들을 가도록 몰아세우지 않는다. 그는 그들의 구세주로서 언제나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며 본이 된다.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른다. 그들은 주님의 본을 따름으로 그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그의 양이 된다. 구원받으면 그들은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10:5 양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처럼 타인에게서는 도망간다. 타인은 그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다. 눈을 뜬 소경이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타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비록 출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10:6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참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었다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랐을 것이다.

10:7 주님께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는 더 이상 2절에 있는 것과 같은 양의 우리의 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양이 유대주의를 벗어나 문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10:8 그리스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권위와 지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0:9 9절 말씀은 주일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학자들도 다 알지 못한 아주 매혹적인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이다. 기독교는 어떤 신조나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이는 인격이요, 그 인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침례나 주의 만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야 한다.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세주도 되신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죄의 형벌과 능력 그리고 결국은 죄의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받은 후에 그들은 들어가고 나온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떤든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 완전한 자유와 완전성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다. 들어가는 자는 그 안에서 초장을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자유를 주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또한 보호자이시며 만족케하시는 분이다. 그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초장을 찾는다.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는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들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그는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 오셨다. 그는 사람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분량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더 드릴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다.

12. 선한목자이신 예수(10:11-18)

10:11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나는…이다”(I am)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심을 주장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 놓은 선한 목자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양들이 목자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양 무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했을 때
이 자비로우신 목자는
적과 우리사이에 서서
기꺼이 우리대신 죽으셨네.”

(토마스 켈리).

10:12 샅군은 돈을 위해 일하는 자이다. 예를 들어 양의 주인은 그의 양을 돌아보기 위해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그가 바로 샅군이다. 바리새인들은 샅군들이었다.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버는 돈에 있었다. 샅군은 양의 소유주가 아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늑대 앞에 양들을 두고 도망갔다.

10:13 우리들은 돈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샅군은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양들보다는 그 자신의 안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에는 하나님의 양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안락한 직장으로 생각해서 목회를 택

한 값싼 목자들이 많다.

10:14 주님은 다시 그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다. 여기에 “선한”은 “이상적인, 훌륭한, 선택, 우수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양 사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양들을 알고 그의 양들은 그를 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진리이다.

10:15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다. 주님은 그와 그 양의 관계를 아버지와 그의 관계로 비교하셨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연합과 교제, 친밀 그리고 지식이 양과 목자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주님이 우리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때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된다.

10:16 이 16절이 이 장의 주요열쇠가 되는 구절이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다른 양”은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 오셨지만 또한 이방인 양들에 대한 구원도 생각하고 계셨다. 이방인 양들은 유대인 양 우리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양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계셨다.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들보다는 더 그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다.

이 구절 후반절에서 유대주의의 양무리에서 기독교의 양무리로

의 아주 중요한 전환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헐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10:17 17절에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셨다. 그는 그의 죽으심과 묻힘 그리고 부활하실 때를 바라보셨다. 만일 예수님이 단순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면 이 말은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 목숨을 내어 놓았다가 다시 취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주님이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10:18 아무도 주님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사람은 없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피조물들의 살인 계략들보다 위에 계신다. 그는 그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 않은가? 물론 그랬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그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시였다. 더 나아가 그는 그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그 영혼을 내어주셨다”(요 19:30). 주님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또 취하도록 명하셨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3. 유대인들의 분쟁(10:19-21)

10:19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분쟁을 가져왔다. 주님의 세상이나 가정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오심은 평강보다는 분쟁을 가져온다. 사람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 있다.

10:20-21 지금까지 산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쁜 말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그의 사랑과 지혜의 말씀에 대해 귀신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들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사에 있어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들이 선한 사람의 것이요 결코 귀신들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14. 주님이 그 일로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10:22-39)

10:22 이 시점에서 이야기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유대 평민들에게 말씀하셨다.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 수전절 또는 히브리어로 하누카(Hanukkah)는 성경에서 단 한번 언급되고 있다. 이는 B.C 165년도에 시리아 총

독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진 후 유다 마카비우스(Judas Maccabeus)가 성전을 정결케하고 재개함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유대민족이 세운 명절로 매년제였고 주의 명절이 아니었다. 이는 오직 달력에 따라 겨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은 겨울이었다.

10:23-24 이제 주님의 공적사역은 거의 끝이 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보일 때가 가까웠다. 솔로몬의 행각은 헤롯의 성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붕이 있는 곳이었다. 주님이 그곳을 걸으실 때 그곳은 넓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라고 말했다.

10:25-26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의 말씀과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자주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고 또 그가 행하신 이적들은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그는 다시 그의 이적들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리함으로 그는 그가 정말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임을 보여 주셨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는 그들의 자세가 곧 그들이 주님의 양들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로 예정된 자들이라면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10:27 다음의 몇 구절들은 주님의 양들은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

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실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이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매일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그는 그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알고 있다. 주님의 주의를 피할 수 있는 양은 하나도 없다. 주님이 등한이 하거나 한눈팔므로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양은 먼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 후 순종으로 그를 따른다.

10:28 그리스도는 그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특유의 특성을 가진 생명이다. 이 생명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또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생명이다. 다음의 말씀에 주목하라. “영원히³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양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할 터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으시다. 그는 여기에서 그의 양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인가? 구원받고도 세상의 악한 정욕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목자를 따르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우

34) (10:28) 헬라어는 강조하기 위해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다(표준영어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교리는 우리로 방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강한 동기가 된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의 손은 전능하시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 그의 손에서 그의 양을 빼앗아갈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10:29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도 있다. 이는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이중적인 보증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손에서 신자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10:30 주님은 더 나아가 아버지와의 동등을 주장하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능력에 있어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주님은 바로 전에 그리스도의 양을 보호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고 설명하셨다. 다른 모든 속성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같으신 것은 사실이다. 주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10:31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해했다. 주님이 그의 신성을 주장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돌로 치기 위해 돌을 들었다.

10:32 주님은 그들이 돌로 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가 베푼 많은 선한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그 일들 중에 어떤 일로 분개하여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물으셨다.

10:33 유대인들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이적들로 인하여 그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람 이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그들이 볼 때 주님의 주장들은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없었다.

10:34 주님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다. 그는 이것을 그들의 율법으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구약에서 인용하셨다는 말씀이다. 그 전체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쓴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기 “신들”로 불리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신들”이라 했다. 히브리어로 “신들”은(엘로힘) 문자적으로 “힘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 재판장들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에게 적용된다. (이 시편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의 낮을 보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0:35 주님께서는 시편의 이 구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권위와 심판 그리고 능력에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다.” 주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약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서 성취되어야만 하는 오류 없는 글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성경은 그 사상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 하나가 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신들”이라는 단어 하나에 기초하고 있다.

10:36 주님의 논의는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만일 구약에서 재판장들을 “신”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합당하겠느냐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주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들은 신들로 불렸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다른 모든 아담의 후손들처럼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 의해 세상의 구주로 구별(거룩)되었으며 아버지와 언제나 같이 있는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의 동등됨을 주장하실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동등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 그 자신들도 부패한 인간인 하나님의 선지자나 재판관들을 묘사하기 위해 “신들”이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이신데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 얼마나 더 합당한가! 사무엘 그린(Samuel Gre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그러한 주장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셨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주장하셨다. 다시 말해 그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임마누엘이셨다. 유대인들의 주님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지속된 적대감이 드러난 것이었다. 39절을 보라.”³⁵⁾

10:37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신 이적들에 호소하셨다.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라. 이적들 그 자체는 신성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마귀도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아버지의 일이었다. 그 이적들은 이중적으로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했다. 첫째 그 이적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행하시기로 예언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둘째 그 이적들은 자비와 긍휼의 이적들로써 마귀는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들이었다.

10:38 라일(Ryle)은 38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였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는 일을 통해서는 깨달으라. 내 말은 거부한다할지라도 내 행한 일의 증거는 받아들이라. 그렇게 함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

35) (10:36) Samuel Green, “Scripture Testimony to the Deity of Christ,” p.7.

나이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람한 것이 아님을 알며 또한 믿게 될 것이
다.”

10:39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한 것을 보고 그를 잡으려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들을 피하셨다. 주님께서 그 자신을 끌어가도록 허락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그 때는 아니었다.

6.

하나님의 아들의 세 번째 해의 사역: 베레아 (10:40-11:57)

1. 예수님께서 요단으로 물러가심(10:40-42)

10:40 주님은 다시 그의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요단 저편으로 가셨다. 그의 3년 동안의 놀라운 말씀과 역사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주님은 유대주의를 떠나 조용한 곳, 사람들이 외면한 곳, 처음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에서 그의 사역을 마쳤다.

10:41 그에게 온 자들은 아마도 진실한 신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기꺼이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영분 밖,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침례 요한을 칭찬했다. 그들은 요한의 사역이 굉장하거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주님에 대하여 한 모든 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로 인해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큰 능력을 베풀거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참된 증인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아주 큰 것이다.

10:42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시대에도 그렇다. 어느 시대이든 세상에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조롱받으며 또 그들로부터 쫓겨나 주님 계신 데로 나와 주님과 친밀하고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남은 자”들이 있다.

2. 나사로의 병들(11:1-4)

11:1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공적 사역에 있어 마지막인 큰 이적을 보게 된다. 어떤 면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적은 모든 이적들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동쪽 약 3Km지점에 있는 베다니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베다니는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핑크(Pink)는 라일(Ryle) 감독의 말을 인용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있는 마을이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곳이다. 신약 성경에 뉴욕이나 파리는 나오지 않아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은 기록되어 있다.”³⁶⁾

11:2 요한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녀의 헌신된 이 한 행동을 성령은 강조하셨다. 주님은 그의 사람들의 자원하는 사랑을 기뻐하신다.

36) (11:1) Arthur W. Pink, *Exposition of the Gospel of John*, III:12.

11:3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은 어찌면 요단 동쪽에 계셨을 것이다. 그 누이들은 사람을 즉시 주님께 보내 그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다고 했다. 그 누이들이 주님께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들은 왜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구해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였다.

11:4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병의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나사로는 죽겠지만 그가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었다. 그 병의 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나사로가 병들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가 참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게 하셨다.

나사로의 병이 그의 삶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그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는 헌신된 제자였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다.

3. 베다니를 향한 예수님의 여행(11:5-16)

11:5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여기에 이 병은 주님의 분노보다는 사랑과 연관이 있다.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11:6-7 우리는 주님께서 만일 이 세 사람의 신자를 사랑하셨다면 하시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들의 집으로 달려오셨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하나님의 늦추심(연기)은 거절이 아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일 것이며 만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그가 우리의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이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지만 서둘러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정표에 따라 행하셨다. 얼른 보기에는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 같은 그 이틀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갈 것을 말씀하셨다.

11:8 제자들은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준 후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했던 그 쓰라린 체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시려는 주님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11:9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 12시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며 낮이기 때문에 사람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넘어져 죽을 염려는(위험) 없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

하신 그 시간 전에 죽임을 당할 염려는 없었다. 주님은 일을 마치시기까지 보호를 받고 계셨다.

어떤 면에서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전에 우리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다.

11:10 밤에 다니는 자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의 길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11:11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신약에서 “잠”은 언제나 영이 아닌 육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잠든다는 가르침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전지하심을 나타내셨다. 주님은 나са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잠든 사람을 깨울 수 있으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11:12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잠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잠을 하나의 회복의 징조로 보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이제는 위험한 때는 넘기고 회복기에 있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 구절은 또한 나사로에게 잠자는 것만이 문제였다면 그를 돕기 위해 베다니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어쩌면 자신들의 안전이 염려가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지 않으려는 핑계로 한 말인지도 모른다.

11:13-14 주님께서 말씀하신 잠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조용히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아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주님은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님의 지식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11:15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 때가 베다니에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하셨다. 만일 그가 그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제 제자들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가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더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아직 그를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베다니에서 보게 될 이적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더 힘 있게 할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

11:16 도마는 주님이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간다면 그들 또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비관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권했다. 그의 말은 큰 믿음과 격려의 자세보다는 오히려 낙심케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4.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11:17-27)

11:18-19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더욱 더 확실케 해준다. 나사로의 부활이 진정한 이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께서 매사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하라. 나사로는 예수님께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죽은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룻길이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그 후 베다니까지는 하룻길이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약 3Km지점에 있었다.

11:19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그 곳에 올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잠시 후면 그 집이 그들의 위로가 필요한 슬픈 집이 아니라 큰 기쁨의 집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11: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곧 나갔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을 밖에서 만났다. 마리아는 왜 집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어쩌면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나 슬픔으로 쓸어졌던지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믿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녀는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감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11:21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다. 그녀는 오직 예수께서 몸으로 가까이 계실 때에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님께서 멀리서도 사람을 고치며 또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울 때 마르다처럼 이야기한다. 우리는 만일 이러이러한 약이 개발되었더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11:22 여기에 다시 이 헌신된 자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녀는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지 잘 알지 못했지만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은 믿었다. 그녀는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가져다주실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오라비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 마르다가 여기에서 사용한 “구하시는”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피조물들의 간구 또는 창조주에 대한 기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말을 볼 때 마르다가 아직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주님

께서 평범한 분이 아닌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11:23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셨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이 슬픔에 찬 여인을 한 단계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11:24 마르다는 나사로가 어느 날엔가는 다시 살 줄을 알았지만 바로 그날 다시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다.

11:25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 “마르다야 너는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구나. 내가 말한 것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손에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사로를 바로 지금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곧 살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날을 바라보셨다. 이 부활은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그 때 신자들 중에는 두 분류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먼저 부활로 오시고 다음에는 생명으로 오셨다. 먼저 분류에 대해서는 25절에 묘사되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버킷(Burkitt)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무덤도 그리스도와 그의 친구를 갈라놓을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 무덤까지는 따라오지만 곧 떠나가 버리고 만다. 생명이나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³⁷⁾

벤젤(Bengel)은 “이는 생명의 주 앞에서 죽은 자가 있다는 기록을 읽어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1:26 두 번째 분류는 26절에서 묘사하고 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가! 하나님은 슬픔가운데서 기쁨을 그리고 재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주신다. 그 후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다.

11:27 마르다의 믿음은 정오의 햇빛처럼 빛났다. 그녀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시기로 예언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우리는 마르다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5.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우심(11:28-37)

37) (11:25) Burkitt,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11:28-29 마르다는 그 고백 바로 후에 바로 마을로 달려가 마리아를 만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하였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의 구주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그녀를 부르셨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이 동일하게 놀라운 분이 오셔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각 사람들은 그 마음 문을 열고 구세주를 영접하라는 청을 받고 있다. 마리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꾸물거리지 않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11:30-31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베다니 동네 밖에서 만났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은밀하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다.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1:32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것은 하나의 예배의 자세였든지 아니면 슬픔에 지쳐 엎드린 것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마르다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그녀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고 말했다.

11:33 마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시며 통분히 여기셨다. 그는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에 임한 그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의 속에 슬픔을 느끼게 하셨다.

11:34 주님은 물론 나사로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셨지만 사람들

의 기대를 일깨우고 믿음을 격려하며 또 그들의 동참을 요하셔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셨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곳에 모인 자들은 진지함과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을 무덤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11:35 35절은 영어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다.³⁸⁾ 그리고 예수께서 우셨다고 기록된 세 번의 기록 중에 하나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그의 참 인성을 말해준다. 인간의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해 증거하실 때 그는 참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잃었을 때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

11:36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서 나사로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았다. 그들은 물론 옳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깊고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11:37 주 예수님의 존재는 다시 한 번 유대인들의 마음에 의문을 갖게 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는지 궁금해 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자들의 마음에 더 큰 소망을 가져다 줄 보다 큰 이적을 행하시려는 것이었다.

38) (11:35) 헬라어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감정적 스펙트럼(spectrum)과는 반대인 “항상 기뻐하라”이다(Pantote chairete, 살전 5:16).

6. 일곱째 표적 : 나사로를 살리심(11:38-44)

11:38 나사로의 무덤은 사다리나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 땅 밑의 굴이었던 것 같다. 돌이 굴 입구를 막고 있었다. 나사로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과는 달랐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을 파서 만든 굴이므로 기어오르거나 내려가지 않고 언덕 옆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

11:39 예수님은 구경꾼들에게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게 하신다.

마르다는 무덤을 열었을 때의 혐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가 무덤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기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나사로의 시체에 향을 바르지는 않았을 것이며 당시의 풍습에 따라 사망한 그 날 바로 무덤에 묻었을 것이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라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가 기절했거나 잠자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든 유대인들도 다 그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부활은 이적일 수밖에 없었다.

11:40 예수께서 언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확실치 않다. 23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구절에 있는 말의 순서에 주목하라. “믿으면…보리라.” 이는 주님께서 “네가 그저 믿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

만이 베풀 수 있는 이적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난 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먼저 믿어야 한다.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11:41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했다. 이 장에서는 이전의 다른 어떤 기도문이 기록되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 일에 관여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11:42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 기도하시므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으며 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과 일을 순종하고 계심을 사람들로 믿게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연합이 강조된 것을 본다.

11:43 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기록은 신약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11:44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두 다리를 함께 절름거리며 나왔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손과 무릎으로

기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수의로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혼자 힘으로는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사로가 바람에 날려서 주님 발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베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기록은 그가 정말 죽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준다. 그의 얼굴을 그렇게 베로 감싸고도 나흘씩이나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은 다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심으로 사람들의 동참을 허락하셨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며 거치는 돌과 편견 그리고 미신의 베를 풀어놓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7. 믿는 유대인과 불신하는 유대인들(11:45-57)

11:45-46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이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선포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믿었다. 나흘이나 되어 썩어 가는 자를 그 무덤에서 불러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이 이적이 그 사람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달려있다. 그의 마음이 악하고 배타적이며 또 불신가운데 있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다. 그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도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서 말한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로 사람들을 더 선동해서 주

남을 잡아 죽이라고 한 말이다.

11:47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대응이 지체되느냐? 이 사람은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더 사랑해서 구세주를 믿기를 원하지 않았다.

라일(Ryl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다. 주님의 가장 큰 적들도 주님께서 이적 곧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은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이적들을 부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적은 너무 많았고 공적이었으며 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었기에 감히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현대의 이단자들과 회의론자들은 주님의 이적을 사기와 현혹으로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주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를 대적하기 위해 천하를 소동하던 자들도 주님의 역사가 이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는데 18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그의 이적들을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³⁹⁾

39) (11:47) J. C. Ryle, *Expository Thoughts on the Gospels, St. John*, II:295.

11:48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앉아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을 것이 뻔했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로마제국과의 문제를 의미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국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멸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 당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는 표현은 로마인들이 성전을 헐고 유대인들을 흠여지게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일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했기 때문에 A.D 70년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F. B. 마이어(Mey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는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악한 거래가 아닌 선한 사람들의 거래는 그 수익성을 감소시키며 마귀의 사랑으로부터 손님들을 빼앗아가고 기득권을 침해하며 세상을 온통 뒤집어놓는다. 기독교는 귀찮고 성가신 그리고 장사해서 별로 이익이 없는 사업이다.”⁴⁰⁾

11:49-50 가야바는 A.D 26-36년 사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주님의 재판을 주관했으며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왔을 때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야바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오히려 그는 예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돌아가셔야 할 것을 예언하였다. 그는 온 민족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예수

40) (11:48) Meyer, *Tried*, p. 112.

님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야한다고 말한 것이다. 얼른 듣기에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야바가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그의 하는 말은 옳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

11:51-52 이 구절이 가야바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설명해준다. 이것은 “그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즉 그 스스로의 의지로는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주신 것인데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그는 악한 사람이었다) 그의 직책 때문이었다.

가야바의 예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의 택하신 신자들을 모으실 것도 포함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야바의 말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전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방인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많다.

11:53-54 바리새인들은 베다니의 이적에도 깨닫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더 혹독한 핍박을 하였다. 그 날부터 그들은 더욱 모의를 했다. 유대인들의 증폭된 적대를 아신 주님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오늘날에는 에브라임이 광야 옆의 한적한 곳이라는 것 외에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11: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공적 사역의 끝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이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다. 사람들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를 성결케 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그는 특정한 의식을 따라 그 자신을 성결케 해야 했다. 이 의식은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슬픈 사실은 그들이 유월절의 양이신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자신에 대한 성결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전시인가 !

11:55-56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면서 그들은 다시 자기나라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명절에 오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명절에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이유가 57절에 나와 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누구든 그를 본 자는 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게 하도록 했다.

7.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제자들에 대한 사역(12-17장)

1. 베다니에서 기름부음을 받음(12:1-8)

12:1 베다니에 있는 집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곳이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셨다. 이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해 굉장히 위험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를 적대하는 군대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12:2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로 향하는 마음들이 더러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였다.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무엇을 듣고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도 모른다.

12:3 여인에 의해 주님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몇번 나와있다. 두 사건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여기 이 일은 마가복음 14장 3-9절에 있는 사건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리아는 그녀의 헌신된 마음으로 인하여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사실 그녀는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비싼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를 볼 때마다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그녀는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 여자의 머리는 그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영광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이다. 물론 그녀도 얼마동안은 그 몸에서 향기가 풍겼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경배한 자들은 그 자신도 그 순간의 향기를 함께 나누게 된다. 주님께 합당한 경배(지위)를 드린 가정보다 더 향기를 풍기는 가정은 없다.

12:4-5 여기 이 가장 신성한 순간에도 욕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본다. 주님을 팔 자가 그 값진 향유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삼백 데나리온의 가치에도 치지 않았다. 그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식이었다. 그는 주님을 대하는 만큼 가난한 자들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삼백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것의 십분의 일밖에 안 되는 값에 주님을 팔 자였다. 이에 대해 라일(Ryle)은 다음과 같은 좋은 말을 하고 있다.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이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며 또 친히 그에게 친절을 받고 열두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도 결국 그 마음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도 또한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유다가 분명히 보여주었다.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⁴¹⁾

12:6 요한은 곧바로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유다는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12:7 사실 주님은 “그녀를 막지 말라. 그녀는 나의 장사할⁴²⁾ 날을 위하여 그 향유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나에게 대한 사랑과 예배의 표시로 그것을 부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하려는 대로 하게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2:8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 친절을 베풀 수 없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그 끝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우리들에게 영적 기회는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구세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나사로에 대한 계략(12:9-11)

12:9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계신다는 소식이 곧 퍼져서 은

41) (12:4-5) Ryle, *John*, II:309, 10.

42) (12:7) NU 원문에는 “She has kept” 대신에 “that she may keep”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맥이나 부활절 날 아침 마리아가 무덤에 없었던 사실과 대치된다. NIV가 의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밀히 계시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로 왔다.

12:10-11 이 구절에서 다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미친 증오심을 보게 된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세웠다. 혹자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대 반역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유대인들의 적이어서 그를 없애야만 했다.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순교당하기까지 한다.

어떤 주석기들은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므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했다고 말한다.

3. 승리의 입성(12:12-19)

12:12-13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성에 대한 승리의 입성을 본다. 이 말은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의 주일날이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왕으로 기대했는가? 아니면 당시 분위기에 휩쓸렸는가? 그들 중에 참 신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려나무 가지는 슬픔 후의 안식과 평강을 상징한다(계 7:9). “호산 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오랜 억압 즉 로마의 억압가운데서 견져내고 안식과 평강을 주기 위해 하나님 께서 보내신 자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2:14-15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운송수단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구절의 인용은 스가랴 9장 9절이었다. 거기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임할 때에는 나귀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며 “시온”은 예루살렘의 한 언덕이었다.

12:16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확히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합당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고 하늘에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다음에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란 것을 알았다.

12:17-18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지켜본 무리 중에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자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귀새끼를 타신 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 표적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동기는 참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이었다.

12:20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세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바리새인들은 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격분하여 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좇는다고 허풍을 떨었다. 그들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고 거의가 분위기에 휩쓸린 자들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

4. 한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기 원함(12:20-26)

12:20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 그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것을 보면 더 이상 그의 조상의 종교에 따라 산 자가 아니란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에 헬라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다.

12:21 그들이 왜 빌립에게 나왔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다. 어쩌면 그의 헬라 이름과 갈릴리 벳새다에서 왔다는 사실이 이 개종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정말 고귀한 것이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신실하게 주님을 찾은 자들이 빈 마음으로 돌아간 일은 없다.

12:22 빌립은 주님께서 이 헬라인들을 만나주실 지 아니면 만나주지 않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전에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안드레에게 가서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다.

12:23 헬라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우리가 추측해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끌려 주님을 그들의 유명한 철학자로 높이고 싶은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들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리스로 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철학은 “네 자신을 아끼라”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 철학은 추수의 법칙에 정반대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12:24 씨는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말씀하셨다. 그가 죽지 아니하면 혼자 있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구원받은 죄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T. G. 라그랜드(Ragland)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만일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야망을 버리기를 거부하고 위협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며 부와 건강을 잃을까봐 염려한다면 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집을 떠나는 것이나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⁴³⁾

12:25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먹는 것과 입는

43) (12:24) T. G. Ragland,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것 그리고 쾌락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 그들은 몸보다는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그 삶을 잃게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인생에 있어 최고의 것도 기꺼이 포기한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자들이다.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12:26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를 따라야만 한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도덕적으로 그를 본받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종들은 그의 죽음을 본받아야한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이르는 약속이다. 지금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섬김은 장래에 보상해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받는 적은 고난이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하실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5. 죽음에 임박한 예수님(12:27-36)

12:27 주님의 생각은 점점 바로 앞에 다가온 죽음에 집중되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것을 생각하셨다. 그 마음 아픈 때를 생각하며 그의 마음은 민망하셨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아버지께 그 때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세

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다. 그는 죽기 위해 나섰다.

12:28 주님은 십자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은 자신의 안녕이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으며 또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지상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 조용히 지낸 30년 동안의 나사렛에서의 삶과 3년 동안의 공적 사역, 그리고 놀라운 말씀과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이름에 큰 영광이 되었다. 이제 더 큰 영광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러질 것이었다.

12:29 가까이 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로 오해한 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자들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적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소리는 아니란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이 초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천사의 음성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사람들이 거듭해서 복음을 듣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주시지 않고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12:30 주님은 자신은 음성이 없어도 듣기 때문에 그 음성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2:31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생명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그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으로 이제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미이다. 사악한 인간들에게 선고를 내릴 때가 임박해 있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단은 갈보리에서 패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하므로 영원히 승리하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의 마귀들을 물리치셨다. 마귀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사단은 아직도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12:32 이 구절의 첫 부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든 심판이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복음전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면 복음에 능력이 있어 많은 영혼들이 그에게로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한 설명은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언어에 속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12:33 주님은 자신이 들리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음의 방법 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전지하심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이 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아셨다.

12:34 사람들은 주님의 들린다고 하신 말씀에 다시 혼란 가운데 빠졌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 또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심을 알고 있었다(사 9:7; 시 110:4; 단 7:14; 미 4:7).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사실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여러 번 자신에 대하여 인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자로 말씀하셔도 그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금방 알았다.

12:35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다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빛이 잠시 세상에 있을 때에 빛으로 나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이 그들을 삼켜 무지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 자신을 태양과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다. 태양은 아침에 떠서 정오에 그 극치를 이루며 저녁

에는 지평선으로 사라진다. 오직 제한된 시간만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해야 한다. 저녁이 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그를 거절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다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12:36 주님은 다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영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떠나 잠시 은밀한 곳에 계셨다.

6.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12:37-43)

12:37 요한은 주님이 그 많은 능력의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기 위해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들의 불신은 증거부족이 아니었다. 주님은 자신의 신성에 대해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믿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지만 회개를 원하지 않았다.

12:38 유대인들의 불신은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성경에서 팔은 권세 또는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12:39 주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은 그를 배척했다. 거듭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계속 거부했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할수록 믿기가 힘들어진다. 빛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보기도 어렵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12:40 이 구절은 이사야 6장 9-10절을 인용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들의 눈을 감고 마음을 둔하게 한 후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고의적인 배척으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빛과 이해, 개심 그리고 고침 받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12:41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본 것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은 이사야가 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12:42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출교되는 것이 두려워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사실 의심스럽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라면 언젠가는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결과야 어떻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12:43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더 구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구했다. 이러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5장 44절을 보라.

7. 불신의 위험(12:44-50)

12:44 44절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믿는 것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와의 절대적인 연합에 대해 가르치셨다. 한 분을 믿으면서 다른 한 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었다. 아들에게 동일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

12:45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육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곧 아

버지를 본 것이다.

12:46 빛에 대한 예는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예 같다. 주님은 다시 누구든 그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빛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다. 그들은 삶이나 죽음 또는 영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12:47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키 위함이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 다만 주님의 초림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2:48 주님은 자신의 말을 배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바라보셨다. 그 때에 그들에 대한 정죄는 주님의 말씀 또는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12:49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스스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 오직 순종하는 종과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에게 해야 할 말뿐만 아니라 전해야 할 것도(이를 것)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 “나의 말할 것”이란 표현은 메시지의 내용을 의미하며 “이를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있어 사용한 용어를 의미한다.

12:50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명하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처럼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전환점에 와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시하셨었다. 일곱 가지 표적 또는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적들은 각각 죄인이 주께 나왔을 때 누리게 될 경험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1)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2:1-12)-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외인인 죄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4:46-54)-이것은 죄의 병이든 사람에게 영적 치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 베데스다 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심(5장)-힘없고, 소망 없고,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4) 오천 명을 먹이심(6장)-음식이 없어 굶주리며 힘을 낼 수 있는 양분을 필요로 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께서 사람의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심으로 배고픔이 없게 하신다.

(5)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심(6:16-21)-위험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건지신다.

(6)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9장)-이는 주께서 그 능력으로 치유하실 때까지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실 때까지는 자신의 죄악상이나 구세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7)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11장)-이것은 물론 죄와 그 형벌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죽은 죄인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모든 표적들은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8.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13:1-11)

13장에서는 이층 다락방에서의 대화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학대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지 않으셨다. 주님은 재판관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이층 다락방에 계셨다. 요한복음 13-17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13: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주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해 하늘로 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진실로 그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다. 그는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는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즉

끝없이 사랑하셨다.

13:2 어떤 저녁이었는지 요한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유월절인지 주의 만찬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저녁식사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지금이 예수님을 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길 신호를 받은 것이다.

13:3 3절은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랍비나 선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인 예수님이셨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셨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아셨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

13:4 그 자신과 임무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자각이 그로 하여금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게 했다. 주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서 서긴 겹옷을 벗어 옆에 놓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종의 자리를 취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님을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올법한데 오히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주님이 어떻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곳을 버리시고 종으로 이 땅에 내려와 그 창조한 사람들을 섬기셨는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게 해준다.

13:5 동방에서는 사방이 뚫린 신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을 자주 씻어야 했다. 손님들을 초청한 주인이 종을 배치해두어서 손님들의

발을 씻게 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의 예의였다. 여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그 천한 일을 하셨다. “배신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중요한 교훈인가!”

13:6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는다는 것에 대해 놀라서 주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자신과 같이 천한 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종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된다.”

13:7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셨다.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씻음에 대한 한 모형이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의 육적인 행동은 보았지만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설명해주시므로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후 회복될 때 경험으로 그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13:8 베드로는 인간 본성의 극단에 대한 한 예이다. 그는 주님이 절대로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절대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영원히”라는 의미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만일 발을 씻지 않으면 자기와 교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발을 씻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밝혀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더러워지게 된다. 거친 대화를 듣게 되고 부도덕한 것을 보며 또 부도덕한 사람들과 일하게 될 때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씻음이 필요하다. 씻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성

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악의 영향으로부터 깨끗케 되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등한히 하면 할수록 악의 영향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머물게 된다. 예수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과 의 교제는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씻음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9-10 베드로는 이제 다른 먼의 극으로 치우쳤다. 조금 전에는 절대로 씻길 수 없다더니 이제는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하였다.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 발이 더러워진다. 그때 우리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과 발을 씻는 것은 다르다. 목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끗한 씻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의 형벌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은 단 한 번이다. 발을 씻는 것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씻어야함을 의미한다. 목욕은 단 한 번이지만 발은 자주 씻는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는 말씀은 유다 외에는 제자들이 다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유다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13:11 전지하신 주님께서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그를 목욕하지 않은 자로 말씀하셨다.

9. 주님께서 자신의 본을 따르도록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심(13:

12-20)

13:12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은 겹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그 자신이 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셨다. 주님은 질문으로 그의 대화를 시작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질문들을 공부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질문들은 주님의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 중에 하나이다.

13:13-14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선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알고 있었다. 주님은 그러한 본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낮은 자 즉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만일 주와 선생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교훈은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는 것인가?⁴⁴⁾ 교회의 의식을 제정하신 것인가? 여기에서의 교훈은 영적인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인 말씀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청결하게 지키라는 것이었다. 어떤 형제가 냉담해지거나 세속화되어갈 때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권고해야 한다.

13:15-16 주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의 본을 보여주셨다.

교만이나 분개함이 우리로 형제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주님은 무가

44) (13:13-14) 동방에서 한때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때가 있었지만 이것은 겸손한 봉사에 대한 하나의 본이다.

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으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당신을 팔 줄 알면서도 겸손히 그를 섬길 수 있겠는가? 보냄을 받은 자(제자)들은 보낸 자(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13:17 겸손과 자기헌신 그리고 섬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가치와 축복은 이를 실행하는데 있다.

13:18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유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과 같은 배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먹었지만 주를 향해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주를 배반하는 것을 의미함). 시편 41편은 배반자를 “나의 가까운 친구”로 묘사하고 있다.

13:19 주님은 때가 되면 제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가를 미리 말씀하셨다. 이 구절 끝 부분에 나와 있는 “그”는 삭제할 수도 있다. “너희로 나를 (I AM, 스스로 있는 자-역-주) 믿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이시다.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이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13:20 주님은 자신의 팔림이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이나 걸림이

될 줄 아셨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할 정도로 주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밀접한 연합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되었다.

10. 자신의 배반에 대해 예고하신 예수님(13:21-30)

13:21-22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신 주님은 심령이 민망하셨다. 이곳에서 주님은 자기를 팔 자에게 그의 악한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를 지적하지 않고 12명 중에 하나가 팔리라고만 말씀하셨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중에 누구 하나가 주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놀라고 또 그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궁금해 했다.

13:23 이 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식탁에 반드시 앉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누웠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님과 관계에 있어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밝히고 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요한은 주님과 특별히 가까운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13:24-25 베드로가 말 대신 머릿짓을 했다. 아마도 머리를 끄덕여서 요한에게 주님을 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요한이 조용히 속삭이는 음성으로 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도 조용한 목소리였을 것이다.

13:26 예수님은 자기가 한 조각의 떡을 술 또는 고기국물에 적서 주는 자가 자기를 팔 자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에서는 식사 때에 영예로운 손님에게 떡을 주었는데 주님은 유다를 영예로운 손님으로 대접하므로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떡을 나누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다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기 전 유월절 식사 중에 그곳을 떠났다.

13:27 사단이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팔 생각을 넣었지만 이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처음에 그것은 단순한 제의에 불과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즐기다 거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그를 통제하게 되었다. 주님은 이제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배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셨다.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유다를 격려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슬픈 사직을 표현하신 것이었다.

13:28-29 주님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과 주님사이의 떡에 대한 대화를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밝혀 주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가 돈궤를 맡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잔치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한 줄 알았다.

13:30 유다는 특별한 호의의 표로 떡 한 조각을 받고는 주님과 제자들을 떠나갔다. 성경은 “밤이러라”는 의미 있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유다에게 있어 영원히 슬픔과 흑암이 지속되는 밤이었다. 사람이 구세주에게서 등을 돌리면 그에게는 영원한 밤만이 존재한다.

11. 새 계명을 주심(13:31-35)

13:31 유다가 떠나자마자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보다 친밀하고도 자유스러운 대화를 시작하셨다. 이제 긴장은 사라졌다.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구속사역에 관여하셨다. 그의 죽음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의 부활과 승천 후에 그에게 큰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는 죄를 눈감아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갈보리 동산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13:32 “만일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⁴⁵⁾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이 그 아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곧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천국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즉시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13:33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소자들아”(친애의 용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유다가 떠난 다음에야 그 용어를 사용하셨다. 그는 이제 그들과 잠시만 같이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었다.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찾을 지라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하셨다.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 그의 떠남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었다(14장).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의 떠남은 마지막이었다. 주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그를 따를 수가 없었다.

13:34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그들은 사랑의 계명으로 다스림을 받아야했다. 십계명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새 계명이 아니었다. 다른 면에서 볼 때 이 계명은 새 것이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에서는 새 계명이었으며

45) (13:32) 헬라어 문법이(first class condition pous ei with the indicative) 이것이 사실인 것을 가정하고 있다.

구약보다는 우월하다는 면에서 또한 새 계명이었다. 옛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 계명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롭게 조명되고 새로운 동기와 의무로 강권되고 있으며 또 새로운 본과 방법으로 예시되고 또한 순종되고 있다”라는 좋은 말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을 요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35 제자의 상징은 십자가를 옷이나 목에 달고 다니거나 특별한 옷을 입는 게 아니다. 그것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제자의 표는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12.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13:36-38)

13:36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줄을 몰랐다. 그는 주님이 어느 곳에 여행을 가시는데 자신이 왜 따라갈 수 없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주님은 그에게 나중에 자신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은 후의 일이고 지금은 따라갈 수 없었다.

13:37 베드로는 전형적인 헌신과 열광으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

고 말했다. 그는 그 자신의 힘으로 순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순교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기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13:38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르고 있던 일 즉 날이 새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의 “지식 없는 열심”을 저지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단 몇 시간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연약과 비겁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

13.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14:1-14)

14:1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13장 마지막 절과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라는 말이 헬라어로 복수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의 내용은 주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과의 동등에 대한 주장이 있다.

14:2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은 하늘나라를 의미한다. 하늘나라에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거할 곳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거짓 위에 세우지 않으셨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여기에는 두 가

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주 예수님은 갈보리에 가서서 그의 사람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다. 그의 대속으로 신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것이다(가능케 하셨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하늘에 가서서 있을 곳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것이다.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준비된 장소.”

14:3 3절에서 말하는 때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피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될 휴거 즉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를 말한다(살전 4:13-18; 고전 15:51-58). 이는 그리스도의 개인적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오심을 말한다. 그가 확실히 가신 것처럼 또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소원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다.

14:4-5 주님께서 하늘로 가실 것인데 수차에 걸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그 길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베드로처럼 어찌면 주님이 이 땅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14:6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길만 보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길이다. 구원은 주님 안에 있다.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 즉 구원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참 길이다.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십계명이나 황금률 의식,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종교란 다 공통적으로 선하고 결국에는 모두다 하늘나라로 인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진리이시다.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시다. 그는 진리로 옷 입으신 분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 진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는 육적 그리고 영적 생명의 근원이다.

14:7 주님은 다시 한 번 아버지와 그 사이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 말씀하셨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주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주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다.

14:8 빌립은 주님께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는 주님의 모든 것, 행하신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아버지의 계시란 것을 알지 못했다.

14:9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다. 빌립은 주님과 함께 오래있었다. 그는 맨 처음 제자로 불리운 자 중에 하나였다(요 1:43).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아버지와의 연합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시고 계신 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빌립은 알지 못했다.

14:10-11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밀접한 연합을 의미한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속성이나 의지에 있어 하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썩을 육체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 정도라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할 것이다. 우리가 그를 온전히 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으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있어 온전히 그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증거를 인하여 그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그의 하시는 일을 인하여서도 그를 믿어야 했다.

14:12 주님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행한 이적을 행할 것이요 그

보다 더한 이적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병 고치는 이적들을 행한 것을 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적 즉 오순절 날 삼천 명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본다.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이 “더 큰 일”이라고 묘사하신 교회의 건축(교회 건물이 아니라 영적 건물을 말함-역주)도 이에 속할 것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일이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에 그는 영광을 받으셨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도들이 더 큰 이적들을 행한 것이었다.

14:13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신자들은 무엇이든 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가 아니다. 이 구절에 대한 중요한 이해는 “내 이름으로”라는 구절에 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다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마음과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을 잘 모르게 된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같아질 것이다. 아들이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셨다. 이러한 성결의 기도가 드러지고 또한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

14:14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격려하고 또한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약속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행하며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실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14.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14:15-26)

14:15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슬픔에 싸이게 될 것이었다. 주님께 어떻게 그들의 사랑을 표할 수 있을까? 답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눈물이 아니라 순종이다. 여기에 주님의 계명은 복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다.

14:16 여기에서 사용된 “기도”란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혜사”는 사람 옆에 서서 돕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대언자로 변역되었다(요일 2:1).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또는 돕는 자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돕는 자)이다. 다른 분류의 돕는 자가 아닌 같은 분류의 돕는 자이다.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것이다. 구약에 성령님은 여러 번 사람

들 위에 임하셨지만 때로 그들을 떠나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것이다.

14:17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불리우고 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전기나 바람은 믿으면서도 성령님은 믿기 전에 보기를 원한다.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님은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았다. 그들의 삶에 역사하심을 알았으며 또한 주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보았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순절 전에 성령님은 사람들 위에 거하셨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그 사람과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신다. 오늘날은 다윗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은 성령이 근심하거나 방해 또는 소멸되는 일은 있어도 떠나는 일은 없다.

14:18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고아나 행인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로 오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부활 후에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면에서 주님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오셨다. 여기에 서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오심일 것이다. “오순절 날은 주님의 오심도 있었다.” 세 번째 의미로 주님은 그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시대의 끝에 오실 것이다.

14:19 불신자들은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는 그를 보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후에는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만 그를 보았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의 제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계속 그를 보았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가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계속 그를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 것은 그의 부활 후를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다. 비록 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14:20 여기 “그 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을 의미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한 연합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 사이에 놀라운 생명의 연합이 있을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셨다.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불속에 있는 부지깅이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불속에 부지깅이가 있으며 또 부지깅이 속에 불이 있음과 같다.⁴⁶⁾ 그러나 이 예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신자들과 나눔에 있어 신자들 안에 계신다. 사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안에 계신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14:21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증거는 그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46) (14:20) 공중의 새나 물속의 고기들을 포함한 다른 유명한 예들.

것은 무익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신다. 우리는 구세주를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14:22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다는 불행하게도 주님을 판 유다와 같은 이름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친절하게도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 왕이나 영웅으로 오시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영적인 방법을 통하여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를 볼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은(사람들로 인하여) 멀리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각자가 다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각 신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거하심이 될 것이다.

14:23 사람이 진정으로 주를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며 그 계명들을 모른 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변명 없이 그

아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히 이러한 사랑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에 가까이 계신다.

14:24 반대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거부한다.

14:25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만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였다.

14:26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그들에게 더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은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였고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성령은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사실 성령님이 전 신약을 통하여 발전시킨 그 가르침의 종균을 주님께서 심으신 것과 같다.

15. 그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14:27-31)

14:27 일반적으로 임종하는 사람은 유언을 남기며 그 재산을 사

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는데 주님도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적인 것은 남기지 않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남기셨는데 그것은 죄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얻을 수 있는 양심의 내적 평강이었다. 그는 갈보리에서 그의 피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이는 세상이 주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선물이 아니다. 그의 주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근심 걱정을 해야 하겠는가?

14:28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가며 또 다시 와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면 즐거워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얼른 보기에 이 구절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자신의 아버지와의 동등에 대한 가르침과 대치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이 구절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 그리고 추적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모독했고 거역하며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는 그의 피조물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없다. 그는 멀리 죄인들을 떠나 하늘에 계신다. 이제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 인간의 적대와 고통으로부터는 멀리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을 때 이를 기뻐했어야 했

다. 이러한 면에서 아버지는 주님보다 크셨다. 아버지는 하나님으로서 주님보다 더 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무서운 학대를 받아보시지 않았다는 면에서 더 크신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를 취하셨다는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보다 크셨다. 아버지는 인격이 아니라 위치에서 아들보다 크셨다.

14:29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낙심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14:30 주님은 이제 자신이 팔릴 때가 가까워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다. 사단이 가까이 접근했지만 주님은 그 적도 자신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주님은 사단의 시험에 반응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말할 수 없다.

14:31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팔릴 때가 가까웠다. 나는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로 가겠다. 이것이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뜻이다. 이로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반항하지 않고 가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고 권하셨다. 그들이 이 때 이층 다락방을 떠났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 나머지 이야기는 걸어가면서 했는지도 모른다.

16.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15:1-11)

15:1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으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른 모형이나 그림자들을 성취하시는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15:2 그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거짓 신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인 체하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적이 없는 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신자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신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다는 많은 성경구절과 대치됨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는 타락한 신자들 즉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헬라어 동사 “에이로(*airo*)”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흠정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취하여 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요 1:29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번역되고 있음). 그렇다면 이는 죽음으로 그를 데려가는 징계일 수 있다(고전 11:30). 그러나 이 단어는 또한 “듣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다(요 8:59처럼). 그렇다면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공기와 빛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일을 의미한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 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가지라도 자르고 깨끗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 포도나무를 여러 벌레와 곰팡이 병, 그리고 병균들로부터 깨끗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달라붙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청결케 해야 한다.

15:3 깨끗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제자들은 거듭날 때 말씀으로 깨끗케 함을 받았다.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삶을 청결케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칭의와 성결을 의미할 수 있다.

15:4 “거하다”는 당신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분이다. 그는 이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그곳으로부터 생명과 모든 양분을 섭취한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와 말씀 상고, 순종, 그의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지속적인 그와의 연합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영적 자원과 힘을 주신 줄을 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매순간 그와 접촉하는 것 뿐이다.

15:15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며 신자들은 그 가지이다. 가지가 나무에서 자기의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통하여 나무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당신을 위해 저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주여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사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나무와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짓는데도 무용하며 심지어 불을 때는데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한 열매 맺는 데는 좋다.

15:6 이 구절에 대한 의견은 아주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이는 죄 가운데 빠져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는 신자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다른 많은 성구들과 대치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입으로만 고백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가룟 유다가 인용된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려해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참 신자라고 믿는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자는 무관심과 기도에 등한히 함으로 주님과 접촉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죄를 짓고 간증을 망쳤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밖에 버려졌으며 가지는 모아져 불에 던져 살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세상이 비웃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진흙탕에 내던지고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불에 던져 넣는다. 다윗의 삶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진

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부주의로 인하여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다. 그는 여호와와 원수로 휘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무신론자들은 다윗(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

15:7 “거함”은 성공적인 기도의 삶에 대한 비밀이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그를 알면 알수록 그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뜻에 더 동의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15:8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악했던 사람을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크신 분임에 틀림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 장에서 열매(2절), 더 많은 열매(2절), 그리고 많은 열매(8절)라는 점진적인 표현에 주목하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15:8 구세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과 같은 사랑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게 된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 질이나 정도에 있어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하다. 이는 “사람이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잠길 정도로 깊은 사랑”이다.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그의 사랑을 인식하고 누리라는 의미이다.

15:10 10절의 절반은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그를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셨다. 그가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그 아무것도 주님과 아버지사이의 그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끊지 못했다.

15:11 주님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에 즐거움을 누리셨다. 주님은 그 제자들도 자신을 의지함으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남으로 얻는 행복이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것이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 니라.”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므로 성취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의심하는 면으로 이 요한복음 15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羊)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반부의 말씀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의심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17.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15:12-17)

15:12 주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고 이제 머지않아 그들은 적대적인 세상에 남게 되었다. 위협이 고조될수록 제자들은 서로 다툼 위협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다.

15:13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위해 죽을 정도의 사랑이어야 했다. 서로를 위해 죽을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예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사랑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내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전 생을 산 사람들도 있다. 주 예수님이 그 예이다. 그는 친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았다. 물론 그들을 위해 죽을 때 그들은 그의 원수였으나 구원받고 그의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거나 원수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해도 둘 다 맞는 말이다.

15:14 우리는 그가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의 친구된 것을 나타낸다. 그가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된 것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이다.

15:15 주님은 여기에서 종과 친구의 다른 점을 강조하셨다. 종은 단순히 주인이 명하는 것을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뿐이지만 친구는 신의를 가지고 있다. 친구에게는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언제나 주의 종으로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친구도 될 수 있었다.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 자신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지로서 받고(5절) 제자로서 따르며(8절) 친구로서 친교를 나눈다(15절).”

15:16 주님은 그들이 낙심해서 포기할까봐 그들을 택한 자는 자기란 것을 상기시키셨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과 제자도, 또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주님은 앞에 놓인 일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열매라고 하면 사랑, 기쁨, 평강 등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들을 말할 것이다.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구원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지 않고는 두 번째 즉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가 영혼 구원인 것을 생각해 해준다. 주님은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제자들을 택하셨다. 주님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신앙고백보다는 진정으로 거듭난 열매들에 관심이 있으셨다. L. S. 차퍼(Chafer)는 이장에서 효과적인 기도(7절)와 하늘의 기쁨(11절) 그리고 영구적인

과일(16절)을 보게 된다고 했다. “무엇을 구하든지” 효과적인 사역의 비밀은 기도이다.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를 시행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보냄을 받았다.

15:17 주님은 이제 세상의 적대에 대하여 제자들을 경고하려 하셨다.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서로 뭉쳐 적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다.

18. 세상의 적대감을 예언하신 예수님(15:18-16:4)

15:18-19 제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지라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했다. “미워하면.” 이것은 ‘혹시 미워하거든’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닮은 모든 자들도 또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들처럼 사는 사람들 즉 더러운 용어와 육체의 탐욕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15:20 여기에서의 “중”은 문자 그대로 “노예”이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주인이 받은 대접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배척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말도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15:21 이 미움과 핍박은 “내 (주) 이름을 인하여” 받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세상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를 닮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15:22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만일 자기가 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닐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전혀 흠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를 배척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더 심히 죄 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죄의 경중의 문제이다. 주님을 배척한 죄와 비교할 때 그들의 다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을 거부했다.

15:23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미워하였다. 두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다.

15:24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도 보았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정죄를 가중시켰다. 그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 이와 같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주님은 그들의 다른 모든 죄들과 이 죄

를 비교하시면서 전에 죄는 이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아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였는데 그것이 그들의 무서운 죄였다.

15:25 주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언에 대한 정확한 성취란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시편 69편 4절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주님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언된 구약말씀에 대해 언급하셨다. 그렇게 예언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다윗을 통해 시편 69편에 기록하게 하셨다.

15:26 사람들이 주를 거부했지만 그리스도의 증거는 계속될 것이었다.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일은 계속될 것이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성령을 보내실 분은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하나님을 보낼 수 있겠는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 말은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오순절 날의 그의 오심은 이에 대한 특별한 사건이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는데 이것이 그의 큰 임무이다. 그는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시고 죄인이나 성도들의 관심을 영광의 주님께 향하도록 역사하신다.

15:27 성령님은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실 것이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나 그의 사역에 대해 증거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께 어떤 흠을 찾을 수 있다면 그와 함께 오래 삶을 같이 한 제자들이 가장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할 수 있었다.

16:1 일반적으로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소망(메시아가 로마를 몰아내고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다. 주님은 그 대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갈 것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이 환멸을 느끼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16:2-3 유대인들은 회당으로부터의 출교를 가장 무서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기독교는 너무나 미움을 많이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이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부함으로 아버지를 거부했다.

16:4 주님은 제자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

하여 미리 경고하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핍박을 예고하셨다는 것과 그것이 그들에 대한 그분의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일찍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방황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셔야만 했다.

19. 진리의 영이 오심(16:5-15)

16:5 5절은 제자들이 주님의 앞길에 대한 관심이 없어 실망감을 표현한 말씀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16:6 그들은 주님보다는 자신들의 장래에 더 관심이 많았다. 주님 앞에는 십자가와 죽음이 있었고 제자들 앞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핍박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로 인하여 슬픔에 잠겼다.

16:7 그러나 그들은 도움이나 위로 없이 그냥 세상에 버려지게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었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나았다. 그가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격려하며 가르치고 전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것이 되게 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보혜사는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가시기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이었

다. 물론 성령님은 이전에도 세상에 계셨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깨우치고 구속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새롭게 오시는 것이다.

16:8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일깨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면서도 여기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다. 성령께서는 그 자신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정죄하신다. 원래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며 성령님이 계셔서 안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주를 배척해 주님은 하늘로 다시 가셨다. 이제 성령님은 배척된 그리스도 대신 세상에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를 증명하는 것이다.

16:9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실패한 세상의 죄를 일깨우신다. 그는 믿어야 할 분이었으며 그를 믿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상에 계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이다.

16:10 구세주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신들렸다고 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다. 사실 하나님은 “내 아들은 의롭다.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로 데려감으로 이를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옳았고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16:11 성령님의 임재는 또한 오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신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으며 구세주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도 장래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12 주님은 아직도 제자들에게 이르실 말씀이 많았지만 그들이 이를 감당치 못했다. 이것은 가르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진리를 배우는 데에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주님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한 번에 쏟아 붓지 않으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다.

16:13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진리의 영에 의하여 계속될 것이었다. 그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진리가 제자들의 전 삶에 위탁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다. 신약은 구약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계시(기록)를 완성하였다. 물론 시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을 말씀하실 것이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물론 신약에서 되어졌으며 특별히 장래 일이 밝혀진 계시록에서 되어졌다.

16:14 그의 일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설교와 가르침들을 점검해볼 수 있다. 만일 그것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면 성령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큰 진리들을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은 것이란 의미이다. 그가 신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이다. 결코 주님의 진리에 대한 주제 부족은 없을 것이다!

16:15 아버지의 모든 속성이 아들에게도 속했다.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온전함이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직임, 은혜 그리고 충만이었다.

20. 슬픔이 기쁨이 됨(16:16-22)

16:16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때는 분명치 않다. 3일 동안 그들을 떠나 계시다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잠시 후(현 시대)에 그들에게로 다시 오신다(재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잠시 후에 그들은 육의 눈으로 주를 보지 못하지만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이제는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16:17 제자들은 혼란가운데 빠졌다.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두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16:18 그들은 서로 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뜻인가를 물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그의 부활 전의 3일을 말씀하는지 아니면 오순절 전의 40일을 말씀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16:19-20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었다. 주님은 질문을 통하여 그의 전지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제에 답하는 대신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더 말씀하셨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기뻐하게 되겠지만 제자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16:21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얼마나 그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가졌던 슬픔을 그를 봄으로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16:22 우리는 조금 전의 그 “때”에서처럼 다시 주님의 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의 무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오순절 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의미할까? 아니면 그의 재림인가? 어느 것이든 결과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21.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함(16:23-28)

16:23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질문과 요구들을 주님께 가져왔다. “그 날에는”(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됨).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 그에게 질문이나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찾아갈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날에는” 그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보증을 받고 있다.

16:24 이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구하라고 하셨다. 응답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이었다.

16:25 주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직접적인 가르침이었으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비유나 예화를 통해서도 가르치셨다. 이 장에서도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이 보다 더 분명해졌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이제 더 이상 비유나 예화가 아닌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다.

16:26 여기 “그 날에”는 성령의 시대 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우

리들의 특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를 조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이시며 하나님 앞에 그의 성도들을 위해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16:27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며 그를 영접하고 또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간청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새로운 면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즐길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다.

16:28 여기에서 주님은 아버지와 동등되심에 대한 주장을 반복하셨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의미이다. 그는 다른 어느 곳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것이다. 승천하실 때 그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간략한 하나의 전기이다.

22. 환난과 평강(16:29-33)

16:29-30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야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인 것을 알았단 말인가?

16:31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줄은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단 말인가?

16:32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었고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리고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칠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홀로 계시지 않을 것이었다.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이 연합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다 살기 위해 그를 버릴지라도 그를 돕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16:33 이 대화의 목적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 억압, 거짓증사 그리고 심지어 불태움을 당한다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었다. 주님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들은 비록 핍박을 받는다할지라도 자신들이 이기는 편에 있다는 것으로

쉽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원수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었다.

23.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17:1-5)

17:1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 주님은 이 기도에서 그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 이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현재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다. 마르커스 레인스포드(Marcus Rainsford)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기도는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예가 되고 있다. 이 기도에는 그의 사람들에 대한 대적이거나 넘어짐 그리고 부족을 책망하는 말이 없다. 그는 오직 그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으며 그와 함께 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들로 말하고 있다…그의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는 모두 영적인 것으로서 하늘에 속한 축복이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한 부도 영예도 능력도 큰 역사의 성취도 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세상으로부터의 성별, 일을 위한 자격, 그리고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셨다. 영혼의 부가 진정한 부이며 최상의 부이다.”⁴⁷⁾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의 적들은 수없이 그를 없이하려했지만 그의 때가 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

47) (17:1) Marcus Rainsford, *Our Lord Prays for His Own*, p.173.

음에 넘기울 때가 되었다. 구세주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셨다. 만일 주님이 계속 무덤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세상은 그도 단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지 삼 일만에 살리시고 하늘로 데려가 영광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주님은 계속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에 대한 의미는 다음의 두 구절에 설명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세상에 주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

17:2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 속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지만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7:3 여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다. 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말미암는다.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과 대조를 이룬다. 예수 그리

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 이 구절의 의미가 아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영생의 근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두 분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17:4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신이 이미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죄 없는 삶과 이적,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구속사를 완성하셨다. 라일(Ryle)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께 영광을 가져왔다. 이는 그의 신실과 거룩 그리고 사랑에 영광을 가져왔다.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하시면서도 또한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또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주님 같은 대속물을 요구할 정도로 거룩의 계명을 지키시므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구속자와 증보자를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친구로 주신 것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들에게 영광을 가져왔다. 이는 그의 동정과 인내 그리고 능력에 영광을 가져왔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죄를 지고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또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천사들을 불러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자원해서 받으시며 평범한 죽음이 아닌 죽음을 죽으신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단을 격파하며 그 적진을 파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를 보여주었다.”⁴⁸⁾

17:5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다. 천사들이 주님을 볼 때 그에게는 모든 신성과 영광이 있었다. 모든 면에서 그는 분명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가려졌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셨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 여기 주님은 이제 하늘에서의 그 보이는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하늘 당신이 계신 곳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졌던 그 본래의 영광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의미이다. 이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선재를 가르쳐준다.

24.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17:6-19)

17:6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즉 그의 속성과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48) (17:4) Ryle, *John*, III:40, 41.

는 아버지의 참 속성을 온전히 선포하셨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아들에게 주신 바 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하여 성별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주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다. J. G. 벨렛(Bellett)은 “주님은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그 모든 실패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셨다. ‘그의 제자들을 반하여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레인스포드(Rainsford)는 “그들이 한 것이라든지 또 할 것(주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도 없다”고 말했다.

17:7-8 구세주는 완전히 그 아버지를 대신했다. 그는 자기는 자의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을 하였다고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으며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선교도 그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신 것이었다. 그는 온전한 여호와와 동일하였다.

17:9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렇다고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그는 여기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대신해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곳에서 그의 기도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었다.

17:10 여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완전한 연합이 있다.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당신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주님은 이 구절(6-19)들에서 그 가난하고 둔한 자들을 채색 옷을 입히시고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7:11 주님은 여기에서 다시 그의 하늘로 가심에 대해 언급하셨다. 그는 이미 하늘에 가신 것처럼 기도하셨다. 여기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타이틀에 주목하라. 여기에서 거룩은 무한히 높으신 분을 말하며 “아버지”는 깊은 친밀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특성을 말한다. 도덕적 특성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자들도 이면에(주님처럼) 하나가 되어야한다.

17:12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이는 그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진리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는 가룟 유다를 말한다. 그렇다고 유다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거나 진실한 신자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문자의 의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었나이다”이다. “멸망의 자식”은 유다가 영원한 멸망에 내어준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다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구세주를 팔기로 했고 그로 인하여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7:13 주님은 왜 그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는가를 설명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하게 될 중보의 기도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세상에서 너희 듣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17:14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음흉한 것들과는 맞지 않았다.

17:15 주님은 그 성도들을 즉시 하늘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며 은혜 안에 자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피난이 아니라 보호였다.

17:16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환영받지 못한 세속적인 오락이나 모임들로 인해 유혹을 받을 때에 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17:17 여기에 “거룩”은 성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

들을 세상에서 성별한다.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말씀은 그들을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깨끗케 한다. 주님이 여기에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의 말씀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17:18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제 곧 그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아셨다. 그런데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일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신자들이 해야 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온전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17:19 “거룩케하다”는 말은 꼭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개인적인 특성처럼 이미 거룩하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즉 희생적인 죽음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성별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바인(Vine)은 “주님의 성별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패턴과 능력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주님 안에서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

25.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17:20-26)

17:20 대제사장은 이제 그 기도의 범위를 제자들 너머로 확장시키셨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시대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사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19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17:21 이 기도는 신자들의 연합을 위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구원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연합은 외적인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내적 연합이었다. 그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데 있어 하나되기를 기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연합이다.

17:22 11절에서 주님은 교제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있어서의 연합이다. 이제 여기에서는 영광에 있어서의 연합이다. 이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때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게 주신 영광”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다.

우리는 아직 이 영광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지만 구세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까지는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하지만 너무 늦음).

17:23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다!

17:24 아들은 그의 사람들이 그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이 죽을 때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죽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요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 영광은 단순히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만은 아니다. 그가 구세주와 구속자로서 성취하신 영광도 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이다.

17:25 세상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몇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었다. 십자가를 지시기전날 밤 거기에는 오직 소수만의 진실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머지않아 그를 버릴 자들이었다.

17:26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다시 말해 아버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과 사역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과 사역이었다. 그들은 그리

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난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아버지를 영접할 때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각 신자들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시며 대하신다. 레우스(Reuss)는 “물질적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아들에게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은(24절)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의 창조 후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로 향하였다”고 했다.⁴⁹⁾ 그리고 고뎃(Godet)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들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닮은 자녀들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 너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
 더 이상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네.” (케티스비 파켓).

그의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에 대해 레인스포드는 “... 이는 영적인 것, 하늘의 축복을 말한다. 부나 영광 또는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성별, 그리고 무사히 하늘에 도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⁵⁰⁾

49) (17:26) F. L. Godet,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II:345.

50) (17:26) Rainsford, *Our Lord Prays*, p.173.

8.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18-19장)

1. 유다가 주님을 팔다(18:1-11)

18:1 13-1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제 예수님은 성을 떠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서쪽 언덕인 겿세마네 동산(공원)으로 가셨다.

18:2-3 유다는 주님이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기도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그곳 곧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 “군대”는 로마 군인들이며 하속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신한 유대 관리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화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세상의 빛을 찾으러 왔다.”

18:4 주님은 그들이 와서 자신을 찾기 전에 그들 앞으로 나가 그들을 맞았다. 이는 그가 자원해서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세주는 거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은 그들의 일에 대해 그들의 입으로 밝히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다.

18:5 그들은 그가 그들의 창조주이며 또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과 가장 좋은 친구란 것을 알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했다. 예수님은 “내로라”(I am;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름-역주)고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시라는 의미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I am”은 구약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것이 무리 가운데 서있는 유다를 놀라게 했는가?

18:6 주님은 잠깐 동안 그들에게 그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내셨다. 그 계시는 큰 능력이 있어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18:7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밝힌 그 능력의 말씀에도(이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같았다.

18:8-9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자기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내로라(I am; 스스로 있는 자) 하였으니.” 주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자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게 하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타심)을 보게 된다. 이리하여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18:10 베드로는 폭력을 사용해 그의 주를 구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주님의 말씀도 없이 그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다.

다. 그는 틀림없이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 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칼날이 무디어지므로 그의 오른쪽 귀밖에는 자를 수 없었다.

18:11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분별한 열심을 꾸짖으셨다.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과 죽음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의사였던 누기는 주님이 말고의 귀를 만져 낮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눅 22:51).

2. 체포되어 묶이신 예수님(18:12-14)

18:12-13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안나는 그 전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이 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즉 안나의 사위 앞에 서지 않고 안나 앞에 섰는지는 분명치 않다. 중요한 것은 불경건 죄나 이설에 대한 죄의 증명을 위해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로마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셨는데 그곳에서 그는 가이사의 적이라는 고소를 당했다. 이것은 공민재판이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을 통해야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것은 빌라도를 통해야 했다.

18:14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언한 자라고 설명하였다(요 11:50을 보라).

이제 주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직전에 계셨다. 제임스 스트워트(James Stewart)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사람은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자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대리자와 해석자로 성별된 자였다. 그는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 자였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했다. 이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환경과 기회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존 번연은 ‘천국 문에서도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로 그의 책을 마치고 있다.”⁵¹⁾

3.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 함(18:15-18)

18:15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제자”를 요한으로 본다. 요한은 겸손해서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실패 앞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요한이 얼마나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 뜰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정도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8:16-17 베드로는 요한이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요한이 그의 영향력을 사용해 베드로를 들여보낸 것이 과연 그의 친절이었는지 의문이 간다.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첫 부인이 높은 권세나 무서운 군대 앞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여종 앞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는 자신이 주

51) (18:14) Stewart, *Life and Teaching*, p.157.

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18:18 베드로는 이제 그의 주님의 적들과 섞여서 자신을 숨겼다. 그는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불에 그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다.

4.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18:19-24)

18:19 이곳에서의 대제사장이 만나인지 아니면 가야바인지 분명치 않다. 만일 만나라면(만나일 가능성이 가장 많음) 전에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의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대제사장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의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로마정부를 대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유를 하나 만들려고 했다.

18:20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은 공개된 사역이며 숨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성전이나 회당 어디에서든 유대인들이 보는데서 가르쳤으며 은밀한 것이 없었다.

18:21 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을 데려다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도전적인 일이다. 그들은 자들로 주를 송사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잘못된 일이나 말이 있다면 그들로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18:22 물론 그 도전은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욕했다. 대제사장에

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속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18:23 구세주는 고도의 침착함과 인내로 그들의 그릇된 것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악한 말을 한 것으로 그를 책잡을 수 없었음에도 진리를 말하는 그를 때렸다.

18:24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안나 앞에서의 심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요한은 가야바 앞에서의 심문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는 18장 24절과 18장 28절 사이에 알맞은 것이다.

4. 베드로의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부인(18:25-27)

18:25 이제 기록은 시몬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다. 추운 이른 아침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의 의복과 억양은 그가 갈릴리 어부란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다. 그와 함께 서있던 사람이 그에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다시 주님을 부인했다.

18:26 이제 말하는 자는 말고와 연관이 있는 자였다. 그는 베드로가 자기 친척의 귀를 베는 것을 보았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18:27 베드로는 세 번째로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는 즉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때 베

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18:28-40)

18:28 이제 종교재판은 끝나고 공민재판이 시작될 찰라에 있었다. 장소는 재판석 총독의 관청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까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에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는 것은 큰 비극이지만 살인은 하찮은 것이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사악한 소경들! 다른 사람의 집에 거하는 것은 부정하고 자신들의 살인은 부정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들은 로마 집정관으로 인하여 부정케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림으로 부정케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⁵²⁾

홀(Hall)은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외식자들이여! 그대들의 마음보다 더 부정한 곳이 있단 말인가? 빌라도 법정외의 건물도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더 부정하다. 살인을 하면서 국부적인 부정을 막는단 말인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을 치실지라도! 하나님의 피로 빨갱게 물들이면서 빌라도의 법정을 만지는 것으로 부정해질까봐 두려워한단 말인가? 낙타와 같이 큰 죄는 삼키면서도 이쑤시개와 같이 조그만 부정은 목에 걸린단 말인가? 이 불신자들이 부정하다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오히려 빌라도가 그대들의 그 거대한 부정덩어리로 인하여 자신의 담이 더러워질까 봐 염려하지 않았겠는가?”⁵³⁾

52) (18:28) Augustine, *Quoted by ryle, John*, III:248.

53) (18:28) Bishop Hall, *Ibid.*

풀레(Poole)는 “도덕은 등한히 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사람들
의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말했다.⁵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라는 표현은 유월절에 따라오는 잔치를 의미할 것이다. 유월절 예
식 그 자체는 지난밤에 지나갔다.

18:29 로마 관리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부정해질까봐 안으로 들
어오지 않음으로 그들이 있는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그 죄인을
고소하는지 묻는 것으로 그의 재판을 시작하였다.

18:30 그들의 답은 거칠고 버릇이 없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이
이미 심문해서 죄인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빌라도의 사형선고 뿐이었다.

18:31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문제를 다시 유대인
들에게 떠맡기기를 원했다. 그는 만일 그들이 예수를 심문해서 죄
를 발견했다면 왜 그들의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답은 아주 중요하다. 그들은 많은 말들에서 “우리는 독
립된 민족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주권을 빼
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
다”고 말한 것이다. 그들의 답이 자신들이 이방인의 권세와 속박아
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의 책임(비난)을 빌라도에게 돌리기를 원했다.

18:32 32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4) (18:28) Poole, Ibid.

(1)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여러 곳에서 주님은 자신이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3:14, 8:28, 12:32-34).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을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로마인들에게 넘김으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시편 22:16을 보라).

18:33 빌라도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18:34 예수님은 사실 그에게 “당신은 로마 관리로서 내가 로마를 전복하려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왕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여 가이사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말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8:35 빌라도의 “네가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에는 경멸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질문에 내포되어있는 것이다. 그의 답은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할 아무런 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말한 것뿐이었다.

18:36 주님은 자신이 왕인 것을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으며 또한 로마를 거역하는 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람의 무기로 얻는 왕국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의 제자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주를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능력이나 권위가 이 땅에서 나지 않으며 그 목적도 약하지 않다.

18:37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창과 칼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사람, 죄, 구원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의미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데 이를 통하여 그의 왕국은 커가는 것이다.

18:38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당황해서 그저 한 말인가? 비꼬는 말인가?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묻는 말인가?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앞에 성육신하신 진리가 서 계셨으나 그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빌라도는 얼른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에게서 아무 흠도 찾지 못했노라고 말했다.

18:39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도 풀어주기 위해서 그 관례를 이용하려 했다.

18:40 그러나 그 작전은 실패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강도였던 바나바를 원했다. 사악한 인간은 창조주 대신 강도를 원했다.

6. 빌라도의 선고: 무죄한 자에 대한 사형선고(19:1-16)

19:1 무죄한 자를 채찍질한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있어 공평치 못한 것이었다. 어쩌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죽이는 것은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지도 모른다. 채찍질은 로마식의 형벌이었다. 죄수들은 밧줄이나 채찍으로 때렸다. 채찍 끝에는 뼈나 쇠로 된 고리가 달려있어 그것으로 때릴 때 사람의 몸에 골이 패었다.

19:2-3 군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조롱했다. 그들은 왕을 위해 왕관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가시로 만든 것이었다. 그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내리누를 때 그것은 아주 고통스런 것이었다. 가시는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저주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하여 죄의 형벌의 관을 쓰신 모습을 본다. 자색 옷도 조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자색은 왕을 나타내는 색이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위임되었는가를

보여준다. 피조물의 손이 창조주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가 창조하신 입이 이제 그를 조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9:4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올 터인데 그는 무죄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자신의 말로 자신을 정죄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지만 석방하지 않았다.

19:5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고 나오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소리쳤다. 빌라도가 조롱하는 의미로 했는지 아니면 동정해서 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9:6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 구세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다. 교회를 통하여 보더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은 다름 아닌 교회지도자들이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으며 특별히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을 싫어했던 것 같다. 그는 사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내가 볼 때 그는 무죄한 사람시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로마인들만 그러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19:7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가이사 정부를 대적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죽음에 처해야 했다.

19:8-9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빌라도를 두렵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에게 한 부당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두렵게 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 안 또는 재판소로 데리고 가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어려운 곤경에 빠져있었다. 그는 그의 입술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를 놓아 보낼 용기가 없었다. 예수님은 왜 그에게 답하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주님은 빌라도가 그의 소신대로 정의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빛에 옳게 반응하지 못했다. 주어진 빛에 반응하지 못하면 더 많은 빛이 주어지지 않는다.

19:10 빌라도는 예수님을 헐박하여 답하게 하려 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은 로마관리로서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9:11 주님의 인내심은 참으로 놀랍다. 그는 빌라도보다 더 침착하셨다. 그는 조용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

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영적이든 육적이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좇아 나온 것이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는 (1) 대제사장 가야바나, (2) 예수님을 판 유다 또는, (3)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의 사상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좀 더 알아야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있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이를 알아야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고 이제는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빌라도도 죄가 있었지만 가야바나 유다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의 죄는 더 컸다.

19:12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변론을 하였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공적 타이틀이었다). 그들은 가이사는 생각하면서도 주님은 미워했다. 그들은 가이사를 죽이고 그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위협으로부터 가이사를 보호하는 척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됨으로 인하여 그 외식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

19:13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가이사에 대한 불충성의 비난을 막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 폭도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끌고 나와 그러한 재판이 자주 행해지는 박석이라는 곳에 앉았다.

19:14 사실 유월절 잔치는 전날 밤에 이미 행해졌다. 유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에 따라오는 잔치들에 대한 준비일이라는 의미이다. “제 육 시”는 대략 오전 6시경을 의미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약 올리고 화나게 하기 위해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19:15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빌라도는 “그대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인가?”라는 질문으로 그들을 조롱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함으로 자신들의 천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믿음이 없는 민족이여! 악한 이교도의 왕을 위해 하나님을 거절한단 말인가!

19:16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였다.

7. 십자가의 죽음(19:17-24)

19:17 십자가로 번역된 이 말은 나무 하나(기둥 같은)나 나무 두 개로 만들어진 십자가형을 의미할 수 있다. 어느 이든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에게 지웠다. “해골이라는 곳”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1) 특별히 그곳은 무덤들이 있는 언덕이고 또 그곳 모양 자체가 해골을 닮아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갈보리 동산도 그렇다.

(2) 모세의 율법을 볼 때 그러한 일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곳이 죄인들의 사형장이라 여기저기에 뼈와 해골들이 널려있어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다.

19:18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혔다. 그 후 십자가는 들었다가 바닥에 파놓은 구멍에 내려뜨려 세워졌다.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온전히 사셨던 분이 그의 백성들로부터 받은 대접이 그것이었다. 만일 당신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라면 이제 그의 죽으심에 대해 읽었으므로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는가? 두 강도가 주님의 좌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였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19:19 일반적으로 죄인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위에 죄패를 붙이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이게 했다.

19:20 알렉산더(Alexander)가 이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그것은 죽장이나 선지자들의 성스러운 말이었으며 헬라어로 그것은 철학의 추상적인 개념에 형태와 혼을 붙여넣는 음

악이나 금언이었다. 그리고 라틴어로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 가장 강한 자를 의미했다. 이 세 가지 언어가 세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계시, 예술, 문학: 진보, 전쟁, 법률.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욕망이 존재하는 곳, 인간의 언어가 있는 곳, 죄를 짓는 마음과 말할 수 있는 혀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십자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⁵⁵⁾

그곳은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 밖에서 못 박히셨다. 정확한 장소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19:21 대제사장들은 그 팻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이 아닌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9:22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말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단호함을 좀 더 일찍 보여주었어야 했다.

19:23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에게는 그 죽을 자에게 속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는 것을 본다. 주님이 입으셨던 옷은 모두 다섯 가지였던 것 같다. 그들은 네 명이 하나씩 나누었지만 통으로 짜서 나눌 수 없는 속옷이 하나 있었다.

19:24 그들은 제비를 뽑아 이긴 자가 그 속옷을 가졌다. 그들은

55) (19:20) Alexander,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그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천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시 22:18). 이 예언 성취는 우리들에게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거해준다.

8.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함(19:25-27)

19:25 많은 성경학도들은 이 구절에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한다.

- (1)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 (2) 마리아의 형제이며 요한의 어머니인 살룸.
- (3)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 (4) 막달라 마리아.

19:26-27 주님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다. 주님은 그 어머니와 요한을 보시고 그녀의 남은 삶을 돌 아보도록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소개했다. 주님이 그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녀를 경시한 것이 아니다. 그가 그녀를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여기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보라고 부탁하셨다. 요한은 이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9.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19:28-30)

19:28 27절과 28절 사이에 3시간(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동안 흑암이 있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육적인 목마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의 더 큰 목마름, 즉 육적인 목마름보다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영적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19:29 군인들이 그에게 신포도주를 주었다. 그들은 아마 막대기 끝에 우슬초와 해용을 달아 거기에 포도주를 적셔서 그의 입에다 갖다 대었을 것이다. 우슬초는 식물로써 유월절에도 사용되던 것이었다(출 12:22). 이것은 이 앞에서 그에게 제시한 쓸개 탄 식초(포도주)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마 27:34).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한 것은 그것이 진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고초를 감하지 않고 당하셔야만 했다.

19:30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일! 그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쏟아 붓는 일! 구속과 속죄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과 장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 위에서 이루신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님이 그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은 그의 머리를 뒤로 기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바인(Vine)은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머리가 그저 힘없이 처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쉬의 자세로 놓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영혼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그의 죽음의 때를 자신이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 영혼을 거두셨는데 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0. 주님의 옆구리를 찌름(19:31-37)

19:31 우리는 다시 한 번 유대인들이 살인을 하면서도 적은 것들에는 얼마나 주의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약대는 삼키면서도 하루살이는 걸러내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성에서 곧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9:32 그들이 다리를 어떻게 꺾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곳만 꺾어서는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을 꺾었을 것이 틀림없다.

19:33 군인들은 그러한 일에는 아주 익숙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알았다. 주님이 잠시 기절했거나 졸도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19:34 우리는 한 병사가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마지막 표출이었는지 모른다. “이는 향복한 적명을 향해 쓰는 비열한 총탄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분개를 말해준다”

물과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심장파열로 돌아가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자발적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억지이다. 물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을 상징한다. 다음의 구절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당신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저의 죄와 그 능력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어거스터스 탐레이디).

19:35 35절은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으며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다는 것 또는 십자가형의 전반적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본 자”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다.

19:36 이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대한 성취로 33절을 되돌아본 것이다. “뼈도 꺾지 말지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유월절 양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뼈를 꺾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참 유월절 양으로서 정확히 그 모형들을 이루셨다.

19:37 37절은 34절을 뒤돌아보고 있다. 군병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다른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다(슥 12:10). “사람은 그의 악을 행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 스가라의 예언은 믿는 유대인들이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이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11. 요셉의 무덤에 묻히심(19:38-42)

19:38 이 구절은 주님의 장례를 보여준다. 이때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한 신자였다.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었다. 이제 그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출교와 핍박 그리고 격렬한 반대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주님이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실 때 담대하게 나서지 못한 것은 오직 그에게 후회만을 가져올 뿐이다.

19:39-40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나(3장) 공회 앞에서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통해(7:50-51)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요셉과 함께 하여 몰약과 침향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이 향들은 분말 형태로 몸에 뿌릴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후에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

19:41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자세한 이야기들은 예언 성취 그대로이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악인들과 함께 묻으려고 하겠지만 그의 무덤은 부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사 53:9). 동산에 있는 새 무덤은 아마도 부자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서 우리는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19:42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었다.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 잔치 때문에 빨리 시체를 치우기를 원했다. 그러나 주님의 시신이 3일 밤낮을 땅속 무덤에 있어야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루의 한 부분이라도(한나절, 반나절) 하루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3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그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9. 하나님 아들의 승리(20장)

1. 빈 무덤 (20:1-10)

20:1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 무덤에 갔다. 무덤은 아마 언덕에 판 굴 안에 있는 작은 방이었을 것이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오늘날 동전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다. 굴 입구에는 흠이 있어 그 돌 덮개는 굴려서 열기도하고 닫기도 했다. 마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듯이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20:2 마리아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누가 가져갔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그제 전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때 보여준 이 여인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은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20:3-4 급히 갈보리 동산에 있는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생각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어서 무덤에 더 빨리 도착했다.

20:5 무덤의 입구가 낮아 안을 들여다보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했던 것 같다. 요한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세마포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말인가? 아니면 몸을 찢던 것인데 그대로 그곳에 풀려 있던 말인가? 몸을 찢던 것인데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20:6-7 그때쯤 베드로도 무덤에 도착해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우리로 하여금 친밀(유사)감을 느끼게 한다. 그도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주는 보지 못했다. 수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주님이 급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질서 있게 떠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만일 누군가가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세마포나 수건을 잘 정리해두지 않았을 것이다.

20:8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나 머리를 찢던 수건이 아주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고 믿은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 그 증거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했으며 그는 그것을 믿었다.

20:9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인용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하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주님은 거듭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요한이 맨 먼저 그것을 이해했다.

20:10 그 후 제자들은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왔다.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무덤에서 기다리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들의 본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20:11-18)

20:11 “그러나 마리아는.” 이 두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다른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과 헌신의 여인을 보게 된다. 그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주를 많이 사랑한 것이다. 그녀는 외로이 무덤 밖에서 어찌면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리라는 생각에 울고 있었다.

20:12 이 때 그녀는 무덤 안 즉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어찌면 그렇게도 감정의 개입 없이 담담히 기록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20:13 마리아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일처럼 그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그녀의 대답은 아직도

그녀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4 이 때 그녀는 누군가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때는 아직 새벽이었고 햇빛이 아직 비치지 않을 때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기 전에는 그녀가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20:15 주님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지만 그녀의 입술로부터 듣기를 원하셨다. 그녀는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세상의 구주께서 사람들 가까이 계시나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보통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자로 오시고 위대한 자로 오시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의 대답에서 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세 번이나 그녀는 예수님을 “그”로 말했다(영어성경 NKJV에는 “주여 당신이 ‘그’를 어디로 옮겨갔거든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가져가리이다”로 되어있음-역주). 그녀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는 없었다.

20:16 마리아는 이제 아주 친숙한 목소리로 자기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셨다. 그녀는 예수님을 “랍오니”라고 불렀는데 이는 “위대하신 선생”이란 의미이다. 사실 그녀는 아직도 주님을 그녀가 알고 있는 선생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이제는 단순히 그녀의 선생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주(主)요 또한 구세주이

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를 이해하도록 그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셨다.

20:17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만일 주님이 몸으로 그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면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그녀의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만 했다. 그는 “단순히 육체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에 대하여 그가 네 마음에 밝혀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너와 친밀하게 그리고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주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그 형제들에게 새로운 명을 전하라 하셨다. 처음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요 주님의 하나님인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했다. 이때까지는 아직 신자들이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주님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우리는 입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형성되어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

다. 그리고 영원히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20:18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에게 주신 주님의 명을 순종하여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에 대한 사도”가 되었다. 이 큰 특권이 그녀의 헌신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3. 제자들에게 나타나심(20:19-23)

20:19 이때는 이제 일요일 밤이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아마도 그곳은 그들이 3일 전에 함께 있었던 이층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문을 여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적이었다. 그의 부활은 뼈와 살이 그대로 있는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데도 그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평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다.

20:20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 평강을 이루기 위해 당하신 상처들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못 박힌 자국과 창자국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이 진정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기쁨이 충만하였

다. 그는 자신의 하신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이다.

20:21 21절은 아주 아름답다. 신자들은 그의 평강을 이기적으로 혼자 즐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종으로 오셨고 자신을 비우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는 자신을 사람들과 동일시 하셨으며 선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는 모든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의 목표는 십자가였다. 그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다.

20:22 이 구절은 복음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다. 이곳에서의 어려움은 오순절 날까지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즉시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성령이 즉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1) 어떤 이들은 주님이 앞으로 오순절 날에 임할 성령님에 대한 하나의 약속으로 그같이 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다.

(2)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성령님”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

이나 능력 그리고 그들의 선교에 대한 인도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에 대한 보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리 맞본 것이라고 말한다.

(3) 다른 사람들은 이 때 제자들에게 온전히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한다. 이 견해는 아직까지 성령의 오심을 미래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사도행전 1장 4,5,8절 말씀과 대치된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볼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 즉 하늘나라로 가지지 전에는 온전한 의미에서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20:23 이 구절 또한 난해구절로써 많은 이견들이 있다.

(1) 한 가지 견해는 주님이 실지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후계자들에게 죄를 속하기도 하고 머물러 둘 수도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대치된다(눅 5:21).

(2) 게벨레인(Gäbelein)은 두 번째 견해를 인용하였다. “약속된 능력과 권위는 복음전파와 연관되어 있다. 죄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를 받으면 용서되고 받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게 된다.”

(3)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 번째 견해(두 번째 것과 유사한)는 제자들에게 죄 용서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권리(특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그 때 제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를 거부한다. 그

러면 제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아직 그들에게 있으며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설명에 덧붙여서 우리는 또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죄를 다루는데 있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5절, 12-13절에서 악한 자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며 고린도후서 2장 4-8절에서는 죄를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경우 용서는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내려질 형벌로부터의 용서를 말한다.

4. 의심이 믿음으로 변함(20:24-29)

20:24 우리는 도마가 그곳에 없었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가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20:25 도마는 그의 불신을 인하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태도도 그러하지만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그들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믿고 있다.

20:26 일주일 후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 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주님은 다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20:27 주님은 그의 믿음 없는 제자를 온유와 인내로 다루셨다. 그는 그 제자에게 못 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져보고 자신의 부활을 믿으라고 권하셨다.

20:28 도마는 깨우침을 받았다. 그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창 자국을 만져보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또한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 존 도이스(John Doys)는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그는 눈에 보이는 상처 자국을 통하여 보지 못하던 신성을 보았다.”

20:29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가 단순히 한 인간이었다면 그는 그 예배를 거절했어야 했다. 도마의 믿음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었다. 더 복된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실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한다.

5. 요한복음서의 목적(20:30-31)

20:30-31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이 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기록될 것들을 택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본다. 그것은 이 책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도 믿었는가?

10.

결론 : 스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21장)

1.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21:1-14)

21:1 이제 무대는 디베라 바다(갈릴리)로 바뀌었다.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주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셨다.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는 구절의 의미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21:2 그 때 그곳에는 7명의 제자들, 베드로, 도마, 나dana엘, 야고보, 요한(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

21:3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려 하니 다른 제자들도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어떤 성경학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또 먼저 기도하지 않고 가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고기 잡으러 가기로 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 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정도의 초보어부는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인간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좋은 예이다.

21:4 예수님은 아침에 그들이 바닷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 때가 아직 어두울 때이거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셨을 것이다.

21:5 주님께서 그들에게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들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주님에게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

21:6 그들이 알기로 그는 그저 바닷가를 거니는 행인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다.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 이는 주님께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봉사)의 방향을 설정하실 때 거기에는 빈 그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는 구원받도록 준비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기꺼이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21:7 주님을 맨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다. 그는 즉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 베드로는 겹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가 수영을 했는지 아니면 걸어서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위를 걸어갔는지 알 수는 없다.

21:8 다른 제자들은 약 50간쯤 되는 곳에서 큰 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물을 배에 맨 후 주께로 나왔다.

21:9 주님은 떡과 고기를 구워 그들의 아침을 다 준비해두고 계셨다. 주님이 고기를 잡으셨는지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 고기를 얻으셨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들의 미약한 노력에만 의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복음집회나 개인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람들의 도움 없이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21:10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셨다. 이는 요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산해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들로 그의 사역에 대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1:11 성경은 그물에 잡혔던 고기의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153마리. 이 고기의 숫자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해석이 많다. (1) 당시의 세계 언어의 숫자이다. (2)복음의 그물이 펼쳐질 세계의 인종이나 종족의 숫자이다. (3)갈릴리 바다 또는 세계의 물고기 종류의 숫자이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 부족에서부터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기가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어부도 알고 있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서

는 하나님의 일은 자원고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보다 더 확고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그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21:12 제자들은 아침식사에 초대되었고 주님이 준비하신 좋은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 불가에 둘러앉았다.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 그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불을 쪼다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했을까? 제자들은 이상하게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꼈다. 부활하신 주가 그들 앞에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 묻고 싶은 질문도 많았다. 그러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에게서 약간 신비스러운 베일이 그를 두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분명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1:13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을 대접하셨다. 그들은 아마 이와 비슷한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던 옛날을 생각했을 것이다.

21:14 이것은 요한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한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또 다른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날 밤과 일주일 후 그리고 이번 푸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셨다.

2. 베드로의 회복(21:15-17)

21:15 주님은 먼저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돌아보셨다. 이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한 불에 몸을 녹인 다음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셨다. 베드로는 공적으로 세 번이나 주를 부인했다. 그 후 그는 회개하고 회복되어 주와 교제하고 있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회복이 주님에 의해 공적으로 선포(인정)되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의미의 사랑에 대한 용어가 사용된 것이 가끔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15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⁵⁶⁾ 네가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는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교훈을 배운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실질적인 면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그의 어린양들을 먹이는 것이다. 고기 잡는 것에서 양을 먹이는 것으로 대화가 바뀐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것으로써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이 전도라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과 목양이다.

21:16 주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두 번째의 대답에서 진실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양 무리 중에는 어린양도 있고 다 자란 양도 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정성어린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

56) (21:15) The critical (NU) text names Peter's gather John instead of Jonah(also vv.16,17)

21:17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듯이 그에게 또한 세 번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실 것이라는 사실에 호소했다. 그는 세 번째에도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구절에서의 중심적인 교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의 동기는 오직 그에 대한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예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심(21:18-23)

21:18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그가 나이가 든 후에는 체포되어 처형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1:19 18절에 대한 설명이다. 베드로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었다. 주를 부인했던 자에게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질 것이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다.

21:20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뒤를 돌아보아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던 것 같다.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을 유월절 날 주님의

폼에 기대어 주를 팔 자가 누구인지 묻던 그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 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잠시 멈추고 있다.

21:21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요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도 순교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그는 주님에게 요한의 장래에 대해 물었다.

21:22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요한의 말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다 할 지라도 그것은 베드로와 상관이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있어 많은 실패의 원인은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21:23 주님의 말씀이 잘못 사용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재림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서 요한을 그의 재림과 연관시키신 것과 또 그가 장래의 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을 기록한 사실에 대하여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4.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마침(21:24-25)

21:24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자신의 증거를 덧붙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요한복음에 대한 예베소

교회 장로들의 증명이라고 생각한다.

21:25 25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시다. 그의 말씀이나 사역은 제한이 없다. 그는 이 땅에 계셨을 때도 태양이나 지구 그리고 별들과 같은 우주를 붙들고 계셨다. 이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분의 일에 대하여 그 누가 다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이적만 해도 그렇다. 겨우 외형적인 것만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다. 간단한 병 고침도 신경과 힘줄, 피 그리고 다른 세포들을 그가 통제하신 것이다. 그분의 그 모든 균들에 대한 통제, 물고기들과 짐승들을 생각해 보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원소적 구조와 운동, 그리고 역할들을 생각해 보라. 이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충분하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물론 “아니오”이다.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도 끝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이 책이 왜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 받는 책이 되었는지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누구든 정성스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참고 도서

- Godet, F. L.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9(Reprint of 1893 ed., 2vols. in one)
- Hole, F. B. The Gospel of John Briefly Expounded. London: The Central Bible Truth Depot, n.d.
- Inside, H. A. Addresses on the Gospel of John. New York: Loizeaux Bros., 1956.
- Jones, J. Cynddylan. Studies 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Toronto: William Briggs, 1885.
-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Gospel of Hohn. London: C. A. Hammond Trust Bible Dopot, 1966.
-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Gospel.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42.
- Macaulay, J. C. Obedience Unto Death: Devotional Studies in John's Gospel.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1942
- Pink, Arthur W. Exposition of the Gospel of John. Vol. III. Swengel, Pennsylvania: Bible Truth Depot, 1945
- Rainsford, Marcus. Our Lord Prays for His Own. Chicago:

- Moody Press, 1955.
- Ryle, J. C. Expository Thoughts on the Gospels: St. John.
London: James Clarke and Co., Ltd.,1957.
- Tasker, R. V. G.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1968.
- Tenney, Merrill C. JOHN: The Gospel of Belief.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1948.
- Thomas, W. H. Griffith. The Apostle John: Studies in His Life
and writing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1968.
- Van Ryn, A. Meditations in John. Chicago: Moody Press,1949.
- Vine, W. E. John, His Record of Christ. London: Oliphants,1957.
- Westcott, B. F.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4.